

한영숙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현대 차생활 용어의 문헌적 고찰

- 1980년대 이후 '茶'자가 들어간 용어를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 전공  
이 향 숙

# 현대 차생활 용어의 문헌적 고찰

- 1980년대 이후 '茶' 자가 들어간 용어를 중심으로 -

한영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 전공

이 향 숙

# 인 준 서

이향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7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의 문헌상에 掲載된 차생활용어를 발췌하여 그 내용을 분류·고찰함으로써, 현대 차생활용어를 辭典적으로 考定하고자 함에 있다. 그 고찰대상 문헌으로 국어대사전 6종과 다서 6종을 선정하였다. 먼저 차생활용어를 문헌별로 선정한 후 양태별로 분류·고찰하였으며, 현대 차생활용어로 考定하고자 하였다.

첫째, 1980년대 이후의 사전 6종에 수록된 용어 629개 중 중복, 불완전, 상호모순 등의 용어를 제외한 161개의 용어를 집약 분류하여 차생활용어로서 재정립 또는 관용의 미를 추가하고자 하였다.

둘째, 1980년대 이후의 다서 6종에 수록된 용어 357개 중 중복, 불완전, 상호모순 등의 용어를 제외한 193개의 용어를 사전용어를 근간으로 대조 정리함으로써 현대인의 음다생활에 참고토록 했다.

셋째, 고찰대상문헌 12종의 '茶'자가 들어간 용어를 양태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 관련 용어 33개, 인물 관련 용어 17개, 茶물품 관련 용어 49개이다. 茶물품 관련 용어는 茶 관련 용어 29개, 물 관련 용어 6개, 차음식 관련 용어 14개로 나누어진다. 차도구 관련 용어는 120개이며, 이는 차 만드는 도구 용어 12개, 차 끓이는 도구 용어 9개, 차 우리는 도구 용어 20개, 차 내는 도구 용어 23개, 차 마시는 도구 용어 17개, 차 정리하는 도구 용어 10개, 차 보관하는 도구 용어 15개, 기타 세간 14개로 나누어진다. 기법·양식에 관련되는 용어는 14개이며, 언어 관련 용어 6개, 행동 관련 용어 8개로 나누어진다. 茶문헌 관련 용어는 10개이다. 생활·관습 관련 용어는 42개이며, 茶의식에 관련된 용어 13개, 차모임·보급에 관련된 용어 15개, 차 풍속·제도와 관련된 용어 14개로 나누어진다.

넷째, 고찰대상 용어들의 객관적인 집약은 다음과 같다.

장소 관련 용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茶房으로 이 용어는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전자는 '조정의 다례를 거행하고 왕이 행행할 때 수반되는 다례를 봉행하는 곳'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으며, 후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놓고 차(茶)나 음료 따위를 판매하는 곳'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인물 관련 용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茶角이며, 茶角의 원래의 뜻은 고려·송대의 공납차 포장단위였다. 그러나 『大漢和事典』에서 茶角의 뜻은 '차모임의 초대장' 또는 '차 첩자'라고 되어 있다.

茶물품 관련 용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차(茶)였으며, 차는 문헌 고찰 결과 차나무의 어린잎을 달이거나 우린 물로 만든 차와, 식물의 잎이나 뿌리, 과일 따위를 달이거나 우리거나 하여 만든 마실 것을 통틀어 이르는 차로 나누어진다.

차도구 용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차잔'이며 '차를 담아 마시는 잔'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법·양식 관련 용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다화(茶話)이며 '차를 마시며 하는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다.

茶문헌 관련 용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다경(茶經)이며 '차에 대한 최초의 전문서로 차(茶)의 기원·제법(製法)·기구(器具)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행사·관습 관련 용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다례(茶禮)이며 '예절을 갖추어 신명·부처·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는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12종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현대 차생활 용어는 아직 체계적이지 않아서 바르고 통일된 용어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아울러 현대에 생겨난 많은 용어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 론

1. 문제제기 .....	1
2. 연구방법 .....	2
1) 연구대상 .....	2
2) 분류방법 .....	4
3) 용어의 정의 .....	5
4) 연구의 제한점 .....	6

### II. 문헌별 차생활 용어

1. 사전류 .....	7
2. 다서류 .....	9

### III. 양태별 차생활 용어 분류

1. 장소 관련 용어 .....	11
2. 인물 관련 용어 .....	11
3.茶具품 관련 용어 .....	14
4. 차도구 관련 용어 .....	17
5. 기법·양식 관련 용어 .....	22
6. 茶文헌 관련 용어 .....	23
7. 행사·관습 관련 용어 .....	24

IV. 문헌을 통해 본 차생활용어 고찰

1. 양태별 차생활용어 고찰 .....	27
2. 문헌상의 용어 비교 분석 .....	120
3. 현대 차생활용어의 考定 .....	129

V. 결론 및 제언 .....	138
------------------	-----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양태별 차생활용어의 분류 .....	6
<표 2> 장소 관련 용어 .....	12
<표 3> 인물 관련 용어 .....	13
<표 4> 茶 관련 용어 .....	15
<표 5> 물 관련 용어 .....	16
<표 6> 차음식 관련 용어 .....	17
<표 7> 차도구 관련 용어 .....	19
<표 8> 기법·양식 관련 용어 .....	23
<표 9> 茶문헌 관련 용어 .....	24
<표10> 행사·관습 관련 용어 .....	25
<표11> 장소 관련 용어 .....	39
<표12> 인물 관련 용어 .....	46
<표13> 茶 관련 용어 .....	54
<표14> 물 관련 용어 .....	58
<표15> 차음식 관련 용어 .....	63
<표16> 차 만드는 도구 용어 .....	67
<표17> 차 끓이는 도구 용어 .....	69
<표18> 차 우리는 도구 용어 .....	74
<표19> 차 내는 도구 용어 .....	79
<표20> 차 마시는 도구 용어 .....	84
<표21> 차 정리 도구 용어 .....	87
<표22> 차 보관 도구 용어 .....	90
<표23> 기타세간과 관련된 용어 .....	94
<표24> 언어 관련 용어 .....	96
<표25> 행동 관련 용어 .....	99

<표26> 茶문헌 관련 용어 .....	102
<표27> 茶의식 관련 용어 .....	107
<표28> 차모임·보급 관련 용어 .....	113
<표29> 차풍속·제도 관련 용어 .....	119
<표30> 한글로는 같은 말이나 한자가 달라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용어 .....	125
<표31> ‘차’와 ‘다’가 같이 쓰이는 용어 .....	126
<표32> 장소 관련 용어 .....	129
<표33> 인물 관련 용어 .....	130
<표34> 茶 관련 용어 .....	131
<표35> 물 관련 용어 .....	132
<표36> 차음식 관련 용어 .....	132
<표37> 차도구 관련 용어 .....	133
<표38> 기법·양식 관련 용어 .....	135
<표39> 茶문헌 관련 용어 .....	135
<표40> 행사·관습 관련 용어 .....	136

# I. 서론

## 1. 문제제기

차의 기원은 인류가 자연을 이용하여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유하게 된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고대의 신농(神農)씨로부터 차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BC 3000여년 경부터이다.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제10권 <흥덕왕>조에<sup>1)</sup> 나타나 있다. 기록상으로 보아도 약 1400여 년 전부터 차를 마셨으며, 시대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면서 문화의 한 형태로써 자리 잡아 왔다.

근래에 들어 대학과 대학원에 차 관련학과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茶’의 학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에 부응하여 ‘차학’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형성·발전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도 각 차회는 물론, 다도교육을 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바르고 통일된 용어를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차용어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병근은 “茶用語의 標準化를 위한 大辭典류에 표기된 用語 고찰”에서 수집된 47종의 사전에서 용어를 분석하면서 차, 엽차, 녹차의 정의를 제시하였다.<sup>2)</sup> 이해자는 “茶用語의 標準化 研究”에서 훈민정음 이후, 우리말로 표현된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차’와 ‘다’의 사용빈도를 살펴 차의 소비분야에 대한 용어를 고찰하였다.<sup>3)</sup> 윤경혁은 『현대 차생활용어』에서 현대 차생활에 두루 사용하는 말과 사용할 수 있는 말을 분야별, 계통별로 모아서 정리하였다.<sup>4)</sup>

1) 『삼국사기』 제10권. 신라본기 제10, 42. 興德王 3년 12월 "茶自善德王時有之"

2) 박병근(2001). "茶用語의 標準化를 위한 大辭典류에 표기된 用語 고찰". 『韓國茶學會誌』 7권2호. p.51.

3) 이해자(1996). "茶用語의 標準化 研究". 『韓國茶學會誌』 2권 1호. p.79.

4) 윤경혁(1990). 『현대 차생활 용어』. 서울: 도서출판 보림사. p.8.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관련 용어'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전의 역할을 할 정확하고 통일된 지침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차 용어에 대한 연원을 밝혀 현대 차생활용어로써 考定을 시키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차생활용어에 대한 문헌자료를 우선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대 차생활용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간행 연도가 1980년대 이후인 문헌 중에서 사전류 6종, 다서류 6종을 고찰대상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차문화가 1980년을 기점으로 새로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다서도 활발하게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선정 기준은 사전류는 근래 국가기관과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다서류는 책의 구성에 「차생활」 편이 실린 것으로 하였다. 고찰대상용어는 '茶'자가 들어간 용어 중, 사전류와 다서류에 각1회 이상 의미가 정확히 기재된 용어만을 발췌하였다. 발췌된 용어 중 뜻은 없고 용어만 나오는 경우는 △로 별도 표시를 하였다.

### (1) 사전류

① 『새 우리말 큰사전』 : 1988년 삼성이데아에서 출간한 사전으로 현대어·고어(古語)·방언(方言)·고사어(故事語)·외래어(外來語)·시사용어(時事用語)·유행어(流行語)·은어(隱語) 등과 일반사회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사회제반 사항(社會諸般事項)이나 역사적 사건(歷史的 事件) 등 다양한 내용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짜임새 있게 정리한 사전이다.<sup>5)</sup>

5) 신기철·신용철 편저(1988).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이데아. 머리말.

② 『국어대사전』 : 한국어사전편찬회에서 1991년 발행한 사전이다. 50만 어휘의 수록으로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sup>6)</sup>

③ 『우리말 큰사전』 : 1991년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사전으로, '큰사전'이후 지금까지 나온 사전 중에서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많은 문학작품에서 찾아보기글로 함께 수록하고 있다. 남과 북의 방언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실고 있다.<sup>7)</sup>

④ 『금성관 국어대사전』 : 1995년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사전으로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된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1988)을 충실하게 반영한 사전이다.<sup>8)</sup>

⑤ 『표준국어대사전』 : 국가에서 최초로 직접 편찬한 국어사전이다.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 등 50여만 단어(전문어: 19만, 북한어: 7만, 방언: 2만, 옛말: 1만2천, 중복단어는 각각 계산)가 수록되어 지금까지 나온 사전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수록하였다.<sup>9)</sup>

⑥ 『민중대사전』 : 이희승이 편저한 사전으로 1961년 민중서관(民衆書館)에서 초판이 간행되었다. 고대의 이두와 고어로부터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낱말들과 방언, 속어 및 각종 전문어들이 총망라되었음은 물론, 3400여 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을, 독자의 편의를 위해 단권으로 수록한 사전이다.<sup>10)</sup>

## (2) 다서류

① 『현대차생활용어』 : 1990년 윤경혁이 출간한 책으로, 차생활용어에 대한 3000용어가 수록되어 있다.<sup>11)</sup>

② 『茶道學』 : 1998년 김명배가 증보 발행한 책(초판발행: 1990년)으로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의 식물학, 차의 세계사, 다도의 원리, 한국다도의 역

---

6) 이승녕외(1991). 『국어대사전』. 서울: 삼성문화사. 감수의 말.

7)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발간사.

8) 김상형 외(1995). 『금성관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머릿말

9) www.naver.com

10) 민중서림(2002). 『민중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발간사.

11) 윤경혁(1990). 『현대 차 생활 용어』. 서울: 도서출판 보림사.

사에 대해 서술되어 있으며 개념의 통일을 위하여 '다례'와 '다도'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한 책이다.<sup>12)</sup>

③ 『한국茶文化』 : 2002년 정영선이 증보 발행한 책(초판발행: 1990년)으로 차(茶)의 개론, 다문화사(茶文化史), 다생활의 실제 등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sup>

④ 『금당다화』 : 금당 최규용이 지은 책으로 2004년 출판되었으며, 차에 대한 술어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14)</sup>

⑤ 『韓國茶藝』 : 석용운이 2005년 증보 발행한 책(초판발행: 1988년)으로 차의 개론과, 차생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생활의 실제와 고래의 행다법에 관해 자세한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이다.<sup>15)</sup>

⑥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차』 : 2006년 여연이 지은 책으로 차, 역사와 문화속의 우리차, 생활속의 우리차로 엮어진 책이다.<sup>16)</sup>

## 2) 분류방법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에서 발췌한 차생활용어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의 차생활용어는 제다용어와 품평용어, 차의 이름과 종류와 관계된 용어는 제외하고, 茶事와 관련된 용어를 위주로 하였다.

둘째, 본 논문에서 발췌한 문헌별 차생활용어는 사전류와 다서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셋째, 발췌한 차생활용어를 분류하기 위하여 이정주<sup>17)</sup>의 조선시대 문화분류체계 작성의 방안연구<sup>18)</sup>에 의거하여 양태별 장소 관련 용어, 인물 관련 용어,

12) 김명배(1998). 『茶道學』. 서울: 학문사.

13) 정영선(2002). 『한국茶文化』. 서울: 도서출판 너럭바위.

14) 최규용(2004). 『금당다화』. 서울: 도서출판 이른아침.

15) 석용운(2005). 『한국다예』. 서울: 도서출판 초의.

16) 여연(200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차』. 서울: 현암사.

17) 고려대 연구교수

18) 김문용·이정주(2003). "조선시대 문화분류체계 작성의 방안".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84.

차물품 관련 용어, 차도구 관련 용어, 기법·양식 관련 용어, 차문헌 관련 용어, 행사·관습 용어로 분류하였다.

넷째, 한자로는 같은 뜻이나 한글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는 각 용어를 모두 실었다.

다섯째, 같은 의미인데 사전류와 다서류에 뜻이 다르게 수록된 경우는 1차적으로 사전의 뜻을 위주로 분류하였다.

여섯째, 현대 차생활용어를 고찰하기 위하여 12종의 문헌에서 내린 용어의 뜻을 표로 나타내었으며,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용어의 연원을 찾아 考定<sup>19)</sup>시켰다. 각 용어는 『大韓和事典』의 뜻과 비교하였으며, 이 사전에 없는 용어는 각 연구의 선행논문을 참고로 하였다. 또한 한자의 뜻은 『漢韓大辭典』을 토대로 고찰하였다.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는 발췌한 용어의 분류를 위해 차생활을 차문화의 한 형태로 보았다. 이를 조선시대 문화분류체계 작성의 방안연구<sup>20)</sup>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우리가 차생활을 하기 위한 차산지와 음다 장소를 '장소'라 정의한다.
- (2) 차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과 관련된 용어를 '인물'이라 정의한다.
- (3) 차를 끓여 마시기 위해 필요한 차(茶), 물, 차음식과 관련된 용어를 '차물품'이라 정의한다.
- (4) 차를 우려 마시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차도구'라 정의한다.
- (5) 차자리에서 차를 우려기 위한 행위와, 언어와 관련된 용어를 '기법·양식'이라 정의한다.

19) 이승녕 외(1991). 『국어대사전』. 서울: 삼성문화사. p.203.

考定: 생각하여 정함. correction.

20) 김문용·이정주(2003). 앞의 책. p.84.

(6) 차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양을 높이기 위한 서책을 '茶문헌'이라 정의한다.

(7) 차문화의 한 형태인 茶의식, 차모임 및 보급, 차풍속 및 제도와 관련된 용어를 '행사·관습'이라 정의한다.

<표 1> 양태별 차생활용어의 분류

양태	장소	인물	茶물품	차도구	기법·양식	茶문헌	행사·관습
용어				차 만드는 도구			
				차 끓이는 도구			
	장소	인물	茶	차 우리는 도구	언어	茶문헌	茶의식
			물	차 내는 도구	행동		차모임·보급
			차음식	차 마시는 도구			차풍속·제도
				차 정리하는 도구			
				차 보관하는 도구			
				가타세간			

####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는 분석대상을 국어대사전 6종과 현대다서 6종으로 한정하였다. 차생활용어 중 茶事와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전체적인 차생활용어를 정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고찰한 용어는 '茶'자가 들어간 용어 중에서 사전류와 다서류에 각각 뜻이 1회 이상 정확히 풀이된 것만을 선별하였으므로, 문헌에 용어만 등장한 것은 고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Ⅱ. 문헌별 차생활 용어

### 1. 사전류

#### 1) 『새우리말 큰사전』 (1988)

『새우리말 큰사전』에는 차생활용어 91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차도구와 관련된 용어 중 차 정리도구와 茶문헌에 해당하는 용어는 없었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행사·관습과 관련된 용어가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우리말 대사전임에도 순우리말 차생활용어가 많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다른 사전에 있는 차갈매, 찾가마, 찻술, 찻주전자, 차순갈, 찻거르개, 찻순가락, 찻순갈, 차받침, 찻잔받침, 차종지, 찻봉지 등의 순우리말 용어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 2) 『국어대사전』 (1991)

『국어대사전』에는 차생활용어 99개가 수록되었으며, 이 중 차 정리도구에 해당하는 용어는 수록되지 않았다. 장소와 관련된 용어는 『새우리말 큰사전』에 비해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인물과 관련된 용어는 비슷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다른 사전에는 없는 영문표기가 되어 있어 우리의 고유한 차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사전이다. 영문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용어에 대해서는 모든 차생활용어의 우리말 표기를 영문표기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3) 『우리말 큰사전』 (1991)

『우리말 큰사전』에는 차생활용어가 122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차 정리도구 용어는 생략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사전 중 가장 많은 차생활용어를 수록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많은 사전이다.

차를 마셔가며 하는 이야기란 뜻의 다화(茶話), 찻손님이라는 뜻의 다객(茶

客), 茶 관련 용어인 다제(茶劑), 차잎, 차향, 차도구와 관련된 용어인 차갈매, 찻물을 끓이는 솥이라는 뜻의 찻솥, 차를 짓는 솥이라는 뜻의 찻솥, 찻종과 같은 뜻인 찻종지, 다구를 닦는 행주란 뜻의 차행주, 찻세간이라는 뜻의 다제구(茶諸具)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수록되었으며, 처음으로 출현한 차생활용어가 11개에 이르고 있다.

#### 4)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5)

『금성판 국어대사전』에는 차생활용어 93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이 중 다른 사전에는 없는 용어인 다산정원(茶山庭園), 다산집(茶山集)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 5) 『표준국어대사전』 (2000)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차생활용어 130개가 수록되었으며, 이는 조사대상 사전 중 가장 많은 차생활용어가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차도구와 관련된 용어 중 차주전자, 찻솥, 차호(茶壺), 찻솥, 차행주, 찻봉지, 차그릇, 찻세간 등의 용어는 수록되지 않았다.

#### 6) 『민중대사전』 (2002)

『민중대사전』에는 차생활용어 95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사이시’과 관련된 용어인 ‘차물’이라는 용어는 수록되지 않았으며, 이는 개정된(1988년) 한글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람의 호와 관련되는 용어인 다각(茶角), 다산(茶山), 다신(茶神), 다헌(茶軒) 등의 용어는 모두 수록되어, 옛부터 내려온 역사성에 바탕을 둔 용어가 많이 수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도서류

### 1) 『현대차생활용어』 (1990)

『현대차생활용어』에는 차생활용어 80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차생활 용어의 양태 분류에 있어서 골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다관(茶罐)은 차우리개, 다사(茶事)는 찻일, 다마(茶磨)는 차맷돌 등으로 많은 용어가 순우리말로 표기되어 있는 의미 있는 용어집이라 할 수 있다.

### 2) 『다도학』 (1998)

『다도학』에는 차생활용어 35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이는 정의가 확실히 내려진 용어만 선정된 것이며. 문장 속에서 용어만 등장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 비해 茶문헌에 해당하는 용어가 많았으며, 차도구와 관련된 용어는 다른 문헌에 비해 많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도학은 '차학'를 공부하는 모든 후학들이 읽어야 할 기본 지침서로서 용어의 뜻을 풀이하기 보다는 많은 용어가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 3) 『한국茶文化』 (2002)

『한국茶文化』에는 차생활용어 85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양태 분류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용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장소 관련 용어와 차 풍속·제도에 관한 용어가 다른 도서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 4) 『금당다화』 (2004)

『금당다화』에는 차생활용어 56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다른 사전에 비해 장소 관련 용어와 茶 관련 용어가 많은 편이다. 변다(辨茶), 장다(藏茶), 조다(造茶) 등의 용어는 이 문헌에만 수록된 용어들이다.

#### 5) 『韓國茶藝』 (2005)

『韓國茶藝』에는 차생활용어 33개가 수록되었으며, 다른 다서에 비해 차생활용어가 적은 편이다. 茶물품 관련 용어 중 물과 관련된 용어, 차도구 관련 용어 중 차 만드는 도구 용어와 기타세간과 관련된 용어는 수록되지 않았다. 기법·양식과 관련된 용어 중 다석(茶席)에서의 언어와 관련된 용어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고래의 행다법을 소개하는 장이 부록으로 편성되어 있어 행다례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다.

#### 6)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 (2006)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는 차생활용어 58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기법·양식에 관련된 용어와, 차풍속·제도에 관한 용어가 다른 문헌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Ⅲ. 양태별 차생활 용어 분류

#### 1. 장소 관련 용어

음다 장소와 차산지에 해당하는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개이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용어는 다방(茶房), 다실(茶室), 다관(茶館), 다루(茶樓), 다원(茶園), 다점(茶店), 차방(茶房) 등이다.

사전류에는 있으나 다서류에 없는 용어는 다거(茶居), 다과점(茶菓店), 다방(茶房), 다사(茶肆), 다산정원(茶山庭園), 차실(茶室), 차원(茶園), 차전(茶田), 차점(茶店), 차집(茶-), 찻점(茶店), 찻집(茶-) 등의 용어가 있다.

다서류에는 있으나 사전류에는 없는 용어는 공사다소(貢寺茶所), 노다장(老茶莊), 다공리(茶貢里), 다도면(茶道面), 다령(茶嶺), 다리(茶里), 다시(茶市), 다연원(茶淵院), 다옥(茶屋), 다장(茶粧), 다헌(茶軒), 차밭(茶田), 차시(茶市), 찻골(茶골) 등이 있다.

장소 관련 용어는 사전류보다 다서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었다.

#### 2. 인물 관련 용어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와 사람의 호를 나타내는 용어들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용어는 17개이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다각(茶角), 다신(茶神), 다모(茶母), 차모(茶母) 등이다.

사전류에는 있으나 다서류에는 없는 용어는 다객(茶客), 다비(茶婢), 다산(茶山), 다색(茶色), 다헌(茶軒), 차색(茶色), 찻손님 등이 있다.

다서류에는 있으나 사전류에는 없는 용어는 다방내시(茶房內侍), 다옹(茶翁), 차벗(茶友), 찻손(茶賓), 찻손(茶客) 등이 있다.

<표 2> 장소 관련 용어

용어	문헌	새	국어	우리말	금성판	표준	민중	소	현대	다	한국	금	한국	우리가	소	총
		우리	대사전	큰사전	국어	대사전	대사전									
공사	眞寺	.	.	.	.	.	.	.	.	.	.	.	.	○	1	1
노	老	.	.	.	.	.	.	.	.	.	.	○	.	.	1	1
다	茶居	○	○	○	.	○	○	5	.	.	.	.	.	.	.	5
다	茶貢	.	.	.	.	.	.	.	.	.	.	○	.	.	1	1
다	茶菓	○	○	○	○	○	○	6	.	.	.	.	.	.	.	6
다	茶館	○	○	○	○	○	○	6	.	△	.	○	.	.	2	8
다	茶道	.	.	.	.	.	.	.	.	.	.	○	.	.	1	1
다	茶嶺	.	.	.	.	.	.	.	.	.	.	○	.	.	1	1
다	茶樓	○	○	○	○	○	○	6	○	.	.	.	.	.	1	7
다	茶里	.	.	.	.	.	.	.	.	.	.	○	.	.	1	1
다	茶房	○	○	○	○	○	○	6	.	○	○	.	△	○	4	10
다	茶肆	○	○	○	○	○	○	6	.	.	.	.	.	.	.	6
다	茶山	.	.	.	○	.	.	1	.	.	.	.	.	.	.	1
다	茶市	.	.	.	.	.	.	.	.	.	△	○	.	.	2	2
다	茶室	○	○	○	○	○	○	6	○	.	○	.	○	.	3	9
다	茶淵	.	.	.	.	.	.	.	.	△	○	.	△	.	3	3
다	茶屋	.	.	.	.	.	.	.	.	.	○	.	.	○	2	2
다	茶園	○	○	○	○	○	○	6	.	.	.	○	.	.	1	7
다	茶粧	.	.	.	.	.	.	.	.	.	.	○	.	.	1	1
다	茶店	○	○	○	○	.	○	5	.	.	○	.	.	○	2	7
다	茶軒	.	.	.	.	.	.	.	.	.	○	.	.	.	1	1
차	茶房	○	○	○	.	○	○	5	○	.	.	.	.	△	2	7
차	茶田	.	.	.	.	.	.	.	○	.	.	.	.	.	1	1
차	茶市	.	.	.	.	.	.	.	.	△	○	.	.	.	2	2
차	茶室	○	○	○	.	○	○	5	.	.	.	.	.	.	.	5
차	茶園	○	○	○	○	○	○	6	.	.	.	.	.	.	.	6
차	茶田	.	.	○	.	.	.	1	.	.	.	.	.	.	.	1
차	茶店	○	.	○	.	○	.	3	.	.	.	.	.	.	.	3
차	茶	.	.	.	.	○	.	1	.	.	.	.	.	.	.	1
차	茶谷	.	.	.	.	.	.	.	.	.	.	○	.	.	1	1
차	茶房	.	○	○	○	○	○	5	.	.	○	.	.	.	1	6
차	茶店	.	○	○	.	.	.	2	.	.	.	.	.	.	.	2
차	茶	○	○	○	○	○	○	6	.	.	.	.	.	.	.	6
합		14	15	17	12	15	14	87	4	4	9	10	3	5	35	122

<표 3> 인물 관련 용어

용어	문헌	새	국어대	우리말	금성관	표준	민중	소계	현대 차생활 용어	다도 학	한국 茶文化	금강 다화	한국 다예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	소계	총계
		우리 말 사전	사전	사전	국어 대사전	국어 대사전	대사전									
다각	茶角	○	○	○	○	○	○	6	○	·	○	○	·	·	3	9
다객	茶客	·	·	○	·	·	·	1	·	·	·	·	·	·	·	1
다모	茶母	○	○	○	○	·	○	5	·	·	·	○	·	○	2	7
다비	茶婢	·	·	·	·	○	·	1	·	·	·	·	·	·	·	1
다방 내시	茶房 内侍	·	·	·	·	·	·	·	·	·	·	○	·	·	1	1
다산	茶山	·	·	·	○	○	○	3	·	·	·	·	·	·	·	3
다색	茶色	·	·	·	·	○	·	1	·	·	·	·	·	·	·	1
다신	茶神	○	○	○	○	○	○	6	○	·	·	·	○	·	2	8
다옹	茶翁	·	·	·	·	·	·	·	·	·	·	○	·	·	1	1
다인	茶人	·	·	○	·	○	·	2	○	·	○	·	·	○	3	5
다헌	茶軒	·	·	·	○	○	○	3	·	·	·	·	·	·	·	3
차모	茶母	○	○	○	○	○	○	6	·	○	○	·	·	·	2	8
차벗	茶友	·	·	·	·	·	·	·	○	·	·	·	·	·	1	1
차색	茶色	·	·	·	·	○	·	1	·	·	·	·	·	·	·	1
차손	茶賓	·	·	·	·	·	·	·	○	·	·	·	·	·	1	1
차손	茶客	·	·	·	·	·	·	·	○	·	·	·	·	·	1	1
차 손님	茶-	·	·	○	·	·	·	1	·	·	·	·	·	·	·	1
<b>합</b>	<b>계</b>	<b>4</b>	<b>4</b>	<b>7</b>	<b>6</b>	<b>9</b>	<b>6</b>	<b>36</b>	<b>6</b>	<b>1</b>	<b>3</b>	<b>4</b>	<b>1</b>	<b>2</b>	<b>17</b>	<b>53</b>

### 3. 茶물품 관련 용어

차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차, 물, 차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茶 관련 용어

차에 관한 전반적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茶 관련 용어는 총 29개이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용어는 차(茶), 차나무(茶樹), 다탕(茶湯), 찻잎(茶-) 등이다.

사전류에는 있으나, 다서류에는 없는 용어는 다목(茶木), 다색(茶色), 다소(茶素), 다엽(茶葉), 다정(茶精), 다제(茶劑), 차잎(茶-), 차제(茶劑), 차풀(茶-), 차향(茶香), 찻감(茶-), 찻값(茶-) 등이 있다.

다서류에는 있으나 사전류에는 없는 용어는 다각(茶脚), 다고(茶膏), 다유(茶乳), 다창다기(茶槍茶旗), 변다(辨茶), 장다(藏茶), 조다(造茶), 차꽃(茶花), 채다(採茶) 등이 있다.

茶 관련 용어의 특징적인 점은 다서류보다 사전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비록 뜻을 알고 있는 용어이더라도 사전에 정확한 의미를 게재함으로써 사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물 관련 용어

차를 끓이기 위해 필요한 물과 관련된 도구로 구성하였으며, 총 6개이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용어는 다갈색(茶褐色), 차수(茶水), 찻물(茶-)이다.

사전류에는 뜻이 있으나 다서류에 뜻이 없는 용어는 다갈색(茶褐色), 차물(茶-), 차수(茶水), 찻물(茶-), 찻물이다. 다서류에는 있으나 사전류에는 없는 용어는 다천(茶泉)이다.

<표 4> 茶 관련 용어

문헌 용어	새 우리말 큰사전	국어 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금성판 국어 대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	민중 대사전	소 계	현대 차생활 용어	다도 학	한국 茶文化	금당 다화	한국 다예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	소 계	총 계	
다각	茶脚	·	·	·	·	·	·	·	·	·	○	·	·	1	1	
다고	茶膏	·	·	·	·	·	·	·	○	·	·	·	·	1	1	
다매	茶梅	○	○	○	·	·	○	4	·	·	○	·	·	1	5	
다목	茶木	○	○	○	·	·	·	3	·	·	·	·	·	·	3	
다색	茶色	○	○	○	○	○	○	6	·	·	·	·	·	·	6	
다소	茶素	○	○	○	○	○	○	6	·	·	·	·	·	·	6	
다연	茶煙	○	○	○	○	○	○	6	·	·	○	○	·	2	8	
다엽	茶葉	○	○	○	·	·	·	3	·	·	·	·	·	·	3	
다유	茶乳	·	·	·	·	·	·	·	·	○	·	·	△	2	2	
다적	茶積	○	○	○	○	○	○	6	·	·	·	○	·	1	7	
다정	茶精	○	○	○	○	○	○	6	·	·	·	·	·	·	6	
다제	茶劑	·	·	○	·	○	·	2	·	·	·	·	·	·	2	
다창	茶槍	·	·	·	·	·	·	·	·	·	○	·	·	1	1	
다기	茶旗	·	·	·	·	·	·	·	·	·	○	·	·	1	1	
다탕	茶湯	○	○	○	○	○	○	6	·	·	○	○	·	3	9	
변다	辨茶	·	·	·	·	·	·	·	·	·	○	·	·	1	1	
장다	藏茶	·	·	·	·	·	·	·	·	·	○	·	·	1	1	
적다	摘茶	○	○	○	○	○	○	6	·	·	·	○	·	1	7	
조다	造茶	·	·	·	·	·	·	·	·	·	○	·	○	2	2	
차	茶	○	○	○	○	○	○	6	○	△	○	·	○	5	11	
차꽃	茶花	·	·	·	·	·	·	·	○	·	·	·	△	2	2	
차나무	茶-	○	○	○	○	○	○	6	○	△	△	·	·	4	10	
차잎	茶-	·	·	○	·	○	·	2	·	·	·	·	·	·	2	
차제	茶劑	·	○	○	○	○	○	5	·	·	·	·	·	·	5	
차플	茶-	○	○	○	○	·	○	5	·	·	·	·	·	·	5	
차향	茶香	·	·	○	·	○	·	2	·	·	·	·	·	·	2	
차감	茶-	○	○	○	○	○	○	6	·	·	·	·	·	·	6	
차값	茶-	·	○	○	○	○	○	5	·	·	·	·	·	·	5	
차잎	茶-	○	○	○	○	○	○	6	○	·	△	·	·	3	9	
채다	採茶	·	·	·	·	·	·	·	·	·	○	○	·	2	2	
합계		15	17	20	14	16	15	97	4	3	6	11	2	7	33	130

물 관련 용어의 특징적인 점은 사전류에는 차물(茶-), 차수(茶水), 찻물(茶-) 등의 뜻이 정확히 수록되어 있지만 다서류에는 1회 이상 용어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차물(茶-), 차수(茶水), 찻물(茶-) 등의 용어가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용어<sup>21)</sup>에 속하는 용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5> 물 관련 용어

용어	문헌	새	국어	우리말	금성관	표준	민중	소	현대	다도	한국	금당	한국	우리가	소	총
		우리말	대사전	큰사전	국어	국어	대사전	대사전	계	차생활	학	문화	다화	다예	알아야	계
		큰사전	대사전	큰사전	대사전	대사전	대사전	계	용어					할		
다갈색	茶褐色	○	○	○	○	○	○	6	·	·	·	·	·	·	·	6
다천	茶泉	·	·	·	·	·	·	·	·	·	○	○	·	·	·	2
차물	茶-	·	·	·	·	○	·	1	·	·	·	·	·	·	·	1
차수	茶水	○	○	○	○	○	○	6	·	·	·	·	·	·	·	6
찻물	茶-	○	○	○	○	○	○	6	○	·	△	·	·	△	·	9
찻물	茶-	·	·	·	·	○	·	1	·	·	·	·	·	·	·	1
<b>합계</b>		<b>3</b>	<b>3</b>	<b>3</b>	<b>3</b>	<b>5</b>	<b>3</b>	<b>20</b>	<b>1</b>	<b>·</b>	<b>2</b>	<b>1</b>	<b>·</b>	<b>1</b>	<b>5</b>	<b>25</b>

### 3) 차음식 관련 용어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차음식과 관련된 용어는 총 14개이다.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용어는 다과(茶菓), 다식(茶食)이다. 사전류에는 있으나, 다서류에는 없는 용어는 다과(茶菓), 다담(茶啖), 다식과(茶食菓), 차담(茶啖), 차례탑(茶禮塔), 차반(茶飯), 차유(茶油), 차주(茶酒), 차즙(茶汁)이다. 다서류에는 있으나 사전류에는 없는 용어는 관례다식(官禮茶食), 다죽(茶粥), 차음식(茶飮食) 등이다. 차음식 관련 용어의 특징적인 점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과(茶菓), 다식(茶食) 등의 용어가 다서류에서 뜻은 없고 용어만 등장하고 있으며, 차담(茶啖), 차례탑(茶禮塔), 차반(茶飯), 차유(茶油) 등은 사전류에는 있으나 다서류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다서류에서의 차음식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서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21) 김상형외(1995). 『금성관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p.1543.  
 상용어(常用語): 일상 생활에서 늘 쓰이거나 쓰는 말



차 우리는 도구 용어는 다관(茶罐), 다시(茶匙), 찻숟가락(茶---)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병(茶瓶), 다선(茶筵), 다술(茶筴), 다술(茶戍), 차시(茶匙), 찻구기, 차우리개(茶罐) 등은 다서에만 있는 용어들이다.

차 내는 도구 용어는 다담상(茶啖床), 다정(茶亭), 다반(茶盤) 등의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서류보다 사전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었다. 이 중 다과상(茶菓床), 다상(茶床), 다식기(茶食器), 다포(茶布), 차탁자(茶托子), 차포(茶布), 찻잔받침(茶托), 찻쟁반(茶盤) 등은 사전류에는 없는 용어들이다.

차 마시는 도구 용어는 찻잔(茶盞), 다종(茶鐘)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구(茶甌), 다배(茶杯), 다완(茶碗), 다완(茶椀), 차구(茶甌), 차사발(茶沙鉢), 찻보시기(茶甫兒), 찻사발(茶沙鉢) 등은 다서에만 수록된 용어들이다.

차 정리 도구 용어는 차행주(茶--)를 제외한 모든 용어들이 다서류에만 수록되었으며, 이 중 차수건(茶巾)이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다건(茶巾), 다과보(茶菓褌), 다상보(茶床褌), 식다포(拭茶布), 차긋개, 차상보(茶床褌), 차수건(茶巾), 차행주, 찻상포(茶床褌) 등은 다서류에만 수록된 용어이며 이는 근래에 만들어진 용어들이기 때문에 아직 사전류에 등재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차 보관 도구 용어는 사전류보다 다서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었으며, 이 중 다호(茶壺)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기타세간은 다서류보다 사전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다구(茶具), 다기(茶器)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차도구 관련 용어는 사전류보다 다서류에 훨씬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근래에 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용어는 아직까지 적합한 한자어가 없어서 대부분 한글 위주의 뜻들이 많다. <표 7>에 수록된 용어들도 한자어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듯 차도구 관련 용어는 용어의 정비가 가장 필요한 분야중의 하나이다.

<표 7> 차도구 관련 용어

용어	문헌	새	우리	국	금	품	민	소계	현대	다	국	금	한	우	소계	총	
		우	리	어	성	어	중										화
		리	리	어	관	어	어		어	화	화	다	국	리			
		사	사	사	어	어	어										
		말	말	말	사	사	사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차만드는도구	다구	茶白	○	○	○	○	○	6	·	·	·	·	·	·	·	6	
	차갈매	茶--	·	○	·	·	○	2	·	·	·	·	·	·	·	2	
	다검	茶鈐	·	·	·	·	·	·	·	·	·	○	·	·	1	1	
	다구	茶筭	·	·	·	·	·	·	·	·	○	·	·	·	1	1	
	다라	茶羅	·	·	·	·	·	·	·	·	·	○	·	·	1	1	
	다롱	茶籠	·	·	·	·	·	·	·	·	·	○	·	·	1	1	
	다마	茶磨	·	·	·	·	·	·	·	·	○	○	·	·	2	2	
	다배	茶焙	·	·	·	·	·	·	·	·	·	○	·	·	1	1	
	차공대	筇	·	·	·	·	·	·	·	·	○	·	·	·	1	1	
	차멋돌	茶磨	·	·	·	·	·	·	·	○	△	△	·	·	3	3	
	찾시루	茶甌	·	·	·	·	·	·	·	○	·	·	·	·	1	1	
	찾질구	茶白	·	·	·	·	·	·	·	○	·	·	·	·	1	1	
차끓이는도구	다로	茶爐	○	○	○	○	○	6	·	·	○	○	·	○	3	9	
	다요	茶銚	·	·	·	·	·	·	·	·	○	·	·	·	1	1	
	다조	茶竈	·	·	·	·	·	·	·	·	○	△	△	·	3	3	
	차솔	茶-	·	·	·	·	·	·	·	△	·	·	·	○	2	2	
	차주전	茶酒煎	○	○	·	·	·	○	3	·	·	·	·	·	·	3	
	차	子	·	·	·	·	·	·	·	·	·	·	·	○	1	1	
	차화로	茶爐	·	·	·	·	·	·	·	·	·	·	·	·	·	1	1
	찾가마	茶--	·	○	·	·	○	2	·	·	·	·	·	·	·	2	
	차솔	茶-	·	○	·	·	·	1	·	·	·	·	·	·	·	1	
	차주전	茶酒煎	·	○	○	○	○	5	·	·	·	·	·	·	·	5	
차	子	·	·	·	·	·	·	·	·	·	·	·	·	·	·		
차우리는도구	다관	茶罐	○	○	○	○	○	6	·	·	○	·	○	○	3	9	
	다병	茶瓶	·	·	·	·	·	·	·	·	○	○	○	○	4	4	
	다선	茶筥	·	·	·	·	·	·	·	·	·	○	△	○	3	3	
	다솔	茶筥	·	·	·	·	·	·	·	·	○	·	·	·	1	1	
	다솔	茶戍	·	·	·	·	·	·	·	·	○	·	○	·	2	2	
	다시	茶匙	○	○	○	○	○	6	·	·	○	△	·	·	2	8	
	차관	茶罐	○	○	○	○	○	6	·	○	·	·	·	·	1	7	
	차사시	茶沙匙	○	○	○	○	○	6	·	·	·	·	·	·	·	6	
	차솔갈	茶--	·	·	·	·	○	1	·	·	·	·	·	·	·	1	
	차시	茶匙	·	·	·	·	·	·	·	·	·	·	·	○	1	1	
차우리	茶罐	·	·	·	·	·	·	·	○	·	·	·	·	1	1		
개																	

차 내 는 도 구	차주전 자	茶酒煎 子	○	○	·	·	·	○	3	·	·	·	·	·	·	·	3
	차칙	茶則	·	·	○	○	○	○	4	·	·	·	·	·	·	·	4
	차호	茶壺	·	○	·	·	·	·	1	·	·	·	·	·	·	·	1
	찾거르 개	茶---	·	○	·	·	○	·	2	·	·	·	·	·	·	·	2
	찾구기		·	·	·	·	·	·	·	○	·	·	·	·	·	·	1 1
	찾솔	茶-, 茶笊	·	○	·	·	·	·	1	○	○	·	·	·	·	·	2 3
	찾솔가 락	茶---	○	○	○	○	○	○	6	○		·	·	·	△	·	2 8
	찾솔갈	茶--	○	○	○	○	○	○	6	○	·	·	·	·	·	·	1 7
	찾솔	茶匙	·	·	·	·	○	·	1	○	○	·	·	·	·	·	2 3
	다과상	茶菓床	·	·	·	·	·	·	·	·	·	○	·	△	·	·	2 2
	다담상	茶啖床	○	○	○	○	○	○	6	·	△	·	○	·	·	·	2 8
	다반	茶盤	○	○	○	○		○	5	·	·	○	○	·	·	·	2 7
	다상	茶床	·	·	·	·	·	·	·	·	·	○	·	·	·	·	1 1
	다식기	茶食器	·	·	·	·	·	·	·	○	·	·	·	·	·	·	1 1
	다정	茶亭	○	○	○	○	○	○	6	○	·	○	·	·	·	·	2 8
	다정자	茶亭子	○	○	○	○	○	○	6	·	·	·	○	·	·	·	1 7
	다탁	茶托	○	○	○	○	○	○	6	·	·	·	·	·	○	·	1 7
	다탁	茶卓	○	○	○	○	○	○	6	·	·	○	·	·	·	·	1 7
	다포	茶布	·	·	·	·	·	·	·	○	·	○	△	·	○	·	4 4
	차담상	茶啖床	○	○	○	○	○	○	6	·	·	·	·	·	·	·	·
차반	茶盤	○	○	○	○	○	○	6	○	·	·	·	·	·	·	·	1 7
차반침	茶--	·	○	·	·	○	·	2	·	·	·	·	·	·	·	·	2
차상	茶床	·	○	·	·	○	·	2	○	·	·	·	△	·	·	2 4	
차탁	茶卓	·	○	·	·	○	○	3	·	·	·	·	·	·	·	·	3
차탁	茶托	○	○	○	○	○	○	6	·	○	·	·	·	·	·	·	1 7
차탁자	茶托子	·	·	·	·	·	·	·	·	○	·	·	·	·	·	·	1 1
차포	茶布	·	·	·	·	·	·	·	·	·	·	·	·	·	○	·	1 1
찾반	茶飯	·	○	·	○	·	·	2	·	·	·	·	·	·	·	·	2
찾상	茶床	·	○	·	·	○	·	2	·	△	·	·	△	○	·	3 5	
찾잔반 침	茶托	·	·	·	·	·	·	·	·	○	·	△	△	·	·	3 3	
찾잔반 침	茶盞--	·	○	·	·	·	·	1	·	○	·	·	△	·	·	2 3	
찾쟁반	茶盤	·	·	·	·	·	·	·	·	○	·	·	·	·	·	·	1 1
다구	茶甌	·	·	·	·	·	·	·	·	·	△	△	○	·	·	3 3	
다배	茶杯	·	·	·	·	·	·	·	·	·	○	·	·	·	·	·	1 1
다완	茶碗	·	·	·	·	·	·	·	·	·	△		○	○	·	3 3	



	찾장	茶櫪	·	○	○	○	○	○	5	○	·	△	·	·	·	2	7
기 타 세 간	다구	茶具	○	○	○	○	○	○	6	○	·	·	△	·	○	3	9
	다기	茶器	○	○	○	○	○	○	6	○	·	○	·	·	·	2	8
	다식판	茶食板	○	○	○	○	○	○	6	○	·	△	○	·	·	3	9
	다제구	茶諸具	·	○	·	·	○	·	2	·	·	·	·	·	·	·	2
	다판	茶板	·	·	·	·	·	·	·	·	·	○	·	·	·	1	1
	차구	茶具	○	○	○	○	○	○	6	·	·	·	·	·	·	·	6
	차그릇	茶--	○	·	○	·	·	·	2	·	·	·	·	·	·	·	2
	차기	茶器	○	○	○	○	○	○	6	·	·	·	·	·	·	·	6
	차도구	茶道具	○	○	○	·	○	·	4	○	·	·	·	·	△	2	6
	차살림	茶生活	·	·	·	·	·	·	·	○	·	·	·	·	·	1	1
	차제구	茶諸具	○	○	○	○	○	○	6	○	·	·	·	·	·	1	7
	차판	茶板	·	·	·	·	·	·	·	○	·	·	·	·	·	1	1
	차그릇	茶--	·	·	·	·	○	·	1	·	·	○	·	·	·	1	2
차세간	茶--	·	○	·	·	·	·	1	·	·	·	·	·	·	·	1	
합 계			32	53	35	32	52	38	242	35	13	33	23	18	23	145	387

## 5. 기법 · 양식 관련 용어

茶자리에서의 언어와 행동과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법·양식 관련 용어는 언어 관련 용어 6개와 행동 관련 용어 8개로 나누어진다.

사전류에는 있으나 다서류에는 없는 용어는 다반상담(茶飯常談), 차시(茶詩), 다공(茶供)이다.

다서류에는 있으나 사전류에는 없는 용어는 다시(茶詩), 차이야기(茶話), 차마심(喫茶), 투다(投茶), 품다(品茶), 행다(行茶)이다.

<표 8> 기법·양식 관련 용어

용어	문헌		새우리 말 사전	국어대 사전	우리말 큰사전	금성관 국어대 사전	표준국 어대사 전	민중대 사전	소 계	현대차 생활용 어	다도 학	한국 茶文化	금당 다화	한국 다예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	소 계	총 계
	용어	용어															
언어	다담	茶談	·	·	○	·	○	·	2	○	·	○	·	·	·	2	4
	다시	茶詩	·	·	·	·	·	·	·	○	·	·	·	·	△	2	2
	다반 상담	茶飯 常談	·	·	·	·	○	·	1	·	·	·	·	·	·	·	1
	다화	茶話	○	○	○	○	○	○	6	·	·	○	·	·	·	1	7
	차시	茶詩	·	·	○	·	·	·	1	·	·	·	·	·	·	·	1
	차이 이야기	茶話	·	·	·	·	·	·	·	○	·	·	·	·	·	·	1
행동	다공	茶供	○	○	○	·	○	○	5	·	·	·	·	·	·	·	5
	전다	煎茶	○	○	○	○	○	○	6	·	○	△	·	·	·	2	8
	점다	點茶	○	○	○	○	○	○	6	·	○	○	○	·	△	4	10
	차 마심	喫茶	·	·	·	·	·	·	·	○	·	·	·	·	·	1	1
	투다	投茶	·	·	·	·	·	·	·	·	·	·	○	○	○	3	3
	팽다	烹茶	○	○	○	○	○	○	6	·	·	○	·	·	○	2	8
	품다	品茶	·	·	·	·	·	·	·	·	·	·	○	·	·	1	1
	행다	行茶	·	·	·	·	·	·	·	·	·	○	·	·	○	2	2
<b>합 계</b>			<b>5</b>	<b>5</b>	<b>7</b>	<b>4</b>	<b>7</b>	<b>5</b>	<b>33</b>	<b>4</b>	<b>2</b>	<b>6</b>	<b>3</b>	<b>1</b>	<b>5</b>	<b>21</b>	<b>54</b>

## 6. 茶문헌 관련 용어

다서(茶書) 또는 다화(茶畫)와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茶문헌 관련 용어는 총 10개이며,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용어는 다경(茶經)이다. 10개의 용어 중 사전류에 수록된 용어는 다경(茶經), 다산집(茶山集)만이 있으며, 나머지 용어는 모두 다서류에만 수록된 용어이다. 다서류에 수록된 용어 중 뜻은 없고 나타만 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다서를 지은 저자들이 책과 관련된 용어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 여긴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9> 茶문헌 관련 용어

용어	문헌	새우리 말 사전	국어대 사전	우리말 큰사전	금성판 국어대 사전	표준국 어대사 전	민중대 사전	소 계	현대차 생활 용어	다도 학	한국 茶文化	금당 다화	한국 다예	우리가 알아야 할 리차	소 계	총 계
다경	茶經	·	○	·	○	○	·	3	○	△	△	·	○	△	5	8
다산집	茶山集	·	·	·	○	·	·	1	·	·	·	·	·	·	·	1
다록	茶錄	·	·	·	·	·	·	·	·	△	△	○	·	△	4	4
다보	茶譜	·	·	·	·	·	·	·	·	△	△	○	·	·	3	3
다부	茶賦	·	·	·	·	·	·	·	○	·	△	·	△	△	4	4
다서	茶書	·	·	·	·	·	·	·	○	·	·	·	·	·	1	1
다소	茶疎	·	·	·	·	·	·	·	·	△	·	○	·	·	2	2
다신전	茶神傳	·	·	·	·	·	·	·	○	△	△	·	△	·	4	4
차그림	茶畵	·	·	·	·	·	·	·	○	·	·	·	·	·	1	1
차학	茶學	·	·	·	·	·	·	·	○	·	·	·	·	·	1	1
합 계		·	1	·	2	1	·	4	6	5	5	3	3	3	25	29

## 7. 행사·관습 관련 용어

차에 관한 의식과 차모임 및 보급활동, 차풍속 및 제도에 관련된 용어가 포함된다.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행사·관습과 관련된 용어는 모두 42개이다. 그 중 茶의식과 관련된 용어 13개, 차모임·보급과 관련된 용어 15개, 차풍속·제도와 관련된 용어 14개로 나누어진다. 사전류에는 있으나 다서류에는 없는 용어는 차범절(茶凡節), 다반(茶飯), 다업(茶業), 다화회(茶話會), 차회(茶會), 차과(茶課), 차조례(茶條例)가 있다.

다서류에는 있으나 사전류에는 없는 용어는 다법(茶法), 다선다신(茶仙茶神), 다선일미(茶禪一味), 다예(茶藝), 다의(茶儀), 다풍(茶風), 행다례(行茶禮), 다담회(茶談會), 다석(茶席), 차잔치(茶宴), 차일(茶事), 차자리(茶席), 다각(茶榷), 다군사(茶軍士), 다마무역(茶馬貿易), 다세(茶稅), 다소(茶所), 다신계(茶信契), 다원(茶院), 봉차(封茶), 차겨루기(茗戰), 투차(鬪茶) 등이 있다.

행사·관습 용어는 사전류보다 다서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었다.

<표 10> 행사·관습 관련 용어

용어	문헌		새 우리말 큰사전	국어 대사전	우리 말 큰사 전	금성관 국어 대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	민중 대사전	소 계	현대 차생활 용어	다도 학	한국 茶文化	금당 다화	한국 다예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	소 계	총 계	
	용어	문헌																
차의식	다도	茶道	○	○	○	○	○	○	6	○	○	○	·	○	·	4	10	
	다례	茶禮	○	○	○	○	○	○	6	○	○	○	△	○	△	6	12	
	다법	茶法	·	·	·	·	·	·	·	·	·	·	·	·	○	1	1	
	다선 다신	茶仙 茶神	·	·	·	·	·	·	·	·	·	·	○	·	·	1	1	
	다선 일미	茶禪 一味	·	·	·	·	·	·	·	·	·	○	○	·	·	2	2	
	다예	茶藝	·	·	·	·	·	·	·	○	·	·	·	·	·	1	1	
	다의	茶儀	·	·	·	·	·	·	·	○	·	·	·	△	·	2	2	
	다풍	茶風	·	·	·	·	·	·	·	○	·	·	·	·	·	1	1	
	차도	茶道	○	·	○	·	○	·	3	·	·	·	·	·	○	1	4	
	차례	茶禮	○	○	○	○	○	○	6	·	△	○	○	·	○	4	10	
	차범 절	茶凡 節	·	·	○	·	·	·	1	·	·	·	·	·	·	·	·	1
	차사	茶祀	○	○	○	○	○	○	6	·	·	·	·	·	○	1	7	
	행다 례	行茶 禮	·	·	·	·	·	·	·	○	·	·	·	△	·	2	2	
차모임· 보급	다과 회	茶菓 會	○	○	○	○	○	○	6	·	·	·	○	·	·	1	7	
	다담 회	茶談 會	·	·	·	·	·	·	·	○	·	·	·	·	·	1	1	
	다반	茶飯	○	○	○	○	○	○	6	·	·	·	·	·	·	·	6	
	다반 사	茶飯 事	○	○	○	○	○	○	6	○	·	△	·	·	·	2	8	
	다석	茶席	·	·	·	·	·	·	·	○	·	△	·	△	·	3	3	
	다업	茶業	○	○	·	·	·	·	2	·	·	·	·	·	·	·	2	
	다연	茶宴	○	○	○	·	○	○	5	·	·	△	·	·	·	1	6	
	다화 회	茶話 會	○	○	○	·	○	·	4	·	·	·	·	·	·	·	4	
	다회	茶會	·	·	·	·	○	·	1	○	·	△	·	·	·	2	3	
	차잔 치	茶宴	·	·	·	·	·	·	·	○	·	·	·	·	·	1	1	
	차회	茶會	·	·	·	·	○	·	1	·	·	·	·	·	·	·	1	
	차일	茶事	·	·	·	·	·	·	·	○	·	△	·	·	·	2	2	
	차자 리	茶席	·	·	·	·	·	·	·	○	·	△	·	·	·	2	2	

	항다반	恒茶飯	○	·	○	○	○	○	5	·	·	·	○	·	·	1	6
	항다반사	恒茶飯事	○	·	○	○	○	○	5	·	·	·	○	·	·	1	6
차 풍 속 · 제 도	다각	茶權	·	·	·	·	·	·	·	·	·	·	○	·	·	1	1
	다과	茶課	○	○	○	○	○	○	6	·	·	·	○	·	·	1	7
	다군사	茶軍士	·	·	·	·	·	·	·			○			○	2	2
	다마무역	茶馬貿易	·	·	·	·	·	·	·	·	△	○	·	·	△	3	3
	다세	茶稅	·	·	·	·	·	·	·	·	·	△	○	·	·	2	2
	다소	茶所	·	·	·	·	·	·	·	·	·	○	·	·	○	2	2
	다시	茶時	○	○	○	○	○	○	6	·	·	○	○	△	○	4	10
	다신계	茶信契	·	·	·	·	·	·	·	·	·	○	·	·	○	2	2
	다원	茶院	·	·	·	·	·	·	·	○	△	○	·	·	○	4	4
	봉차	封茶	·	·	·	·	·	·	·	·	·	·	○	·	○	2	2
	차겨루기	茗戰	·	·	·	·	·	·	·	○	○	·	·	·	·	2	2
	차과	茶課	○	·	·	○	○	○	4	·	·	·	·	·	·	·	4
	차조례	茶條例	·	○	·	○	○	·	3	·	·	·	·	·	·	·	3
투차	鬪茶	·	·	·	·	·	·	·	·	·	○	○	·	○	3	3	
<b>합 계</b>			<b>16</b>	<b>13</b>	<b>15</b>	<b>13</b>	<b>18</b>	<b>13</b>	<b>88</b>	<b>15</b>	<b>6</b>	<b>18</b>	<b>13</b>	<b>6</b>	<b>13</b>	<b>71</b>	<b>159</b>

## IV. 문헌을 통해 본 차생활용어 고찰

양태별 차생활용어는 크게 7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차를 우려 마시기 위한 음다장소와 차산지와 관련된 장소 관련 용어, 茶자리의 주인과 손님 또는 사람의 호와 관련된 인물 관련 용어, 차를 우려 마시기 위해 필요한 차, 물, 차음식 등과 관련된 茶물품 관련 용어, 차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관련된 차도구 관련 용어, 茶자리에서 차를 우려기 위해 필요한 행위와 사람들 간의 대화와 관련된 기법·양식 관련 용어, 차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양을 넓히기 위한 茶문헌 관련 용어, 茶의식, 차모임 및 보급, 차풍속 및 제도와 관련된 행사·관습 관련 용어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 1. 장소 관련 용어

장소 관련 용어는 차를 마시기 위한 음다장소와 차산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1>에 제시하였다. 각 용어의 뜻이 문헌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정의를 모두 실었다.

#### 1) 貢寺茶所(공사다소)

12종의 문헌 중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만 수록된 용어로 ‘절에 차를 만들어 바치던 마을’로 정의되어 있다. ‘茶所’는 포로 등의 천민집단이 거주하는 특수행정구역<sup>22)</sup>으로 나라에 차를 바치는 곳이다. 茶所란 말 외에 茶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고려 광종과 성종 연간에 만들어졌으리라 추정되며 사원에 차를 만들어 바치던 마을을 일컫는다.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22) 정영선(2002). 『한국茶文化』. 서울: 도서출판 너럭바위. p.113.

이 제도는 당시 사찰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으며, 또 불자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 중 유명한 것은 통도사(通度寺)의 다촌이다.<sup>23)</sup> 따라서 공사다소는 '절에 차를 만들어 바치던 마을'로써 다촌이라고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老茶莊(노다장)

『금당다화』에만 있는 용어로 '차를 팔던 본사(本社) 또는 오래된 상점'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sup>24)</sup>

## 3) 茶居(다거)

6종의 문헌에 게재되어 있으며, 뜻은 '다관(茶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국의 음다공간을 차 마시는 방과 차 마시는 집으로 나누었을 때 茶居는 '차 마시는 집'에 해당한다.

## 4) 茶貢里(다공리)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연초면(延草面)에 있는 지명으로 옛날에 차를 진상(進上)하던 곳'이다. 거제 사투리로 '땃공리'라고 한다.<sup>25)</sup>

## 5) 茶菓店(다과점)

사전 6종에 게재되어 있는 용어이며 '다과를 파는 상점' 또는 '차나 과자 따위를 파는 가게'로 정의되어 있다. 다과(茶菓)와 '차와 과자'는 같은 의미이므로 茶菓店이란 '차나 과자 따위를 파는 가게'로 정의할 수 있다.

## 6) 茶館(다관)

茶館의 의미가 게재된 7종 중 6종의 문헌에는 '중국 사람들의 사교장으로

---

23) 유건집(2007). 『韓國茶文化史』. 서울: 도서출판 이룬아침. p.177.

24) 최규용(2004). 앞의 책. p.302.

25) 최규용(2004). 위의 책. p.302.

서민들이 모여 수박씨를 까먹고 점심을 드는 곳이며, 특히 상인들 사이에는 상업에 관한 이야기와 정보 교환처로 이용 됨'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나머지 1종에는 '고려 때 외국 사신이 출입하던 관영다방'이라고 되어 있다.<sup>26)</sup> 후자는 역사적 의미로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뜻이다. 『大漢和辭典』에는 茶社, 茶店, 茶屋, 茶樓와 같다고 되어 있다.<sup>27)</sup>

일반적으로 茶館이란 용어는 중국에서 쓰이는 용어이며 현대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말로 茶房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 7) 茶道面(다도면)

'복합지명으로 전라남도 나주군의 한 지명이며, 자생차가 자라는 차산지를 일컫는 용어'이다.<sup>28)</sup> 예부터 토산차의 공납처이다.

### 8) 茶嶺(다령)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성남면(城南面) 수양리(秀陽里)에 있다. 찻등 또는 찻굴이라고 정의<sup>29)</sup>되어 있으며, 차산지를 일컫는 용어이다.

### 9) 茶樓(다루)

의미가 기재된 문헌 7종 중, 6종에는 '茶館'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1종에는 '차 마시는 다락'으로 정의되어 있다.

樓는 『사륜정기』의 정의에 의하면 '집 위에 집을 지은 것'으로 기둥위에 세워진 높은 다락집을 말한다. 樓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孟子(岑樓)와, 백제 武王 37년(636) 8월 '신하들과 望海樓에서 잔치를 치렀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sup>30)</sup>

26) 최규용(2004). 『금당다화』. 서울: 도서출판 이큰아침. p.301.

27) 諸槁轍次(1928). 『大漢和事典 제18권』. 일본: 大修館書店. p.9981.

28) 최규용(2004). 위의 책. p.300.

29) 최규용(2004). 위의 책. p.302.

30) 陸仙子(2002). 『韓國 飲茶 空間의 歷史的 考察』.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p.9.

樓의 형식이란 '일반적으로 기둥이 층 받침이 되어 마루가 높이 된 다락집'을 말하고, 그 기능으로는 휴식, 연회 등의 기능과 감시, 조망의 기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sup>31)</sup>

한국의 음다공간을 '차 마시는 방'과 '차 마시는 집'으로 구별해 볼 때, 茶樓는 '차를 마시는 多層亭子'로 볼 수 있으며, '차를 마시는 다락집'으로 정의할 수 있다.

## 10) 茶里(다리)

『금당다화』에만 있는 용어로 '차 생산지'라고 정의되어 있다.<sup>32)</sup> 차를 생산 공급하는 마을로 생각된다.

## 11) 茶房(다방·차방)

茶房의 의미는 사전류와 다서류에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전류에는 역사적 의미의 다방과 현대적 의미의 다방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역사적인 의미로는 '조선 때에 대궐 안에서 약을 조제하여 바치던 부서. 뒤에는 약방이라고 일컬음'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적 의미로는 '객석을 갖추고, 다류(茶類)를 조리 판매하거나 청량음료·우유 등 주류 이외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영업소. 다실(茶室), 차방(茶房), 찻집, 커피숍, 티룸' 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고 차(茶)나 음료 따위를 판매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다서에서 다방의 의미는 '조정외 다례를 거행하고 왕이 행행할 때 수반되는 다례를 봉행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다방이 처음 설치된 것은 확실치 않으나 현재의 기록으로는 고려 문종 때 이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문종 원년(1047) 12월 경술에 이부상서가 상주하기를 "예부터 제도에 모든 관료는 늙어서 나이 69세에 이르면 상서를 올리고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지금 다방의

31) 정영선(2002). 앞의 책. p.316.

32) 최규용(2004). 앞의 책. p.302.

태의소감 김정악은 나이가 차서 마땅히 물러나야 하는데도 그냥 있으니, 이 제도를 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징악은 명의니 그 직에 있으면서 가까이서 임금을 모시도록 하라"고 하여 몇 년 더 그 직에 봉사했다.

그런데 성종 원년(982) 6월에 최승로(崔承老)가 올린 상소에는 왕이 친히 맏돌에 차를 가는 일이 광종(光宗: 949-975)때 부터 있었다고 했으니 임금이 가납하여 그때부터 신하들이 만들어 올리도록 했다. 그렇다면 이즈음에 전담하는 기구와 관원을 두었을 것으로 추리된다.<sup>33)</sup>

『大漢和事典』에서의 茶房은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첫째, 차를 우리는 방, 둘째, 관부 내의 차를 끓이는 곳 셋째, 깃다점으로 구분하고 있다.<sup>34)</sup>

문헌 고찰 결과 茶房의 의미는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사적 의미로는 '조정외의 다례를 거행하고 왕이 행행할 때 수반되는 다례를 봉행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대적 의미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고 차(茶)나 음료 따위를 판매하는 곳. 다실(茶室). 차방(茶房). 찻집. 커피숍. 티룸'으로 정의할 수 있다.

## 12) 茶肆(다사)

사전 6종에 게재되었으며 '다관(茶館)'으로 정의되어 있다.

茶肆란 용어는 세종16년(1434)에 성균생원(成均生員) 방운(方運)등이 당시 승려들의 타락상을 상소한 글에 「차나 술을 파는 집[茶酒之肆]」<sup>35)</sup>으로 등장하며, 『大漢和辭典』에는 차가게(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점포), 다점, 다실로 정의하고 있다.<sup>36)</sup> 이 용어는 『聞見前錄』와 『夢梁錄』에 등

33) 유건집(2007). 앞의 책. pp.159-161.

34)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4.

35) 정영선(2002). 앞의 책. p.180.

36) 諸槁轍次(1928). 위의 책. p.9982. [聞見前錄]范魯公一日坐封丘巷茶肆。[夢梁錄、茶肆]汴京熟食店、張挂名畫所以勾引觀者、畱連食客、今杭城茶肆亦如之、插四時花、挂名人畫、裝點店面、四時賣奇茶異湯。

장하는 용어이다. 고찰 결과 '차가게'의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음다공간을 '차 마시는 방' 과 '차 마시는 집' 으로 분류해 볼 때 茶肆는 독립된 집체에 해당하므로 '차를 팔거나 마시는 집'으로 볼 수 있다.

### 13) 茶山庭園(다산정원)

12종의 문헌에서 『금성관 국어대사전』에만 게재되어 있는 용어로 뜻은 '조선 말기 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사정원(私庭園). 방지(方地)·정석(丁石)·정자(亭子)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표본임. 전남 강진에 있음'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사전에 정의된 '다산정원'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다산초당(茶山草堂)'과 같은 용어라 생각된다. 육선자는 "한국 음다공간의 역사적 고찰"에서 다산초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산초당은 숲속에 있는 정자처럼 작은 초당이었으며, 초당의 池亭앞에는 茶竈와 샘이 있어 언제나 차를 쉽게 끓여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현재의 다산초당은 초가가 아닌 기와집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는 편의위주의 행정 탓으로 생각되며 다시 초당으로 고쳐져야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정석이 있으며, 연못, 동암, 서암과 천일각이 복원되었다.'<sup>37)</sup>

위 논문의 내용으로 보아 다산정원과 다산초당이 같은 의미임을 짐작케 한다.

### 14) 茶市(다시·차시)

문헌에서 다시는 '차를 사고파는 시장'이라고 되어있고, 차시는 '공납에 충당하기 위해 무명이나 쌀로 차를 바꾸었듯이 차를 파는 시장'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茶市는 대제학을 지낸 남유용(南有容, 1698~1773)의 「烟茶」<sup>38)</sup>라는 시와, 「차약장사 처녀」라는 시에서 나오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茶市는 '차를 팔고

37) 陸仙子(2002). 『韓國 飲茶 空間의 歷史的 考察』.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p.41.

38) 정영선(2002). 『한국茶文化』. 서울: 도서출판 너럭바위. p.179.

始爲無事飲 遂作大 生理 可笑行焉人 握粟走茶市

사는 시장'을 의미한다. 『大漢和辭典』에는 '차를 무역하는 시장'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용어는 『宋史』와 「陸游의 시」와 「高啓의 시」에 등장하고 있다.<sup>39)</sup>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의미이며 단 '다'와 '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 15) 茶室(다실·차실)

문헌조사 결과 다실로 표기한 문헌 8종 차실로 표기한 문헌 5종이 있다. 사전류에는 다실과 차실의 뜻이 각각 정의되어 있지만 다서류에는 다실로만 정의되어 있다. 다실은 다방, 찻집, 차세간을 갖추어 놓고 차를 마시는 거실, 차 마시는 방 등으로 풀이되어 있으며, 차실은 다방, 찻집으로 표기되어 있다.

'室'이란 '구들이 놓이지 않은 실내 공간, 또는 서재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표적인 예로 허균은 <陋室名>이란 시에서, 자신이 차를 끓여 마시는 서재를 '室'이라고 밝혔으며 유방선도 책을 보며 차 마시는 방을 '陋室'이라고 표현했다.<sup>40)</sup> 『大漢和事典』에는 '다도(茶事)를 행하는 방'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용어는 南浦文集에 등장하는 용어이다.<sup>41)</sup>

茶室이라는 용어는 현재 다실·차실이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둘은 같은 뜻이라 생각된다. '茶'의 본음은 '차'이며 관음이 '다'인 데서 두루 쓰인 탓이다. 茶室에 대한 정의는 '본체에 딸렸거나 혹은 다옥에 있는 음다공간으로서의 방 또는 작은 실내공간'을 일컬음을 알 수 있으며<sup>42)</sup> 또한 한국의 음다공간을 '차를 마시는 방'과 '차를 마시는 집'으로 나누었을 때 茶室은 전자임을 알 수 있다.

39)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2.

[宋史、趙開傳]置茶市、交易者必由市。[陸游、蘭亭道上詩]茶市粉粉趨雨前  
[高啓、過建平縣詩]茶市逢山客、楓祠祭石郎。

40) 陸仙子(2002). 앞의 책. p.7.

41) 諸槁轍次(1928). 위의 책. p.9982.

[南浦文集、上]此來引余於茶室、卽應命赴之、我觀茶室之勝狀。

42) 陸仙子(2002). 위의 책. p.23.

## 16) 茶淵院(다연원)

다연원은 12종의 문헌 중 『한국茶文化』에만 게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확인된 다옥(茶屋)'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 해 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968년 경주의 창림사 터에서 「昌林寺」라고 쓰인 조각과 함께 「茶淵院」이라 쓰여 있는 기와조각이 출토되었다. '院'이란 고려와 조선의 경우 임금이나 귀족, 관원이 먼 길을 가다가 외딴 곳에서 쉬는 국영여관이었고, 더러는 승려가 거처하기도 했는데, 신라의 원도 화랑과 승려가 머물렀다. 신라의 茶淵院은 淵자로 보아 연못이 있는 곳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출토된 기와조각 하나로 茶淵院의 자세한 모습을 상상해 보기는 어렵지만 茶淵院은 우리나라 최초의 확인된 다옥이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 17) 茶屋(다옥)

茶屋은 '신위가 자신의 오두막집을 「다옥」이라 부르는데서 연유한 말로서 '차마시는 집'이라는 의미와 '벗집, 떠 역세로 지붕을 이은 10평 내외의 소박한 초당(草堂)으로 누실(陋室)'이라는 의미가 있다.

'屋'은 사전에 집 옥(주거, 건물), 지붕 옥, 덮개 옥으로 방을 포함한 독립적인 집을 일컫는다. 고려시대 다인 이규보의 <신임 초옥 시에 운을 따서 지은 5수(又次新債草屋詩韻5首)>에서 농촌에 은둔하는 선비의 삶을 노래하는 내용이나 또는 이제현이 <송광화상이 햇차를 보내준 은혜에 대해 붓 가는 대로 적어 방장실에 부침(松廣和尚奇惠新茗)>이란 시에서 마당을 비롯한 주변 환경과 더불어 '老屋'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방과 차를 끓일 수 있는 곳, 뜰(마당, 정원), 샘들이 있는 독립된 집채를 의미하기도 한다.<sup>44)</sup>

또한 조선말엽의 신위는 <오난설에게 주어서 사례함(寄謝吳蘭雪)>이란 시에서 남산에 자리한 자신의 집 주변을 묘사하면서 "손이 오면 다옥에는 한줄기

43) 정영선(2002). 앞의 책. p.83.

44) 陸仙子(2002). 앞의 책. p.6.

연기 피어나고 퇴근하면 뜰에선 두 마리 학이 마중하네(客來茶屋孤烟起 公退  
怠庭二鶴迎)<sup>45)</sup>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자신의 집을 '茶屋'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자신의 집이 차를 목적으로 지어졌거나, 차를 가장 중시했음을 간접적으  
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茶屋은 차를 끓이는 곳, 차를 마시는 곳, 뜰(마당),  
샘 등을 갖춘 독립된 가옥으로 차가 중시되는 집이라는 뜻이다.<sup>46)</sup>

『大漢和辭典』에는 茶屋의 뜻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차를 파는  
가게, 엽차집, 둘째 차방, 차집, 셋째 음식점, 요리점, 넷째 다실이라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茶屋은 한국의 음다 공간을 '차를 마시는 방'과 '차를 마시는 집'으로 나누  
어 보았을 때 '차를 마시는 집'에 해당하며, 신위가 자신의 오두막집을 '茶屋'  
이라고 부르면서 연유한 말로써 대개 '벗짚이나 띠, 억새 등으로 이은 작고 소  
박한 草堂<sup>47)</sup>을 말함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다옥으로는 일지암<sup>48)</sup>(一枝庵), 선  
교장<sup>49)</sup> 등이 있다.

## 18) 茶園(다원)

茶園은 '차를 재배하는 밭 또는 차밭'으로 정의되어 있다. 원(園: 동산)은 식  
물(植物)위주의 자연적인 공간특징을 나타내는 말<sup>50)</sup>로써, 일반 곡식이 아닌 특  
수작물을 재배하는 밭을 말한다. 이 뜻에 의거하여 '차를 재배하는 밭'으로 정  
의할 수 있다.

45) 신위저, 권경렬 역(1998). 『다옥에 손님 오니 연기가 피어나네』. 서울: 도서출판 너럭바위.  
p.15.

46) 陸仙子(2002). 앞의 책. p.7.

47) 陸仙子(2002). 위의 책. p.31.

48) 19세기 중엽 草衣건립, 1980, 5, 5 한국차인회(현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에서 중건, 해남  
두륜산 대흥사 동쪽 500m 현존.

49) 강릉 선교장의 蓮池茶室.

50) 安哲福(1989). "누각 및 정자양식을 통한 한국 전통정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예학과 박사학위논문. p.1.

## 19) 茶粧(다장)

‘차 제조장’이라고 되어 있으며, 12종의 문헌 중 『금당다화』에만 게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茶粧은 茶間屋, 茶行과 같은 용어라 할 수 있다.<sup>51)</sup>

## 20) 茶店(다점·차점)

다점은 그 의미가 ‘다방’으로 쓰이는 문헌 3종, ‘차집’으로 쓰이는 문헌 1종, ‘다방·차집’으로 쓰이는 문헌 1종이 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이 돈이나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마른차를 사거나 차를 사 마시는 집’의 의미 1종, ‘차를 위한 전문적인 상점이 아니었고 일반 대중이 돈이나 베를 주고 차를 사 먹을 수 있는 곳’이란 의미 1종이 있다.

차점은 『새 우리말 큰사전』에는 ‘다방’의 의미로 쓰였고, 『우리말 큰사전』에는 ‘차점’의 의미로 쓰였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방의 북한어’라고 쓰였다. 다(관음)점과 차(본음)점은 ‘다’와 ‘차’로 시작되는 차이만 있을 뿐 한 의미다. 또한 『大漢和辭典』에서 茶店의 의미는 ‘차를 파는 가게’라고 되어 있다. 여러 문헌을 고찰한 결과 茶店은 ‘고려시대 일반 백성들이 돈이나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덩이차를 사거나 차 마시는 집’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茶店안에 루가 있었고, 그 곳에서 차도 마시고 낮잠도 잘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2)</sup> ‘차를 파는 가게’라는 뜻으로는 『齋藤拙堂』이라는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다.<sup>53)</sup>

## 21) 茶軒(다헌)

12종의 문헌에서 『한국茶文化』에만 나오는 용어로 ‘고려시대에 차를 마시는 집’으로 정의되어 있다. ‘軒’은 독립된 집에 붙여진 이름이며 안축<sup>54)</sup>의 죽장

51)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1.

52) 陸仙子(2002). 앞의 책. p.19.

53) 諸槁轍次(1928). 위의 책. p.9984. [齋藤拙堂、遊箕面山遂入京記]投宿門前茶店。

54) 안축(安軸: 1287-1348)

고려 말의 문신으로 호를 근재(謹齋)라 함. 과거에 급제하여 사헌규종(司憲糾正)을 지내고, 원나라 과거에도 급제하여 개주판관(蓋州判官)이 되었으나 귀국하여 우사

고사조에 '茶軒'<sup>55)</sup>이 등장하며, 「陸游의 시」에도 나오는 용어이다.<sup>56)</sup> 『大漢和辭典』에는 다실 또는 다점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현대에 있어서는 다실의 의미보다는 '차를 마시는 독립된 집'을 의미 한다고 생각된다.

## 22) 茶田(차밭·차전)

차밭과 차전의 한자어는 '茶田'으로 표기되어 있다. 의미는 '차나무를 가꾸는 밭, 다원, 차나무가 많은 곳, 차밭'으로 되어 있다. '田'의 자해를 사전<sup>57)</sup>에서 찾아보면, '곡식을 심는 경지, 들'로 표기되어 있다. 차는 '곡식'의 의미보다는 '특수작물'에 해당하므로 차밭의 의미로는 '茶田'을 사용하기 보다는 '茶園'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23) 차집

유일하게 『표준국어 대사전』에만 수록된 용어이며, '차집의 북한어'라고 풀이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의 언어를 다룬 『조선말 대사전』에는 '차집'의 의미를 '차물 같은 것을 파는 집, 다방·차점·다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8)</sup> 따라서 차집과 차점은 같은 용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에는 '사이시'를 쓰지 않는 차집이 쓰이고, 우리나라에는 '사이시'를 쓰는 차집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의대부(右司議大夫), 감찰대부(監察大夫)를 지내고 춘추관사(春秋官事) 흥녕군(興寧君)에 봉해졌다. 소수서원(紹修書院)에 제향되었고, 경기체가인 「관동별곡」, 「죽계별곡」을 짓고 「근재집」을 남김

55) 이일희(2004). 『생태적 관점에서 본 차문화 공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134. 禪榻茶軒深不見.

56)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1. [陸游、湖村詩]渴鹿出林窺藥井、馴鷗掠水傍茶軒.

57) 양성모(1998). 『漢韓大辭典』. 서울: 두산동아. p.1162.

58)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2002). 『조선말 대사전』.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p.470.

## 24) 茶골(차골)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성남면(城南面) 수양리(秀陽里) 뒷산에 있는 차산지의 이름<sup>59)</sup>으로 차 생산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 25) 茶房(차방)

의미가 기재된 6종의 문헌 중 5종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두는 방. 흔히 안방 옆에 붙어 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1종의 문헌에는 ‘차와 다구를 보관하고 차를 끓이기도 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차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두는 방’의 의미보다는 ‘차와 다구를 보관하고 차를 끓이는 곳’의 의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26) 茶店(차점)

『우리말 대사전』에는 ‘차집’으로 정의되어 있고, 『국어대사전』에는 ‘다방(茶房)’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차점의 한자어가 茶店인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茶店의 의미와 같다고 보아진다.

## 27) 차집

6종의 사전 중 4종의 사전에 ‘다방’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1종에는 ‘차물 따위를 파는 집’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다른 1종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고 차나 음료 따위를 파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문헌의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면 차집은 현대적 의미의 茶房과 같은 의미라 결론지을 수 있다.

---

59) 최규용(2004). 앞의 책. p.302.

<표 11> 장소 관련 용어\*

용어	정 의	계재문헌
공사다소 貢寺茶所	절에 차를 만들어 바치던 마을	우리
노다장 老茶莊	차를 팔던 본사(本社)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래된 상점이라는 말도 됨	금당
다거 茶居	다관(茶館)	새, 우, 국, 표, 민
다공리 茶貢里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연초면(延草面)에 있는 지명. 옛날에 차를 진상(進上)하던 곳. 거제 사투리로 '맛공리'라고 한다	금당
다과점 茶菓店	다과를 파는 가게	새, 국, 금, 민
	차나 과자 따위를 파는 가게	우, 표
다관 茶館	중국 사람들의 사교장. 서민들이 모여 수박씨를 까먹고 점심을 드는 곳이며, 특히 상인들 사이에는 상업에 관한 이야기와 정보 교환처로 이용되었음. 다루(茶樓), 다사(茶肆), 다거(茶居)	새, 국, 우, 금, 표, 민
	고려때 외국 사신이 출입하던 관영다방	금당
다도면 茶道面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다도면(茶道面). 이 일대에는 예부터 자생(自生) 차나무가 자란다. 이 자생 차나무는 불회사와 운흥사 뒷산에 특히 많다. 예부터 차를 생산한 곳이다.	금당
다령 茶嶺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성남면(城南面) 수양리(秀陽里)에 있다. 찻등 또는 찻골이라고도 부름	금당
다루 茶樓	다관(茶館)	새, 국, 우, 금, 표, 민
	차 마시는 다락(원두막 따위)	현대
다리 茶里	차생산지	금당
다방 茶房	①객석을 갖추고, 다류(茶類)를 조리 판매하거나 청량음료·우유 등 주류 이외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영업소. 다실(茶室), 차방(茶房), 찻집, 커피숍, 티룸 ②[역]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약을 조제하여 바치던 부서(部署). '약방'의 전이름	새, 국, 우, 금, 민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고 차(茶)나 음료 따위를 판매하는 곳. '찻집'으로 순화=다실(茶室)·다점(茶店)·차실(茶室)	표
	조정의 다례를 거행하고 왕이 행행할 때 수반되는 다례를 봉행하는 곳	다도, 한다, 우리
다사 茶肆	다관	새, 국, 우, 금, 표, 민
다산정원 茶山庭園	조선 말기 학자 다산(茶山)정약용(丁若鏞)의 사정원(私庭園). 방지(方地)·정석(丁石)·정자(亭子)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표본임. 전남 강진에 있음	금
다시 茶市	차를 사고 파는 시장	금당
다실 茶室	다방	새, 국, 금, 표, 민
	찻집	우
	다방(茶房), 차실(茶室)	민
	차세간을 갖추어 놓고 차를 마시는 거실	현대
	차 마시는 방	한다
다연원 茶淵院	우리나라 최초의 확인된 다옥(茶屋)	한다

다옥	茶屋	신위가 자신의 오두막집을 「다옥」이라 부르면서 연유한 말로서 차 마시는 집	한다
		(조)벗집, 떠 역새로 지붕을 이은 10평 내외의 소박한 초당(草堂)으로 누실(陋室)이라고도 함	우리
다원	茶園	차를 재배하는 밭. 차밭	새, 국, 우, 금, 표, 민
다장	茶粧	차 제조장	금당
다점	茶店	다방(茶房)	새, 국, 금
		찾집	우
		다방·찾집	민
		(고)일반 백성들이 돈이나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마른 차를 사거나 차를 사 마시는 집	한다
		(고)차를 위한 전문적인 상점이 아니었고, 일반 대중이 '돈'이나 '폐'를 주고 차를 사 먹을 수 있는 곳	우리
다헌	茶軒	(고)차를 마시는 집	한다
차방	茶房	①다방(茶房) ②찬방(饌房)	새, 국
		찾집	우, 표
		차방(茶房)	민
		차세간을 갖추어 놓고 차를 마시는 방	현대
차밭	茶田	①차나무를 가꾸는 밭 ②다원 ③차나무가 많은 곳	현대
차시	茶市	공납에 충당하기 위해 무명이나 쌀로 차를 바꾸었듯이 차를 파는 시장	한다
차실	茶室	다방(茶房)	새, 국, 표, 민
		찾집	우
차원	茶園	차나무를 심은 밭	새, 국, 우, 금, 표, 민
차전	茶田	차밭	우
차점	茶店	다방	새
		찾집	우
		[북]다방(茶房)의 북한어	표
차집	茶-	[북]찾집의 북한어	표
차골	茶골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성남면(城南面) 수양리(秀陽里) 뒷산에 있는 차산지의 이름. 차 생산지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인다.	금당
차방	茶房	①일상생활에 쓰는 식료품을 두는 방. 흔히 안방 옆에 붙어 있음 ②다방(茶房)	국, 표, 민
		안방 곁에 딸려 있어 살림에 드는 식료품을 두는 방	우, 금
		차와 다구를 보관하고 차를 끓이기도 함	한다
차점	茶店	찾집	우
		다방(茶房)	국
차집	茶-	다방	새, 국, 금, 민
		차물 따위를 파는 집	우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고 차나 음료 따위를 파는 곳=꼭다점·꼭차점·차방·차방	표

\*사전류는 첫 글자만 인용해서 『새우리말 사전』은 『새』, 『국어대사전』은 『국』, 『우리말 큰사전』은 『우』, 『금성판국어대사전』은 『금』, 『표준국어대사전』은 『표』, 『민중대사전』은 『민』이라 함. 다서류는 두 글자 표기를 원칙으로 해서, 『현대차생활용어』는 『현대』, 『茶道學』은 『다도』, 『한국茶文化』는 『한다』, 『금당다화』는 『금당』, 『한국다예』는 『한예』,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는 『우리』라고 표기함. 또한 조선시대는 『조』, 고려시대는 『고』, 옛날은 『옛』, 한의학 관련 용어는 『한의』, 역사적 의미의 용어는 『역』이라 표기함. 이하 표(표12~표29)는 위의 형식과 같음.

## 2. 인물과 관련된 용어

茶자리의 주인과 손님 또는 사람의 호와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 1) 茶角(다각)

茶角이 기재된 문헌의 공통된 의미는 '불가에서 차를 달여서 여러 사람에게 이바지를 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문헌에서 다각의 뜻이 같은 것은 아니다. 원래의 뜻은 고려·송대의 공납 차 포장단위이다.<sup>60)</sup> 『大漢和事典』에는 '차모임의 초대장' 또는 '차침자'라고 되어 있으며<sup>61)</sup> 『조선의 차와 선』에는 '승려가 되지 못한 어린이로서 차를 마련하여 올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르며 일명 승각(僧角) 또는 다동(茶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茶角은 '정극인<sup>62)</sup>의 호'로도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의미로 쓰이는 '茶角'이라는 용어는 「林通의 夏日寺居詩」에 최초로 등장하고 있다.<sup>63)</sup> 현대에 茶角의 뜻은 '차모임의 초대장이나 차침자'란 뜻

60) 熊蕃 『宣和北苑貢茶錄』 序篇 "其品又加于小團之上"의 汪繼壕註.

61)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0.

62) 김상형 외(1995). 『금성판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p.2650.

정극인: 조선시대의 문신·학자 (1401~81). 자는 가택(可宅), 호는 불우헌(不憂軒)·다헌(茶軒)·다각(茶角). 단종(端宗)이 왕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음. 국문학 사상 최초의 가사 상춘곡(賞春曲)을 지었음. 저서에 불우헌집(不憂軒集)이 있음

63) 諸槁轍次(1928). 위의 책. p.9981. [林通. 夏日寺居詩] 社信題茶角樓衣笠酒痕.

보다는 '불가에서 차를 달여서 여러 사람에게 이바지를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2) 茶客(다객·차손님·차손·차손)

다객·차손님·차손·차손은 문헌 고찰 결과 모두 같은 뜻이라 여겨진다. 단지, 다객은 한자어이고, 차손님, 차손, 차손은 순우리말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대에 쓰이고 있는 다객(茶客)의 뜻이 처음부터 '차손님'의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다. 『大漢和事典』에서 茶客은 '차를 파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으며 「林逋의 無爲軍詩」에 '차를 파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sup>64)</sup>

## 3) 茶母(다모·차모)

의미가 기재된 문헌의 공통적 의미는 '관청의 차 심부름을 하던 천비(賤婢)'라고 종합할 수 있다.

'다모'와 '차모'의 의미는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같은 용어라 생각된다. 김명배의 『茶道學』에는 「茶母」는 「다모」 아닌 「차모」라고 불렀다.<sup>65)</sup>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이의봉(李義鳳)의 『고금석림』(古今釋林)에는 '「외색다비」(外色茶婢)를 차모(茶母)라 부르며, 주비(酒婢)를 주모(酒母)라 부르고 식비(食婢) 또한 식모(食母)라 부른다」<sup>66)</sup>라고 되어 있다. 다모(茶母)의 기록은 조선시대 태종18년(1418)년부터 등장하지만, 훨씬 거슬러 올라갈 개연성이 크며, 노비가 해방되는 갑오경장(1894) 무렵까지 근 6세기 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다모 본래의 기능이나 신분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세대를 이어온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긴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는데, 茶母의 명칭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직책을 나타내는 것이었지 남녀의 성별을 구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sup>67)</sup> 또한 각종 의례를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고려시대 다방(茶

64)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1. [林逋、無爲軍詩]酒家樓閣搖風旆、茶客舟船簇雨檣。

65) 김명배(1998). 『茶道學』. 서울: 학문사. p.320.

66) 김명배(1998) . 위의 책. p.320.

房)제도 자체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다색(茶色)과 함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시대에 이들을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종적인 신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경우라 하겠다.<sup>68)</sup> 茶母는 조선시대 궁중의 다방소속이 아닌 '관사(官司)에서 차와 술대접 등 잡일을 맡아 하던 관비(官婢)'라 정의할 수 있다.

#### 4) 茶婢(다비)

12종의 문헌 중 『표준국어대사전』에만 의미가 수록되어 있다. '관아에서, 차를 끓이는 일을 맡아하던 계집종'이라는 의미이다.

#### 5) 茶房內侍(다방내시)

'왕가에서 차를 다루던 내부관직명(內府官職名)'으로 정의할 수 있다.

#### 6) 茶山(다산)

의미가 기재된 모든 문헌에서 '정약용<sup>69)</sup>의 호'로 풀이하고 있다.

#### 7) 茶色(다색·차색)

다색은 12종의 문헌 중 『표준국어대사전』에만 기재된 용어로 '궁중에서 차 끓이는 일을 맡아하던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차색은 '茶色'이라고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다색과 차색은 같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유형원(柳馨遠, 1622~73)의 『반계수록』(磻溪隨錄)에는 '다색장리(茶色掌吏)와 각 궁전에 상공(上供)되는 차의 수량이 적혀 있다. 어선(御膳), 임금의 반찬을 받들고 사옹원에서는 대전(大殿), 왕비전(王妃殿), 세자궁(世子宮), 혜경궁(惠慶

67) 박윤수(2004). 『다모의 역사적 실체』. 『茶文化研究誌』 13권. p.29.

68) 박윤수(2004). 위의 책. p.83.

69) 김상형 외(1995). 『금성관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p.2664.

정약용: 조선 말기의 학자(1762~1836). 자는 미옹(美鏞),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여유당(與猶堂)·채산(菜山). 조선후기 유형원과 이익의 실학을 계승하여 집대성하였음.

宮)에 다색장리 2명씩을 보내어 차일을 받들게 하였다.<sup>70)</sup> 라고 되어 있다. 다색은 신분상 대전(大殿)이나 중궁전(中宮殿)에 배치될 수 없었던 다모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었으며, 茶房에 속하여 주어진 일을 처리하였다. 또한 도감류(都監類)를 살펴보면 다장(茶匠)·다색(茶色)·다방(茶房)·다모(茶母)·다장태수(茶匠太守) 등의 용어들이 보이는데, 茶母를 제외한 나머지가 상급부서나 관원인 것은 분명한듯하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sup>71)</sup>

문헌 고찰 결과 茶母, 茶婢는 '관아에서 차 끓이는 일을 하던 官婢', 茶色은 '궁중에서 차 끓이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다.

### 8) 茶神(다신)

문헌 고찰 결과 여러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에서 '다경을 지은 육우를 높여 부르는 말'과 둘째, '차의 신묘함'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의미는 초의스님의 『동다송』 '거르는 것은 너무 빠르면 안 되니 빠르면 다신(차의 신령스러운 기)이 나타나지 않는다.<sup>72)</sup>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당의 육우를 존경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唐書』와 『陸羽傳』에 나오는 용어이다.<sup>73)</sup>

### 9) 茶人(다인)

茶人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풀이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차를 심어서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생산 분야의 의미와 둘째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라는 뜻인 소비 분야의 의미가 있다.

이를 『大漢和事典』에서 살펴보면 '차를 따는 사람'과 '차를 즐기는 호사가'로 정의되고 있다. 전자의 의미로는 『茶經』에 쓰이고 있으며, 후자의 의미로

70) 김명배(1998). 앞의 책. p.319.

71) 박윤수(2004). "다모의 역사적 실체". 『茶文化研究誌』 13권. p.56.

72) 정영선(2005). 『동다송, -부록 장원의 다록-』. 서울: 도서출판 너럭바위. p.78.

醜不宜早 早則茶神不發

73)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3.

는 『雍州府志』에 등장하는 용어이다.<sup>74)</sup> 현대는 두 가지 의미 중 소비분야인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생산 분야인 '차를 심어서 생산하는 사람'이란 뜻은 현대에는 '차농' 또는 '차농가'로 대체되고 있다.

#### 10) 茶翁(다옹)

'육우의 호'를 이르는 말이다.

#### 11) 茶軒(다헌)

본뜻은 '차를 마시는 집'이며 '정극인의 호'로도 풀이되고 있다.

#### 12) 茶友(차벗)

차를 즐기는 벗, 차로써 사귄 벗으로 풀이되고 있다.

---

74)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3. ([茶經 茶人負以採茶][雍州府志、八針屋宗春宅]在上立賣室 町西、宗春、茶人也、豐臣秀吉公、一時來臨宗春宅)

<표 12> 인물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재문헌
다각	절에서 차를 달여 여러 사람에게 이바지 하는 일. 또는 그 사람	새, 국, 우, 금, 표, 민, 한다
	우리나라 절에서 차를 다루는 스님 (茶沸, 茶嘴)	금당
	①(옛: 절에서 차를 달여 나누어 줌) ②간단한-차례의-상차림 '정극인(丁克仁)'의 호	현대 금, 표, 민
다객	茶客 차손님	우
다모	관청의 식모(食母) 노릇을 하던 천비(賤婢)	새, 국, 금, 민
	다방(茶房)내시(內侍)중의 여시중(女侍中) (조)각 관청에서 관리들의 차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서민계층에서 선발한 일종의 오늘날 비서제도와 같은 것	금당 우리
다방내시	茶房內侍 왕가에서 차를 다루던 내부관직명(內府官職名)	금당
다비	茶婢 관아에서, 차를 끓이는 일을 맡아하던 계집종=다모·차모	표
다산	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호(號)	금, 표, 민
다색	茶色 궁중에서 차 끓이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표
다신	茶神 중국에서 '다경'을 지은 '육우'를 높여 부르는 말	새, 국, 우, 금, 표, 민
	①차의 신묘함 ②육우의 높임 ③차의 신 ④꽃차의 차 모양에 따른 신기스러움	현대
다인	茶人 ①차를 심어서 생산하는 사람 ②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	우, 표
	①차를 썬 좋아하며 품위를 갖춘 사람 ②차를 좋아하는 사람	현대
	차를 즐겨 마시어 밝고 맑게 사색하고 행동하는 사람	한다
다옹	茶翁 중국 唐나라 사람으로서 『다경 茶經』을 지어 다신(茶神)으로 숭앙받는 육우(陸羽)를 가리키는 말	금당
다헌	茶軒 '정극인(丁克仁)'의 호	금, 표, 민
차모	茶母 조선시대 경각사(京各司)에서 차를 끓여 대는 일을 맡아보던 관비	새, 우, 국, 금, 민
	다비(茶婢)	표
	각 관청에서 관리들의 차 심부름을 하기 위해 서민계층에서 선발된 격이 낮은 여성	한다
차색	茶色 다색(茶色)	표
차손님	茶-- 차를 마시려고 차집 따위에 드나드는 손님	우
차벗	茶友 ①차를 즐기는 벗 ②차로써 사귀는 벗	현대
차손	茶客 차자리의 손	현대
차손	茶賓 차를 즐기는 손	현대

### 3. 茶 물품 관련 용어

차를 우려 마시기 위해 필요한 차, 물, 차음식과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 1) 茶 관련 용어

차에 관한 전반적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3>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脚(다각)

12종의 문헌에서 『금당다화』에만 나오는 용어는 ‘말차(抹茶)를 달일 때 잔에 거품이 구름같이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sup>75)</sup>

##### (2) 茶膏(다고)

『다도학』에서 ‘연고 상태의 차’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를 『大漢和事典』에는 ‘차기름’<sup>76)</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3) 茶梅(다매)

의미가 기재된 문헌 모두 ‘동백나무’ 또는 ‘동백나무의 별칭’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이를 『大漢和事典』에서 찾아보면 문헌과 같은 의미인 ‘차나무 이름, 산다의 별칭’이라고 되어 있다.<sup>77)</sup> 이 용어는 『草花譜』에 최초로 등장하고 있다.<sup>78)</sup>

---

75) 최규용(2004). 앞의 책. p.305.

76)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1.

77) 諸槁輒次(1928). 위의 책. p.9980.

78) 茶梅花開十一月中、正譜花凋落之後。

#### (4) 茶木(다목)

의미가 게재된 문헌 모두 '차나무'라고 풀이하고 있다. 초의스님의 『동다송』에는 차나무를 '茶樹<sup>79)</sup>라고 표기하고 있어, 차나무·다목·다수 모두 같은 의미의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5) 茶色(다색)

문헌 고찰 결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진다. 첫째, '갈색(褐色)'이라는 뜻과 둘째, '차의 종류'라는 뜻이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茶色의 뜻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차의 종류'라고 정의하였으며, 『宋史 食貨志』에 이 의미로 쓰이고 있다. 둘째, '차의 색'이라는 의미로 쓰이며, 장원의 『茶錄』에 등장하고 있다. 셋째, '갈색'의 의미로 쓰이며 「梅堯臣의 시」에 쓰이고 있다.<sup>80)</sup>

#### (6) 茶素(다소) · 茶精(다정)

의미가 풀이된 사전 모두 '카페인'이라고 되어 있다.

#### (7) 茶煙(다연)

'차를 달일 때 나는 연기' 또는 '차감'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이는 『大漢和事典』에서 풀이된 '차를 끓일 때 나는 연기'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劉禹錫과 白居易 시」에 최초로 등장하고 있다.<sup>81)</sup>

79) 정영선(2005). 『동다송, -부록 장원의 다목-』. 서울: 도서출판 너럭바위. p.62.

智異山花開洞 茶樹羅生四五十里

80)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3. [宋史、食貨志]大觀元年議、提舉茶事司、須保驗一路所產茶色高下、價直低昂、而請茶短引、以地遠近程以三等之期。[茶錄]茶色貴白、而餅茶多以珍膏、油其面、故有青黃紫黑之異。[岑參、暮秋會嚴京兆後廳竹齋詩]甌香茶色嫩、窗冷竹聲乾。[梅堯臣、送良玉上人詩]來衣茶色袍、歸變椹色服。

81) 諸槁轍次(1928). 위의 책. p.9980. [劉禹錫、秋日遇鴻舉法師寺院便送歸江陵詩]客至茶烟起、禽歸講席收[白居易、卽亭詩]室香羅藥氣 籠暖焙茶烟[鄭谷、雪中詩]亂飄僧舍茶烟濕、密灑歌樓酒力微。

### (8) 茶葉(다엽·차잎·차잎)

茶葉은 세 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다.

다엽은 문헌 3종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미는 '차잎'이라고 되어 있다.

차잎은 '차잎'의 북한어 또는 '차잎'이란 뜻으로 쓰였다.

차잎이란 뜻으로는 문헌 7종에 쓰이고 있으며, '차나무의 잎. 다엽(茶葉)' 또는 '차나무의 묵은 잎과 새잎의 통틀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 용어들의 공통된 의미를 살펴보면 '차잎' 즉 '차나무의 잎'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두 같은 의미의 용어이며, '차잎'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지 다엽은 한자어, 차잎은 우리말, 차잎은 '사이시'를 쓰지 않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조선말 대사전에서 차잎은 '차나무의 잎', '다엽'으로 풀이되어 있으며, 북한에서 사용되는 차용어들은 대체적으로 '사이시'이 빠진 말들이 쓰이고 있다.<sup>82)</sup> 차잔(茶盞), 차장(茶檝), 차종(茶鍾), 차종지(茶鍾-), 차주전자(茶酒煎子), 차물(茶-)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엽(茶葉)의 뜻은 『大漢和事典』에도 '차의 잎, 차, 엽차'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고래의 뜻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舊唐書』와 「李賀의 시」에 최초로 등장하고 있다.<sup>83)</sup>

### (9) 茶乳(다유)

12종의 문헌 중 『한국茶文化』에만 게재되어 있는 용어로 '고급 덩이차(乳團茶)나 잎차를 곱게 갈아 체로 쳐서 만든 가루차(末茶)를 끓인 물에 넣어 휘젓거나 혹은 차사발에 점다하여 거품을 일으켜 마시는 탁한 차' 또는 '가루차를 뜨거운 물에 휘저어 가루와 함께 마시는 탁한 차'로 정의되어 있다. 현대의 '가루차와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82)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1992). 앞의 책. p.473.

83)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0. [舊唐書. 令狐楚傳] 百姓移茶樹於官場中栽植摘茶葉於官場中 [李賀 始爲奉禮憶昌谷山居詩] 土甌封茶葉山杯鎖竹根 [魏王花木志] 茶葉似梔子可煮爲飲

### (10) 茶積(다적)

사전 5종에 게재되어 있으며, '차를 너무 좋아하여 나중에는 마른 차를 그대로 씹어 먹게 되는 병'이라 풀이하고 있다.

### (11) 茶劑(다제·차제)

다제와 차제는 '다'와 '차'로 시작되는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의미의 용어이다. '여러 가지 식물성 생약을 혼합하여 말려서 만든 약제'라고 풀이할 수 있다.

### (12) 茶湯(다탕)

茶湯의 뜻은 사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나, '차, 찻물, 차를 달인 물, 차·과자·과일 따위의 간단한 음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서에는 '거친 떡 차나 잎차를 끓여 걸러 낸 맑은 찻물'이란 의미와, '차를 올린다'는 의미가 있다. 茶湯의 의미를 『大漢和辭典』에서 살펴보면 첫째 차와 탕, 더운물과 차, 둘째 차를 끓인 탕, 끓인차로 정의되어 있다.<sup>84)</sup> 또한 정영선은 『고려와 조선의 茶와 湯과 藥의 기호문화』에서 茶湯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국 현대 사전에는 '茶湯'을 "기장이나 수수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설탕을 탄 것" 또는 "차와 끓인 물(수프)"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일본의 '茶の湯'는 찻물을 뜻한다. 고려와 조선 문헌에 흔히 나오는 '茶湯'은 끓인 찻물, 茶와湯, 그리고 대용차를 포함한 다류의 뜻으로 쓰였다. 차를 끓이거나 우려 茶水(찻물), 湯茶로 마신 기록은 이미 육우 『다경』의 '암다(庵茶)'나 북방 진다에서 볼 수 있다.<sup>85)</sup> 우리나라에서 끓인 찻물을 그대로 마신 '湯茶'의 기록은, 최치원이 쓴 진감선사비에 있으므로, 신라 말부터 흔히 있었던 풍습이다. 고려의 상류층과 불가는 중국 풍습의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茶湯'이 주로 茶와湯의 의미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조선시대에는 궁정에서도 엽차 중심의 음다풍습이 성하여 다탕은 주로 '끓인 찻물'을 뜻하였다.<sup>86)</sup>

84)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3.

85) 『茶經』. 六之飲, 七之事

86) 정영선(2003). "고려와 조선의 茶와 湯과 藥의 기호문화". 『茶文化研究誌』 12권. p.19.

茶湯의 뜻은 여러 문헌을 통해 본 결과 ①차를 끓인 물(끓인 찻물) ②茶와湯 ③거친 떡차나 잎차를 끓여 걸러 낸 맑은 찻물로 정의할 수 있다.

### (13) 辯茶(변다)

12종의 문헌 중 『금당다화』에만 게재된 용어로 '조다의 단정(丹精)저장이 된 것. 잘 볶은 것. 잘 찢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용어는 장원의 『다록』에 나오는 용어로 차를 잘 볶았는지, 저장은 잘 했는지, 잘 찢는지를 구별하는 '차의 분별'87)을 말하는 용어이다.

### (14) 藏茶(장다)

'차를 저장함'의 뜻으로 『금당다화』에 게재된 용어88)이며, 최초의 출전은 장원의 『茶錄』이다.

### (15) 摘茶(적다)

'차를 따는 것'이란 의미로 문헌 7종에 게재된 용어이다. 『大漢和辭典』에는 摘茶가 아닌 茶摘이란 용어로 게재되어 있으며, 뜻은 '차의 싹을 따는 것' 또는 '차를 따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89) 현대에는 '차를 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를 따는 일'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16) 造茶(조다)

'차를 만듦'이란 뜻으로 문헌 2종에 게재되어 있다. 造茶란 용어는 장원의 『茶錄』에 나오는 용어이며 '차만들기'90)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현대의 '제다'와 같은 뜻이라 생각된다.

87) 정영선(2005). 『동다송, -부록 장원의 다록-』. 서울: 도서출판 너럭바위. p.92.

88) 최규용(2004). 앞의 책. p.298.

89)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3.

90) 정영선(2005). 위의 책. p.91.

### (17) 茶(차)

의미가 기재된 문헌 9종의 공통된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차나무의 어린잎을 달이거나 우린 물로 만든 차와, 식물의 잎이나 뿌리, 과일 따위를 달이거나 우리거나 하여 만든 마실 것을 통틀어 이르는 차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우리가 말하는 '순수차'의 의미이며, 후자는 오늘날 인삼차, 칩차처럼 '대용차'를 뜻한다. 현대에 있어서 '차'의 의미는 순수차만이 아닌 대용차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차'를 대중에게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대용차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18) 茶花(차꽃)

12종의 문헌 중 『현대차생활용어』에만 기재된 용어로 '차나무의 꽃'으로 정의되어 있다. 『大漢和辭典』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나무의 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晁沖之의 시와 陳興義의 시에 나오고 있다.<sup>91)</sup> 하지만 현대는 茶花라 하면 '차나무의 꽃'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문헌에 풀이된 뜻과는 다르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차나무

의미가 기재된 7종의 공통된 의미는 '차나무과의 상록 활엽관목으로 잎은 긴 타원형이며, 10~11월에 흰꽃이 핀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하며 어린순으로 차를 만든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0) 차풀

'차풀과에 딸린 한해 살이 풀. 잔털이 났으며, 줄기는 곧고 단단하며, 속이 비고 높이는 30~60cm, 잎은 어긋나게 나며 짧은 깃 모양의 겹잎인데 작은 잎이 여러개가 잇달아 붙어서 잎자루의 양쪽에 배열됨. 7~8월에 잘고 누른 다섯

---

91)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1. [晁沖之、送惠純上人遊閩詩]春溝水動茶花白、夏谷雲生荔子紅。[陳興義、初識茶花詩]青裙玉面如相識、九月茶花滿路開。

잎꽃이 잎 사이에 1~2개씩 달리어 피며 열매는 꼬투리임. 흔히 들이나 산지에 나는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함. 줄기와 잎은 말리어 차(茶)의 대용으로 하며 사료로도 씬'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1) 茶香(차향)

茶香의 의미는 2종의 문헌에 수록되어 있으며, 차의 향내, 다향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大漢和事典』에 풀이된 차향기와 뜻이 같으며, 元稹과 白居易의 시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이다.<sup>92)</sup> 茶香은 '차의 향내', '차향기'로 정의할 수 있다.

### (22) 茶材料(차감)

사전 6종에 게재되었으며, 공통된 의미는 '차를 만들 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 (23) 차값

5종의 사전에 '다방에서 마신 음료(飲料)의 대금으로 내는 돈'으로 풀이하고 있다.

### (24) 採茶(채다)

문헌 2종에 게재된 용어로 '차잎을 따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장원의 『다록』에 등장하며 위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sup>93)</sup>

---

92)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1. [元稹、解秋詩] 夢覺茶香熟。[白居易、題周皓大夫新亭詩] 茶香飄紫筍膾縷落紅鱗。

93) 정영선(2005). 앞의 책. p.90. 採茶之候 貴及其時

<표 13> 茶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재문헌
다각	茶脚	말차(抹茶)를 달일 때 찻잔에 거품이 구름같이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것	금당
다고	茶膏	연고상태의 차	다도
다매	茶梅	[식]동백나무	새, 국, 우, 민
		동백나무의 별명(別名)	금당
다목	茶木	차나무	새, 국, 우
다색	茶色	①갈색(褐色) ②차의 종류	새, 국, 금, 표, 민
		①차의종류 ②갈색 ③햇빛	우
다소	茶素	[화]카페인	새, 국, 우, 금, 표
		[화]카페인'의 한자이름	민
다연	茶煙	차를 달일 때 나는 연기	새, 국, 금, 표, 민, 금당
		찰김	우, 한다
다엽	茶葉	찰잎	새, 우, 국
다유	茶乳	(고)고급 덩이차(乳團茶)나 잎차를 곱게 갈아 체로 쳐서 만든 가루차(末茶)를 끓인 물에 넣어 휘젓거나 혹은 차사발에 점다하여 거품을 일으켜 마시는 탁한 차 (조)가루차를 뜨거운 물에 휘저어 가루와 함께 마시는 탁한 차	한다
다적	茶積	[한의]차(茶)마시기를 인이 배기도록 너무 즐기어, 나중에는 마른차를 그대로 씹어먹게 되는 병	새, 국, 우, 금, 표, 민
		차를 좋아하는 나머지 나중에는 마른차를 그대로 끓여 먹는 것	금당
다정	茶精	[화]카페인'	새, 국, 우, 금, 표
		[화]카페인'의 한자이름	민
다제	茶劑	차제(茶劑)	우, 표
다창 다기	茶槍 茶旗	차순과 차눈. 찻잎이 2분쯤 돌아날때의 차 잎사귀의 생김새를 말함	금당
다탕	茶湯	①차 ②차·과자·과일 따위의 간단한 음식	새
		①찰물 ②차, 과자, 과일 들의 간단한 음식	우
		①차를 달인 물 ②차·과일·과자와 같은 간단한 음식 ③=다과회(茶菓會) ④부처에 공양하기 위하여 달인 차	국
		①뜨거운 차 ②차·과자·과일 등의 간단한 음식	금, 표
		차·과자·과일 같은 간단한 음식	민
		(고)거친 떡차나 잎차를 끓여 걸러 낸 맑은 찻물	한다
		차를 올린다는 말	금당
변다	辨茶	조다의 단정(丹精)저장이 잘된 것. 잘 볶은 것. 잘 찌른 것	금당
장다	藏茶	차를 저장함	금당

적다	摘茶	차를 따는 것	새, 국, 우, 금, 표, 민, 금당
조다	造茶	차를 만들	금당, 우리
차	茶	①[식]차나무 ②물에 타거나 달이어 음료를 만드는 재료. 차나무 잎이나 코코아 나무. 코오피 나무의 열매, 과일즙 따위로 만들 ③차물	새
		①[식]차나무'의 준말 ②차나무의 잎 따위로 만든 입맛을 개운하게 하는 음료의 재료 ③입맛을 개운하게 하려고 재료를 달이거나 우리거나 하여 만든 음료수	우
		①[식물]차나무 ②물에 타거나, 또는 달이어 음료를 만드는 재료. 차나무 잎이나 코코아나무·커피나무의 열매, 과일즙 등으로 만들 ③커피나 홍차와 같이 차를 달인 물. tea	국
		①[식]=차나무 ②차나무의 어린 잎을 따서 만든 음료의 재료. 또는 그것을 달인 물 ③재료를 달이거나 끓여서 만든 음료를 두루 이르는 말	금
		①차나무의 어린잎을 달이거나 우린 물 ②식물의 잎이나 뿌리, 과일 따위를 달이거나 우리거나 하여 만든 마실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삼차, 철차 따위가 있다	표
		[식]①차나무 ②차나무 등의 어린잎을 따서 만든 음료. 또 이를 달인 음료(飲料) 홍차 같은 것	민
		①차를 우린 물 ②차를 탄물 ③차를 달인 물 ④여러가지 차제품 ⑤차자리 ⑥차나무의 꽃순, 또는 꽃순을 우린 물 ⑦차처럼 우리거나 풀거나 타서 마시는 마실거리, 즉 대용 마실거리	현대
		①차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만든 마실거리의 재료 ②차물을 끓이거나 우려내거나 물에 타서 마실거리로 만든 차물(茶湯) ③'차꽃' '차싹'등의 경우에 '차'는 차나무를 뜻한다.	한다
		차나무의 순(荀)이나 잎(葉)을 재료로 해서 만든 것	한예
		차나무의 잎을 따서 발효시키거나 발효를 시키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다해서 만든 마실거리의 재료	우리
차꽃	茶花	차나무의 꽃	현대
차나무	茶樹	[식]후피항과에 딸린 늘푸른 떨기나무. 보통 높이는 60~90cm이나 10m이상의 것도 있으며, 잎은 길둥글고 질김. 겉면은 평평하고 미끄러우며 광택이 남. 가을철에 다섯잎으로 된 흰꽃이 1~2개씩 잎겨드랑이에서 피고, 3개의 씨가 들어있는, 세모진 열매는 다음해 가을에 익음. 동부 아시아 원산으로 전남·전북·경남과 일본·중국·인도 등지에 분포함. 인가나 사원(寺院) 부근에 기호(嗜好)식물로 심고, 봄철의 어린 잎은 녹차(綠茶)나 홍차(紅茶)의 원료가 되고 씨는 기름을 짜서 쓰고, 재목은 단추감으로 씀. 다목(茶木)	새, 국, 우, 민
		[식]차나뭇과의 상록 활엽관목. 잎은 긴 타원형인데 두껍고 윤이 난다. 10~11월에 흰꽃이 가지 끝의 잎 겨드랑이에 1~3개씩 피고, 열매는 다음해 11월에 다갈색으로 익는다. 어린눈과 잎은 홍차의 원	금, 표

		료로, 열매는 기름을 짜서 쓰고 재목은 단추 만드는 재료로 쓴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한다. =다목(茶木)·차(茶)(Thea sinensis)	
		차나무과에 딸린 늘푸른 떨기 나무. 어린순으로 차를 만듦	현대
차잎	茶-	차잎	우
		[북]차잎의 북한어	표
차제	茶劑	생약을 말려서 적당히 가공한 약제. 끓는 물에 넣어서 우리거나 달여서 먹도록 되어 있다	우
		생약을 썰어서 그대로 또는 향료 등을 섞어서 달여서 쓰도록 만든 약	금
		다제(茶劑)	국
		여러가지 식물성 약제(藥劑)를 혼합하여 말려서 만든 약제. 이것을 끓는 물에 넣어 복용함	표, 민
차풀	茶-	차풀과에 속하는 일년초. 키는 30~60cm가량. 잔털이 났으며 줄기는 곧고 단단하며, 속이 비고 잎은 어긋맞게 나며 짧은 깃 모양의 겹잎인데 작은잎이 여러개가 잇달아 붙어서 잎자루의 양쪽에 배열됨. 7~8월에 잘고 누른 다섯잎꽃이 잎 사이에 1~2개씩 달리어 피며 열매는 꼬투리임. 흔히 들이나 산지에 나는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함. 줄기와 잎은 말리어 차(茶)의 대용으로 하며 사료로도 씀	새, 국, 민
		[식]콩과의 한해살이 풀. 높이 30~60cm. 잎은 어긋나고 깃꼴겹잎이며 작은 잎은 선상 타원형임. 여름에 잘고 노란 꽃이 피며, 열매는 꼬투리로 열림. 줄기와 잎은 말려서, 종자는 볶아서 차의 대용품으로 씀. 한국·일본·중국 등지에 분포 함	우, 금
차향	茶香	차의 향내. 다향	우, 표
차감	茶-	차를 만들 재료	새, 국, 우, 금, 표, 민
차값	茶-	다방에서 차를 마신 음료의 대금으로 내는 돈	국, 우, 금, 민
		차집에서 마신 음료의 대금으로 내는 돈	표
차잎	茶-	차나무의 잎. 다엽(茶葉)	새, 우, 국, 금, 표, 민
차잎	茶葉	차나무의 묵은잎과 새잎의 통틀음	현대
차다	採茶	차잎을 따는일	금당, 한예

## 2) 물과 관련된 용어

차를 우리기 위해 필요한 물과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4>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褐色(다갈색)

6종의 사전에 게재되어 있지만, 의미는 서로 다르게 풀이되고 있다.

‘조금 검은 빛깔을 띤 적황색’이라고 게재된 문헌과 ‘붉은 기운에 비하여 검누른 기운이 더 짙은 갈색’이라고 게재된 문헌, ‘조금 검은빛을 띤 갈색’이라고 게재된 문헌이 각각 2종씩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검은색이 들어간 갈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94)</sup>

### (2) 茶泉(다천)

원래는 물을 의미하지만 『금당다화』에는 ‘차를 다천(茶泉)이라고 해서 차와 물을 같은 명칭으로 쓰고 있다.<sup>95)</sup> 차를 茶泉으로 부르는 것은 초의스님의 어록이며, 물과 차를 동일시하였다.

### (3) 차물

『표준국어대사전』에만 게재된 용어로 ‘차물의 북한어’라고 표기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의 언어를 담은 『조선말대사전』을 살펴보면 ‘차물’이란 ‘차를 달인 물’이라고 되어 있다.<sup>96)</sup> 북한에는 ‘사이시’를 쓰지 않는 용어들이 대부분이며 차물, 차종지, 차집 등이 있다.

### (4) 茶水(차수)

사전 4종에 게재된 용어이며 공통된 의미는 ‘차를 끓인 물’ 또는 ‘차물’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94)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1.

95) 최규용(2004). 앞의 책. p.311.

96)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2002). 앞의 책. p.468.

(5) 찻물

의미가 기재된 문헌의 공통된 의미는, '차를 달인 물 또는 달이는 데에 쓰이는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찻물은 '차를 달이기 위해 준비한 물'의 의미와 '차를 달인 물'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찻물

'찻물'의 옛말로 풀이되고 있다.

<표 14 > 물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기재문헌
다갈색	茶褐色	붉은 기운에 비하여 검누른 기운이 더 짙은 갈색. 연색(薦色)	새, 국
		검은 빛깔을 약간 띤 갈색	우, 표
		조금 검은빛을 띤 적황색	금, 민
다천	茶泉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에는 차를 다천(茶泉)이라고 해서 차와 물을 같은 명칭으로 쓰고 있다. 차를 다천으로 부르는 것은 초의스님의 어록이다. 물과 차를 동일시하였다.	금당
차물	茶-	[북]'찻물의 북한어'	표
차수	茶水	차를 달인 물. 찻물	새, 국, 금
		찻물	우,
찻물	茶-	차를 달인 물	새, 우, 국
		차를 끓인 물	금, 민
		①차를 달이는 데에 쓰는 물=차수 ②차를 달인 물=차수	표, 현대
		①차에 쓰일 물 ②차를 우린물	현대
찻물		[옛]'찻물'의 옛말	표

### 3) 차음식과 관련된 용어

차를 마실 때 함께 먹을 수 있는 다과, 다식과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5>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官禮茶食(관례다식)

12종의 문헌 중 『금당다화』에만 있는 용어로 '8월 추석에 타서 먹는 월병(月餅)의 일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sup>97)</sup>

#### (2) 茶果(다과)

의미가 기재된 문헌 모두 '차와 과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大漢和辭典』에서 茶果의 뜻은 '차와 과자' 또는 '차와 과일'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의 뜻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용어는 『晉書의 陸納傳』, 『白居易의 謝恩賜茶果等狀』, 『宋史의 眞宋紀』에 등장하고 있다.<sup>98)</sup>

#### (3) 茶菓(다과)

6종의 사전에 기재된 용어이며 '차와 과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 (4) 茶啖(다담·차담)

茶啖은 '다'로도 읽히고 '차'로도 읽힌다.

'불가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차리는 다과(茶菓)따위'를 이르는 말이며 '차담'이라고도 한다. 茶菓와 같은 의미로 생각되지만, 단지 '불가에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차리는 다과'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97) 최규용(2004). 앞의 책. p.301.

98)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1. [晉書、陸納傳]謝安嘗欲詣納、而納殊無共辦、安既至納、所設惟茶果而已。[白居易、謝恩賜茶果等狀]賜茶果脯等。[宋史、眞宋紀]上召見隱士鄭隱李寧、賜茶果束帛。

### (5) 茶食(다식)

의미가 기재된 문헌 8종의 공통된 의미는, '유밀과의 한가지로 녹말·송화·승검초·황밤·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찍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17세기 이후부터 전해져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온 것으로서 11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다식과는 구별된다.<sup>99)</sup> 또한 지금까지 다식이 기록된 최초의 문헌을 『牧隱集』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그보다 앞선 고려초 『大覺國師(1055-1101)의文集』의 『龍頭寺 祐詳大師祭文』에 茶食이 祭需로 사용된 기록이 있으므로 다식의 기원이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sup>100)</sup>

### (6) 茶食菓(다식과)

사전 6종에 기재된 용어이며 공통된 의미는 '유밀과의 한가지로 모양은 다식과 같으나 다식판보다 큰판에 찍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茶粥(다죽)

12종의 문헌에서 『금당다화』에만 기재된 용어로 '차로 끓인 죽'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표기는 '다죽'으로 되어 있다. 현대는 '다죽'이라는 말보다는 '차죽'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

김봉호는 『生活茶藝』에서 차죽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101)</sup>

'명죽(茗粥) 또는 명미(茗攪)로도 불리워지며 우리가 흔히 흰죽으로 부르는 흰쌀죽에 차가 들어있음을 말한다. 3인분에는 정제차 대여섯 차순같이면 된다. 쌀죽을 쭈기 시작하면서도 차도 동시에 넣어 익기를 기다린다. ……하략'

99) 문정숙(2002). "한국 전통 다식의 감미 결착제로서 올리고당 이용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100) 문정숙(2002). 위의 책. p.9.

101) 김봉호(1984). 『생활다예』. 서울: 태평양 박물관. p.131.

茶粥은 茗粥이라고도 했으며, 최초로 다경<sup>102</sup>)에 나오는 용어이며, 현대는 '차로 끓인 죽'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8) 茶禮塔(차례탑)

의미가 기재된 사전 3종에는 '차례 때 높이 괴어올린 제물(祭物)'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1종에는 '음식의 옛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사 때 괴어올린 제수'를 일컫는 말로 생각된다.

#### (9) 茶飯(차반)

의미가 기재된 사전 6종 모두 '예물로 가져가는 맛있는 음식, 맛있게 잘 차린 음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차밥'이란 뜻과 '술 마시면서 안주삼아 먹는 밥'<sup>103</sup>)이라는 뜻이 있으며, 『太平廣記』와 『京夢華錄』에 등장하고 있다.

#### (10) 茶油(차유)

사전 6종에 기재되어 있으며 '차나무의 씨에서 짜는 기름으로 중국 인도차이나 등지에서 나며, 동백기름 대신에 머릿기름으로 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大漢和辭典』에서의 뜻인 '차, 동백꽃의 열매를 짜서 만든 기름'과 같은 뜻으로 보인다.<sup>104</sup>)

#### (11) 茶飲食(차음식)

12종의 문헌 중 『현대차생활용어』에만 기재된 용어로 '차로 만들어진 먹마실 거리'로 정의하고 있다. 조인희는 "1990년대 이후의 문헌을 통해본 차음식의 分析的 考察"<sup>105</sup>)에서 '차음식이란 용어는 茶를 단순히 마시는 차원이 아

102)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2. 茗粥。[茶經]聞南方有蜀嫗、作茶粥。

103) 諸槁輒次(1928). 위의 책. p.9984. [太平廣記]劉公漸與之熟、令妻子見拜之、同坐茶飯。[東京夢華錄]凡店內賣下酒、廚子謂之茶飯。

104) 諸槁輒次(1928). 위의 책. p.9984.

닌 茶를 섭취하기 위해 먹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였다. 『현대차생활용어』의 뜻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12) 茶酒(차주)

『표준국어대사전』에만 있는 용어로 북한에서 쓰이는 말로 '차와 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大漢和事典』에는 '차와 술'로 정의되어 있으며, 『五代史』에 최초로 실린 용어이다.<sup>106)</sup>

### (13) 茶汁(차즙)

'차나무 잎을 끓여 낸 즙'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김봉호는 『生活茶藝』에서 차즙이라고 하지만 차집(茶汁)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 날차잎(生茶葉)으로 생즙을 낸 것인데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갈음명즙(渴飲茗汁)'이라 하였으니 목마를 때에 마시기도 하였다.'라고 하였다. 차즙은 원래는 차집이었지만, 현재는 차즙으로 쓰이고 있으며, '차나무 잎을 끓여 낸 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105) 조인희(2007). "1990년대 이후의 문헌을 통해본 茶음식의 分析的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106)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2. [五代史、盧文紀傳]進奏官至客次通名、勞以茶酒、而不相見。

<표 15> 차음식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재문헌
관례 다식	官禮 茶食	8월 추석(秋夕)에 차물에 타서 먹는 월병(月餅)의 일종	금당
다과	茶果	차와 과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새, 국, 우, 표
다과	茶菓	차와 과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새, 국, 우, 금, 표, 민
		①차와 과자 ②간단한 음식 ③간단한 접대 거리	현대
		차에 곁들여 먹는 음식	한다
		차를 대접하면서 함께 대접하는 과일이나 과자 등속	한예
다담	茶啖	불가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차리는 다과(茶菓)따위. 차담	새, 국, 우, 금, 표, 민
다식	茶食	녹말·콩·송화·승검초·황밤·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 따위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 낸 음식. 빛깔도 흰것·노란것·검은 것 등 여러 가지로 구색(具色)을 맞추어 만듦	새, 국
		유밀과의 한가지. 녹말·송화·승검초·황밤·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찍어냄	우, 민
		우리나라 고유 과자의 하나. 밤가루·송화가루·콩가루·쌀가루 등을 엮이나 꿀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 냄	금, 표
		①차에 곁들여 먹는 과자 따위 ②차와 함께 들기 위하여 만든 전통 음식(차 입맷것)	현대
		차 마시기 전이나 후에 간단히 먹기 좋게 만든 우리의 독특한 과자	한다
다식과	茶食菓	유밀과(油密菓)의 한가지. 밀가루·기름·새양즙·꿀·소주 등을 한데 반죽하여 다식판보다 큰 판에 박아 내서 기름에 지져 만듦	새, 국, 우, 금, 표
		과줄의 한가지. 모양은 다식과 같으나 다식판보다 큰판에 찍어냄	민
다죽	茶粥	차로 끓인 죽	금당
차담	茶啖	[불]=다담(茶啖)	새, 국, 우, 금, 표, 민
차례탑	茶禮塔	차례 때 높이 괴어올린 제물(祭物)	새, 국, 우, 금, 표, 민
차반	茶飯	①예물로 가져가는 맛있는 음식 ②맛있게 잘 차린 음식	새, 국, 금
		'음식'의 옛말	표
차유	茶油	차나무의 씨에서 짜는 기름. 중국 인도차이나 등지에서 나며, 동백 기름 대신에 머릿기름으로 씀	새, 국, 우, 금, 표, 민
차음식	茶飲食	차로 만들어진 먹마실 거리	현대
차주	茶酒	[북]차와 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표
차즙	茶汁	차나무 잎을 끓여 낸 즙	국, 금, 표, 민

## 4. 차도구와 관련된 용어

차도구와 관련된 용어는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세부적으로 차 만드는 도구 용어, 차 끓이는 도구 용어, 차 우리는 도구 용어, 차 내는 도구 용어, 차 마시는 도구 용어, 차 정리하는 도구 용어, 차 보관하는 도구 용어, 기타 세간으로 나누었다.

### 1) 차 만드는 도구 용어

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모, 연장과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6>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鈴(다검)

『금당다화』에만 기재된 용어로 ‘차를 볶을 때 쓰는 금속 그릇’이라고 정의되어 있다.<sup>107)</sup> 『大漢和辭典』에는 ‘차잎을 볶는 도구’<sup>108)</sup>로 정의되어 있으며, 최초로 장원의 『茶錄』에 나오는 용어이다.

#### (2) 茶箒(다구)

『한국茶文化』에만 기재된 용어로 ‘다산이 차를 말리는 도구로 쓴 배로의 일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sup>109)</sup>

#### (3) 茶臼(다구·차절구)

다구의 뜻은 ‘차를 빻는 절구, 차를 가는 멧돌, 차절구’ 등의 뜻으로 정의되어 있다. 차절구는 ‘익힌 차순을 찜는 절구’로 정의되어 있다. 이 둘은 같은 용어라 생각되며, 단지 다구는 한자어, 차절구는 순우리말 이라는 차이가 있는

107) 최규용(2004). 앞의 책. p.301.

108)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1. [茶錄]茶鈴, 屈金鐵、爲用以炙茶。

109) 정영선(2002). 앞의 책. p.233.

것 같다. 『大漢和辭典』에는 茶臼를 ‘차잎을 가는 맷돌’ 혹은 ‘茶磨’로 정의하고 있다. ‘茶臼’의 臼자가 ‘절구 구’이므로 ‘차를 가는 맷돌’이라는 의미보다는 ‘차를 찢는 절구’의 의미가 옳다고 여겨지며, 「王維의 시」와 「柳宗元の 시」에 나타나는 용어이다.<sup>110)</sup>

#### (4) 茶羅(다라)

『금당다화』에만 게재된 용어로 ‘차를 거르는 체’<sup>111)</sup>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장원의 『다록』에 이 용어가 등장한다.<sup>112)</sup> 『大漢和辭典』에는 ‘차를 차잎과 가루로 분리할 때 쓰는 걸름망’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정의되어 있다.

#### (5) 茶籠(다롱)

‘생차(生茶)를 넣어두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sup>113)</sup>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차를 넣는 광주리’를 뜻한다.<sup>114)</sup> 장원의 『茶錄』에 나오는 용어이다.

#### (6) 茶磨(다마·차맷돌)

다마의 공통된 의미는 ‘단차를 가루 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다엽을 가는 맷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차맷돌은 ‘찢차잎을 가는 맷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은 같은 용어로 생각되며 단지 다마는 한자어, 차맷돌은 순우리말로 생각된다. 『大漢和辭典』에는 ‘茶磨’를 ‘차를 찢어서 가루로 만드는 맷돌’이란 의미로 ‘茶臼’와 같다고 정의하고 있다.<sup>115)</sup> 하지만 茶磨는 ‘차를 찢는 도구’의 의미보다는 ‘차를 가는 도구’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

110)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1. [王維、酬黎居士浙川作詩]石脣安茶臼。[柳宗元、夏晝偶作]日午夢覺無餘聲、山童隔竹敲茶臼。

111) 최규용(2004). 앞의 책. p.297.

112) 諸槁輒次(1928). 위의 책. p.9985.

113) 최규용(2004). 위의 책. p.297.

114) 諸槁輒次(1928). 위의 책. p.9985.

115) 諸槁輒次(1928). 위의 책. p.9984.

### (7) 茶焙(다배)

‘차를 만들 때 쓰는 건조기’로 정의되어 있으며 『大漢和辭典』에는 ‘차를 제다할 때 사용하는 焙爐’라고 되어있다.<sup>116)</sup>

### (8) 차갈매

12종의 문헌 중 『우리말 대사전』과 『표준국어 대사전』에만 나오는 용어이며, ‘차를 가루가 되게 하는 멧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차갈매는 순우리말이며 ‘茶磨’와 같은 용어라 생각된다.

### (9) 茶甌(차시루)

12종의 문헌 중 『현대차생활용어』에만 게재된 용어로 ‘날잎(차순)을 찌는 시루’라고 되어 있다. 茶經의 二之具에 ‘甌’<sup>117)</sup>과 같은 용어로 생각된다.

---

116)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4.

117) 김봉건 역(2003). 『다경도설』. 서울: 도서출판 이른아침. p.53.

<표 16 > 차 만드는 도구 용어

용어	정 의	계재문헌	
다검	茶鈴	차를 볶을때 쓰는 금속 그릇	금당
다구	茶籊	다산이 차를 말리는 도구로 쓴 배로의 일종	한다
다구	茶臼	차를 찡는 절구	새, 국
		차를 가는 맷돌	금, 표, 민
		찰절구	우
다라	茶羅	차를 거르는 체	금당
다롱	茶籠	생차(生茶)를 넣어두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금당
다마	茶磨	(고)단차를 가루 낼 때 사용한 것	한다
		다엽(茶葉)을 가는 맷돌	금당
다배	茶焙	차를 만들때 쓰는 건조기	금당
차갈매	茶-	차를 가루가 되게 하는 맷돌. 연다마. 연차마	우, 표
차공대	筇	(고)덩이차를 부수는 도구로 씀	한다
차맷돌	茶磨	찢차잎(찰줄기 뺀 것)을 가는 맷돌. 차갈개	현대
찰시루	茶甌	(옛)날잎(차순)을 찢는 시루	현대
찰절구	茶臼	익힌 차순을 찡는 절구	현대

## 2) 차 끓이는 도구 용어

차를 끓이거나 물을 끓이는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7>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爐(다로)

의미가 계재된 9종의 공통된 뜻을 종합해 보면, '차를 달이는데 쓰는 화로. 또는 가마'라고 되어있다. 『大漢和辭典』에는 '차를 달이는 화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茶爐는 「劉禹錫의 시」와 「倪瓚의 시」에 등장한다.<sup>118)</sup> 茶爐와 같은 뜻이라 할 수 있다.

118) 諸稿轍次(1928). 앞의 책. p.9985. [劉禹錫、浙西李相公述夢浙東元相公酬和詩] 茶爐依綠筍、棊局就紅桃。[倪瓚、送徐子素詩] 垂簾幽閣團雲影、貯火茶爐作雨聲。

## (2) 茶銚(다요)

12종의 문헌 중 『한국茶文化』에만 게재된 용어로 물이나 차를 끓이는 도구로 '두구리 모양의 자루 달린 작은 냄비'라고 정의되어 있다.<sup>119)</sup> 茶銚는 원 감국사의 시에 나오는 용어(水一餅茶一銚)이며, 銚는 냄비인데 역시 적은 가마솥을 뜻한다.<sup>120)</sup> 라고 하였다.

## (3) 茶竈(다조)

12종의 문헌 중 『한국茶文化』에만 있는 용어이며, '단순한 화덕과는 달리 굴뚝이 있거나, 끓이는 일 외의 용도를 겸하도록 되어 있는 이동식 화덕'이라고 되어 있다.<sup>121)</sup> 『大漢和辭典』에는 '차를 끓이는 화덕'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sup>122)</sup>, 『唐書』와 「白居易의 시」와 「陳陶의 시」에 나오고 있는 용어이다.

## (4) 차술·차솥

차술과 차솥은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지나,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서 차술은 '차물을 끓이거나 차를 더는 솥'의 의미로 쓰였고, 『우리말 큰사전』에서 차솥은 '차물을 끓이는 솥'의 의미로 쓰였다. 두 문헌의 공통적인 의미는 '차물을 끓이는 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茶酒煎子(차주전자·차주전자)

'차를 끓이는데 쓰이는 주전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한글맞춤법 개정안(1988)에 의해 차주전자가 옳은 표기라 할 수 있다.

119) 정영선(2002). 앞의 책. p.232.

120) 최계원(2007). 『우리차의 재조명』. 서울: 도서출판 차와 사람. p.260.

121) 정영선(2002). 위의 책. p.274.

122)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2. [唐書、陸龜蒙傳]居松江甫里、不喜興流俗交、雖造門不肯見、不乘馬、升舟設蓬席、束書茶竈筆牀釣具往來、時謂江湖散人。[白居易、偶吟詩]晴教曬藥泥茶竈、閑看科松洗竹林。[陳陶、題紫竹詩]幽香入茶竈、靜翠直碁局。

(6) 차화로

12종의 문헌 중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만 게재된 용어로 '숯불을 피워 차솥이나 탕관을 올려놓고 찻물을 끓이는 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 차화로는 茶爐와 같은 용어라 생각된다.

(7) 찻가마

차솥·찻솥과 같은 의미의 용어이며, '찻물을 끓이는 데 쓰는 솥'으로 정의되어 있다.

<표 17> 차 끓이는 도구 용어

용 어		정 의	게재문헌
다로	茶爐	차를 달이는데 쓰는 화로	새, 국, 우, 금, 표, 민
		(조)차를 끓일 때 불을 담거나 피우는 것	한다
		차를 달이는 가마	금당
		숯불을 피워 차솥이나 탕관을 올려놓고 찻물을 끓이는 도구	우리
다요	茶銚	(조)두구리 모양의 자루 달린 작은 냄비	한다
다조	茶竈	(신)단순한 화덕과는 달리 굴뚝이 있거나, 끓이는 일 외의 용도를 겸하도록 되어 있는 이동식 화덕	한다
차솥	茶-	찻물을 끓이거나 차를 더는 솥	우리
차주전자	茶酒煎子	차를 끓이는데 쓰이는 주전자	새
		차주전자	우, 민
차화로	茶爐	숯불을 피워 차솥이나 탕관을 올려놓고 찻물을 끓이는 도구	우리
찻가마	茶-	찻물을 끓이는데 쓰는 솥	우, 표
찻솥	茶-	찻물을 끓이는 솥	우
차주전자	茶酒煎子	차를 달이는 주전자. 사기, 놋쇠, 은 들로 만든다	우
		차를 끓이는데 쓰이는 주전자	국, 금, 표, 민

### 3) 차 우리는 도구와 관련된 용어

차를 우리거나 점다(點茶)하는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8>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罐(다관·차관)

정의가 내려진 문헌의 공통된 의미를 살펴보면 '차를 우리는(끓이는) 그릇'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茶瓶(다병)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용어이다. 『한국茶文化』에는 고려, 조선, 오늘날로 나누어 茶瓶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다병은 '물이나 술을 담는 용기로 몸체가 단지 모양인 것'으로 정의하였고, 조선의 다병은 '뜨거운 다탕을 담아 잔에 따르는 용기', 오늘날 다병은 '끓인 찻물(茶湯)을 담아두어 여러 손님이 부어 마실 수 있는 부리병'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한국다예』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는 '손잡이가 옆으로 꼭지와 직각을 이룬 상태로 붙어있는 것'으로 정의하여 茶瓶을 차를 우리는 茶罐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茶瓶을 '차를 넣는 독. 항아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용어는 『品茶要錄』 123)에 등장한다. 또한 '瓶'의 의미를 사전<sup>124)</sup>에서 찾아보면 '병, 단지, 항아리'라고 되어 있다. 茶瓶은 차를 우리는 역할을 하는 茶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3) 茶笊(다선·다슬·차슬)

다선은 문헌 2종에 게재되어 있으며, '차사발에 찻가루를 넣고 탕수를 부은 다음 찻가루와 물이 잘 섞이도록 휘젓기 위한 것'으로 정의된다.

123)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4. [品茶要錄]茶瓶光黃。

124) 양성모(1998). 『漢韓大辭典』. 서울: 두산동아. p.1154.

다술은 '본래 이름은 다선이며 말차를 휘저을 때 쓰는 기구로 대통을 가늘게 잘라 만든 것'이라 되어 있다. 말차를 휘저을 다술, 즉 다선(茶筴)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16세기의 "龜峰集"과 송익필의 "家禮考證", "가례증해" 등에서 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다술을 만들어 쓰기 이전 고려시대에 이미 우리만의 독특한 고리茶匙를 썼고, 조선 초에는 사신에게 선물을 줄 정도로 茶匙가 발달하였다.<sup>125)</sup>

차술은 '가루차에 물 부어 휘젓는 둥글게 엮은 술로 정의되어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茶筴을 '말차를 거품 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끝을 가늘게 꼬개 다발지은 것으로 차를 휘젓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26)</sup> 茶筴의 최초의 출전은 『대관다론』(茶筴以筋竹老者爲之)이다.<sup>127)</sup>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다선은 일본 무로마찌 다가야마(高山城主) 성주의 차남인 소세이라는 사람이 창안한 것이라고 한다.<sup>128)</sup>

다선·다술·차술은 같은 용어이며, '가루차를 잘 풀리게 휘젓는 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

#### (4) 茶戍(다술)

'고려도경에 나오는 말로써, 차순가락(茶匙)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茶匙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용어는 『계림유사』에 등장하고 있다.<sup>129)</sup> 결론적으로 茶戍은 茶匙와 동일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

125) 강연숙(2002). 『高麗·朝鮮時代の 末茶 茶碗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전통문화산업학과. p.12.

126)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3.

127) 고세연(1994). 『茶의 美學』. 서울: 도서출판 초의. p.111.

128) 고세연(1994). 위의 책. p.112.

129) 諸槁輒次(1928). 위의 책. p.9982. '茶匙曰 茶戍'

**(5) 茶匙(다시·차시)**

의미가 기재된 문헌 7종의 공통된 뜻은 '찻숟가락' 즉 '차를 떠내는 기구'라고 되어 있다. '차를 타거나 우릴 때 사용하는 작은 숟가락, 찻숟가락'이라고 하며 蔡君謨의 『茶錄』에 나오는 용어이다.<sup>130)</sup>

**(6) 茶沙匙(차사시)**

사전 6종에 기재되어 있으며 '찻숟가락'으로 정의되어 있다. 茶匙와 같은 용어로 생각된다.

**(7) 茶罐(차우리개)**

『현대차생활용어』에만 기재된 용어로 '잎차를 우리는 단지꼴 그릇. 다관'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茶罐의 순우리말로 생각된다.

**(8) 茶則(차척)**

의미가 기재된 문헌 4종에서 '차를 달일 때 차를 뜨는 대나무 숟가락'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육우의 『다경』에는 '則'이라 하여 '차의 양을 재는 숟가락'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茶則과 같은 용어라 생각된다.

**(9) 茶壺(차호)**

12종의 문헌 중 『우리말 대사전』에만 기재된 용어로 '찻잎과 물을 담아 우리는 단지 모양의 그릇'으로 정의되어 있다.

**(10) 찻저르개**

'차를 거르는 그릇'으로 정의되어 있다.

---

130)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2. [蔡君謨·茶錄]茶匙要重、擊拂有力、黃金爲上、人間以銀鐵爲之、竹者經、建茶不取。

**(11) 찻구기**

‘대통에다 총자루를 길게 단 물 뜨개’로 정의되어 있다.

**(12) 찻숟가락**

다서에는 ‘차를 뜨는 여러 가지 숟가락’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전에는 ‘차를 마실 때에 쓰는 작은 숟가락’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찻숟가락의 한자어는 다서에는 ‘茶匙’로 표기되어 있고, 사전에는 ‘茶---’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전류에 수록된 찻숟가락의 한자 표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3) 찻숟갈**

『현대 차생활 용어』에는 ‘잎차숟가락’으로 정의되어 있고, 사전류에는 ‘찻숟가락의 준말 또는 찻숟가락’이라고 되어 있다.

**(14) 찻술**

의미가 기재된 문헌에서 모두 다른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차생활 용어』에는 ‘설탕·커피 따위를 뜨는 작은 찻숟가락’이라고 되어 있고, 『다도학』에는 ‘차뜨개 찻통의 차를 차관에 옮기는 기구’라고 되어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찻숟가락’의 옛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표 18> 차 우리는 도구 용어

용어	정의	계재문헌	
다관	차를 끓여 담는 그릇. 사기·놋쇠·은 따위로 만든 지금의 주전자와 비슷함. ②=차관(茶罐)	금, 표, 민	
	차를 끓여 담는 그릇. 차관(茶罐)	국	
	차관(茶罐)	새	
	차주전자	우	
	차를 우려 따르는 부리병	한다	
	차일을 우려내는 그릇으로 손잡이는 대나무 뿌리 등을 사용해서 따로 꼭지의 뒤편에 연결해서 부착시킨 것	한예, 우리	
다병	(고)물이나 술을 담는 용기로 몸체가 단지 모양인 것 (조)뜨거운 다탕을 담아 잔에 따르는 용기 (오)끓인 찻물(茶湯)을 담아두어 여러 손님이 부어 마실 수 있는 부리병	한다	
	찻물 담는 병	금당	
	손잡이가 옆으로 꼭지와 직각을 이룬 상태로 붙어있는 것	한예, 우리	
다선	분말차를 잘 풀리게 휘젓는 것	금당	
	찻술, 차전이라고도 함. 찻사발에 찻가루를 넣고 탕수를 부은 다음 찻가루와 물이 잘 섞이도록 휘젓기 위한 것	우리	
다술	다술의 본래 이름은 다선 말차를 휘저을 때 쓰는 기구로 대통을 가늘게 잘라 만든 것	한다	
다슬	다시(茶匙)	한다	
	고려도경에 나오는 말로써, 차순가락(茶匙)를 가리키는 말	한예	
다시	차순가락	새, 국, 우, 금, 표, 민	
	차를 떠내는 기구. 산차 다시(茶匙)와 말차 다시(茶匙)가 있음	한다	
차관	찻물을 달이는 그릇. 모양이 주전자 비슷함. 다관(茶罐)	새, 국, 금, 표, 민	
	탕관에서 끓인 물과 잎차를 넣고 융합하여 차의 성분을 우려내는 그릇. 차따르개(茶注), 찻병(茶瓶), 주춘(注春), 차호(茶壺) 등으로 불림	다도	
	차주전자	우	
차사시	차순가락	새, 국, 우, 금, 표, 민	
차순갈	茶--	①'차순갈'의 잘못 ②[북]'차순갈'의 북한어	표
차시	茶匙	차를 떠 때 쓰는 순가락으로 차측(茶測)이라고도 함	우리
차 우리개	茶罐	①잎차를 우려는 단지꼴 그릇 ②다관(백·청자, 분청, 오자, 토기 따위)	현대

차척	茶則	차를 달일때 차를 뜨는 대나무 숟가락	국, 금, 표, 민
차호	茶壺	차잎과 물을 담아 우리는 단지 모양의 그릇	우
차거르개	茶---	차를 거르는 그릇	우, 표
차구기	茶--	대통에다 총자루를 길게 단 물뜨개	현대
차술	茶-	차를 짓는 술	우
차술	茶筴	가루차에 물부어 휘젓는, 둥글게 역은 술	현대
		차사발에 넣은 차가루와 끓인 물을 휘저어서 융합시키는 기구	다도
차술가락	茶匙	차를 뜨는 여러 가지 숟가락	현대
차술가락	茶---	차를 마실때에 쓰는 작은 숟가락. 차사시	새, 국, 우, 금, 표, 민
차술갈	茶匙	일차 숟가락	현대
차술갈	茶-	'차술가락'의 준말	우, 금, 표
		차술가락	새, 국, 민
차술	茶匙	설탕·커피 따위를 뜨는 작은 차술가락	현대
		차뜨개 차통의 차를 차관에 옮기는 기구	다도
차술	茶-	'차술가락'의 옛말	표

#### 4) 차 내는 도구와 관련된 용어

차를 낼 때 쓰이는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9>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菓床(다과상)

의미가 기재된 2종의 문헌에서 공통된 의미를 찾아보면 '손님과 함께 다과를 먹고 차를 마시는 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茶啖床(다담상·차담상)

의미가 기재된 문헌의 공통된 의미를 살펴보면 '손님 대접으로 음식을 차려 내는 교자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다담(茶啖)은 불가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어 놓은 다과(茶果)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려시대는 숭불사상(崇佛思

想)이 민간생활에 깊이 침투되었던 시대로 살생을 금지하고 육식을 절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병과류(餅菓類)가 음다(飲茶)의 풍습과 함께 성행하였으며, 손님을 대접할 때도 차와 과점류(果飮類)를 대접하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차를 마시는 풍습이 크게 쇠퇴하였으며, 손님접대도 음청류와 술을 위주로 하는 교자상차림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교자상을 다담상이라고도 한다.

### (3) 茶盤(다반·차반·찻반)

茶盤은 다반·차반·찻반으로도 읽을 수 있으며, 문헌에 기재된 의미상 다반·차반·찻반은 모두 같은 용어라 할 수 있다. ‘찻그릇 따위를 올려놓거나 담는 조그마한 쟁반으로 손님께 차나 다과를 담아 나를 때 쓰이는 도구’이다. 이를 『大漢和辭典』에는 ‘차그릇을 올려놓는 접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차반과 찻반은 ‘사이시’의 유무와 관계되며, 차반보다는 찻반으로 읽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차반으로 읽으면 ‘예물로 가져가는 맛있는 음식’이란 뜻인 茶飯과 혼동되기 때문이다.

### (4) 茶床(다상·차상·찻상)

다상은 12종의 문헌 중 『한국茶文化』에만 기재되어 있는 용어이며, ‘차를 끓이고 마실 때 쓰이는 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차상은 ‘찻상의 잘못된 표현’ 또는 ‘차와 다식 따위를 올려놓는 상’이라고 되어 있다.

찻상은 ‘차를 마실 때 찻잔이나 찻종을 올려놓는 상’ 또는 ‘차를 우릴 때 필요한 모든 다기를 올려놓는 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세 용어의 의미를 고찰해 본 결과, 다상·차상·찻상은 ‘차를 끓이고 마실 때 쓰이는 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 (5) 茶食器(다식기)

12종의 문헌 중 『현대 차생활 용어』에만 나타난 용어로 '다식을 담은 여러 가지 그릇'으로 설명되어 있다.

### (6) 茶亭(다정)

茶亭은 '서 있는 높이의 차 탁자 또는 이동식 간이정자'의 의미와 '차 마시는 집'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

茶亭은 관아나 개인들이 경관이 수려한 곳에 정자를 짓기고 하고 때로는 시회(詩會)나 문회(文會) 등의 모임을 가지기도 하던 공간이었다. 고려 의종 13년 3월에는 왕이 현화사(玄化寺)에 행차하니 동서양원(兩院)의 스님들이 각기 다정을 설치하고 어가를 맞이함에 그 사치스러움이 대단했다. 이 기록으로 다정은 문벌있는 가문이나 사찰에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131)</sup> 『大漢和辭典』에는 '차를 파는 가게' 또는 '다점'<sup>132)</sup>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近古史談』에 다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7) 茶亭子(다정자)

'다구를 벌려 놓은 탁자의 의미'와 '임금의 진찬 때에 쓰는 기구'의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금의 진찬 때에 쓰는 기구'로 '다구를 벌려 놓은 탁자'로 해석할 수 있다.

### (8) 茶卓(다탁·차탁)

의미가 게재된 문헌의 공통된 의미는 '차그릇을 올려놓고 차를 따라 먹는 탁자' 즉 '의자에 앉거나 서서 차를 마시는 다리가 높은 상'으로 되어있다. '卓'자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높다, 서다, 세우다, 책상, 탁자<sup>133)</sup>의 의미

131) 유건집(2007). 앞의 책. p.277.

132) 諸稿轍次(1928). 앞의 책. p.9983 茶店[近古史談、豐篇、關白誅利休附記]諾而往、則茶亭之前。

133) 양성모(1998). 『漢韓大辭典』. 서울: 두산동아. p.274.

를 가지고 있으므로, 茶卓은 '차를 따라 마시는 탁자로 다리가 높은 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9) 茶托(다탁·차탁)**

'차잔을 받치는 데 쓰는 다구'로 차잔받침이란 뜻도 있고, '차잔을 받쳐 드는 받침'이라는 뜻도 있다.

**(10) 茶布(다포·차포)**

문헌 고찰 결과 다포와 차포는 같은 의미라 여겨지며, '차를 내는 그릇을 덮거나 그릇아래 까는 천'으로 정의할 수 있다.

**(11) 차받침**

'물에 우린 차잎을 걸러낼 때 받치는 물건'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12) 차잔받침**

'차잔을 받치는 그릇'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용어의 유래는 아래와 같이 전한다. 당나라 때 촉(蜀, 현재의 四川省)나라의 재상인 최령(崔寧)의 딸이 차를 마실 때 차잔이 뜨거워서 손가락이 데는 것을 근심하여 접시를 들고 밀랍을 녹여서 잔굽의 대·소(大小)에 따라 모양을 뜬 다음 둥글게 띠를 두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한다. 차잔받침의 명칭은 차탁(茶托), 차탁자(茶托子), 차선(茶船)이라고 하였다.<sup>134)</sup>

**(13) 茶盤(차쟁반)**

'다구를 정돈하여 두는 도구용의 쟁반과 차잔을 나르기 위한 쟁반'으로 정의할 수 있다.

---

134) 김명배(1998). 『茶道學』. 서울: 학문사. p.144.

<표 19> 차 내는 도구 용어

용어		정의	계재문헌
다과상	茶菓床	차와 과자를 올려놓는 상	현대
		손님과 함께 다과를 먹고 차를 마시는 상	한다
다담상	茶啖床	손님 대접으로 음식을 차려내는 교자상. 차담상	새, 국, 금, 민
		①차를 마시려고 다식과 찻잔을 놓아 낸 상 ②손님 대접으로 음식을 차린 상	우
		①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차린 상 ②[불]=다담(茶啖)	표
		우리나라에만 있으며 요즘엔 주안상(酒案床)이 되고 말았다	금당
다반	茶盤	찾그릇 따위를 올려 놓거나 담는 조그마한 쟁반. 차반(茶盤)	새, 국
		찾그릇을 담는 예반. 차반	금, 민, 금당
		손님께 차나 다과를 담아 나를 때 쓰는 것	한다
다상	茶床	차를 끓이고 마실 때 쓰이는 상	한다
다식기	茶食器	다식을 담는 여러 가지 그릇	현대
다정	茶亭	①진찬 때에 쓰던 기구의 하나. 은으로 만든 다관과 찻종을 올려 임금의 자리의 오른쪽에 두었다 ②다정자 ③간단한 다방	새, 국, 우, 민
		①간단한 다방 ②다정자(茶亭子)	금
		①간단한 다방 ②다정자 ③[역]=다정자	표
		차 마시는 길잡이집 (옛: 喫茶室)	현대
		서 있는 높이의 차탁자 또는 이동식 간이정자	한다
다정자	茶亭子	다구(茶具)를 쪽 벌여 놓은 탁자. 다정(茶亭)	새, 국
		찻세간을 쪽 벌여 놓는 탁자	우
		①다구(茶具)를 벌여 놓는 탁자 ②[역]임금의 진찬(進饌)때에 쓰는 기구. 다정(茶亭)	금, 표
		다과(茶菓)를 올려 놓는 탁자(卓子)	
다탁	茶卓	찾그릇을 올려 놓고 차를 따라 먹는 탁자(卓子). 다정자(茶亭子)	새, 국, 민
		차탁	우
		차를 마실 때에 사용하는 탁자	금, 표
		의자에 앉거나 서서 차를 마시는 다리가 높은 상	한다
다탁	茶托	찻잔을 받치는 데 쓰는 다구로 찻잔받침이라고 함	우리

다포	茶布	①차를 내는 그릇을 덮거나, 그릇 아래 까는 천 따위 ②행주를 쓰는 위생 천 조각	현대
		다관에 까는 삼베, 무명 등의 천	한대, 우리
차담상	茶啖床	[불]=다담상	새, 국, 우, 금, 표, 민
차반	茶盤	차그릇을 담는 조그마한 예반. 다반(茶盤)	새, 국, 민
		차반	우
		다반	금, 표
		①차쟁반 ②차소반(다반)	현대
차받침	茶--	물에 우린 차잎을 걸러낼 때 받치는 물건	우, 표
차상	茶床	차상	우
		차상의 잘못	표
		차와 다식 따위를 올려놓는 상 (또는 그 차자리)	현대
차탁	茶托	차잔을 받쳐 드는 반	우, 금, 표
		차잔을 받쳐 드는 반(盤). 중국 명대의 주석 차탁이 최고라 함	새, 국, 민
		차잔받침의 명칭	다도
차탁	茶卓	차를 마실 때 차그릇을 벌여 놓는 탁자	우, 민
		다탁(茶卓)	표
차탁자	茶托子	차잔받침의 명칭	다도
차포	茶布	다관에 까는 천으로 삼베 무명 등으로 만듦	우리
차반	茶盤	차그릇을 담는 조그마한 예반	우
		차반	금
차상	茶床	차잔이나 차상을 올려 두는 상	우
		차를 마실때에 차잔이나 차종을 올려놓는 상	표
		차를 우릴때 필요한 모든 다기를 올려 놓은 상	우리
차잔받침	茶托	당나라 때 촉(蜀, 현재의 四川省)나라의 재상인 최령(崔寧)의 딸이 차를 마실 때 차잔이 뜨거워서 손가락이 데는 것을 근심하여 접시를 들고 밀랍을 녹여서 잔굽의 대·소(大小)에 따라 모양을 뜬 다음 둥글게 띠를 두른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한다. 차잔받침의 명칭은 차탁(茶托), 차탁자(茶托子), 차선(茶船)이라고 하였다.	다도
차잔받침	茶盞--	차잔을 받치는 그릇	우
차쟁반	茶盤	다구를 정돈하여 두는 도구용의 쟁반과 차잔을 나르기 위한 쟁반	다도

## 5) 차 마시는 도구와 관련된 용어

차를 마실 때 쓰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0>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甌(다구)

차잔의 하나로 '입과 밑의 넓이가 비슷하고 굽이 높으며 수직에 가까운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茶甌는 말차를 마시기 위한 도구로써 다완과 역할이 같다. 형태는 전과 밑의 지름이 비슷하고, 굽은 높으며 수직으로 올라오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sup>135)</sup> 『大漢和辭典』에는 '차를 끓이는 작은 술'<sup>136)</sup>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李華의 시」에 나오는 용어이다.

### (2) 茶杯(다배)

'술잔처럼 뚜껑이 없는 작은 차잔으로 조선 초부터 쓰였으며 명배(茗盃)라고도 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를 『大漢和辭典』에는 '차를 마시는 다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의미로는 「翁卷의 詩」에 등장하고 있다.<sup>137)</sup>

### (3) 茶椀(다완·차완)

다완은 의미가 기재된 문헌에서 '일상적으로 쓰였던 그릇의 일종으로 잔울이 높지 않고 두터운 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차완은 '차종(茶鐘)의 한 가지로 조금 크고 뚜껑이 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차완은 뚜껑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류의 '조금 크고 뚜껑이 있음'의 정의는 잘못 내려진 것이라 생각된다.

135) 박홍관(2005). "韓國 茶道具 名稱 試考". 『한국국제차문화학회지 통권1권』. p.115.

136)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0. [李華, 雲母泉詩] 澤滋樂畦茂、氣梁茶甌聲。

137) 諸槁輒次(1928). 위의 책. p.9984. [翁卷、暮春病歸詩] 昨日林僧至、茶杯始一拈。

#### (4) 茶碗(다완)

'가루차를 섞어 마실 때 쓰는 입언저리가 넓고 크기가 크며 밑이 좁은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茶碗은 말차를 마시기 위한 차도구로 전이 넓고 크며 밑이 좁고 크기가 큰 그릇이다. 일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완으로서의 최대 입지름은 15cm 정도로 한정짓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다완의 전지름을 일본보다는 크게 설정하고 있고 종류 또한 작은 백자 다완부터 전이 넓고 큰 분청다완까지 일본에 비하여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점은 다완이 대륙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sup>138)</sup>

茶碗의 碗字 이외에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碗'과 '盥'의 두자가 있는데, 모두 주발을 뜻하는 '완'자이며 茶碗은 입(口)이 넓고 굽(底)이 좁은 대접모양의 찻그릇을 뜻한다.

碗이나 碗은 본래 밥그릇이나 국그릇 등도 일컬었으므로 茶碗은 음용 찻그릇이 아니더라도 찻물을 우리는 사발이거나 귀때가 달린 점다그릇도 이 범주에 넣기도 한다.<sup>139)</sup> 고전에서 살펴보면 1500년까지는 盞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거의 중국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鉢盂에서 시작되어 鉢과 大椀(넓은그릇)에서 甌와 碗으로 변하게 된다. 당나라 때에 와서는 碗이라 쓰고 당 말부터는 蘇廙의 『十六湯品』에서 甌와 盞이 사용되고 있었고 大壯湯에서 點茶가 시작되었다.<sup>140)</sup>

#### (5) 茶鐘(다종·차종)

다종과 차종은 같은 의미의 용어라 생각되어진다.

의미가 기재된 문헌의 공통된 의미를 살펴보면 '예전에 차를 따라 마시던 그릇으로 꼭지 달린 뚜껑이 있고, 잔대(盞臺)의 굽이 펍 높은 찻잔'이라고 되어있다. 생긴 모양은 사원(寺院)의 범종과 모습이 같고 크기만 작게 축소시켜

138) 박홍관(2005). "韓國 茶道具 名稱 試考". 『한국국제차문화학회지 통권1권』. p.115.

139) 강연숙(2002). 『高麗·朝鮮時代の 末茶 茶碗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전통문화산업학과. p.6.

140) 강연숙(2006). 위의 책. p.6.

서 만든 것이다.

차종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차종의 북한어’라고 정의되어 있다. 북한의 언어를 다룬 『조선말대사전』에서 차종은 ‘차를 따라 마시는 종지’라고 되어있다.<sup>141)</sup> 실제로 북한사회에는 ‘사이시’을 쓰지 않으므로 차종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大漢和辭典』에는 茶鐘의 의미를 ‘茶碗과 같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현대는 茶碗과 茶鐘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용어는 『桃花扇』에 나오는 용어이다.<sup>142)</sup>

#### (6) 차보시기 · 찻보시기

의미가 기재된 문헌의 공통 의미를 보면 ‘종지보다 큰 것으로 차를 따라 마시는 보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 (7) 茶沙鉢(찻사발)

‘아래는 좁고 위는 넓게 만든 가루찻잔으로 아주 큰 찻잔’을 말한다. 茶碗과 같은 의미의 용어라 생각된다. 그러나 찻사발이라는 용어보다는 茶碗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 (8) 茶鐘(차종지 · 찻종지 · 찻종)

세 용어는 모두 ‘차를 따라 마시는 종지’로 정의할 수 있다. 사원의 범종을 거꾸로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며 바닥부터 올라온 모습이 입이 닿는 부분에 약간 벌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잔의 지름에 변화가 없다. 크기는 지름이 4~5cm 정도이고, 높이는 약 6~7cm정도인 것을 말한다.<sup>143)</sup>

---

141)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1992). 앞의 책. p.470.

142)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3. [桃花扇、投轅]捧茶鐘於地下。

143) 박홍관(2005). 앞의 책. p.114.

<표 20> 차 마시는 도구 용어

용어		정의	계재문헌
다구	茶甌	찾잔, 입과 밑의 넓이가 비슷하고 굽이 높으며 수직으로 생긴 것	한예
다배	茶杯	(조)술잔처럼 뚜껑이 없는 작은 찾잔. 조선초부터 쓰였으며 명배(茗盃)라고도 함	한다
다완	茶碗	(조)일상적으로 쓰이는 찾잔	한다
		(고)일상에서 함께 쓰였던 그릇의 일종으로 잔울이 높지 않고 두터운 편	우리
다완	茶碗	잔의 입이 넓고 크며 밑이 좁고 크기가 큰 것	한예
		가루차를 섞어 마실 때 쓰는 입언저리가 넓고 크기가 크며 밑이 좁은 것	우리
다종	茶鐘	①찾종 ②[예전에]차를 따라 마시던 그릇. 잔에는 꼭지 달린 뚜껑이 있고, 잔대(臺臺)의 굽이 펴 높았으며, 사기릇은 따위로 만들었음	새, 국, 우, 금, 민
		찾종	표
		(조)크지 않는 잔으로 뚜껑이 있어 차를 들고 갈 때 향기가 달아나지 않고 식지 않음	한다
		사원(寺院)의 범종과 모습이 같고 크기만 작게 축소시켜서 만든 것	한예
차보시기	茶--	차물을 따라 마시는 보시기	표
차완	茶碗	차종(茶鐘)의 한가지. 조금 크고 뚜껑이 있음	새, 국
		차종(茶鐘)의 한 가지. 조금 크고 뚜껑이 있음	금, 표, 민
차잔	茶盞	차를 따라 마시는 데 쓰는 잔. 차종보다는 운두가 낮고 아가리가 벌어졌음	새, 국
		①'차잔'의 잘못 ②[북]차잔의 북한어	표
		차잔(茶盞)	우, 민
차종	茶鐘	차를 따라 마시는 종지. 다종(茶鐘)	새
		차종	우, 민
		①'차종'의 잘못 ②[북]차종의 북한어	표
차종지	茶鐘-	[북]차종지의 북한어	표
차보시기	茶甫兒	차를 마시는 보시기. 종지보다 큼(일차, 엽차용의 청·백자 분청, 오자 따위)	현대
차사발	茶沙鉢	아래는 좁고 위는 넓게 만든 가루차잔	현대
		(조)아주 큰 찾잔. 말차를 점다하여 마셨겠으나 다탕도 담아 마셨을 것으로 짐작	한다

		발우같이 생긴 가루찻잔	우리
찻잔	茶盞	차를 담아 마시는 잔. 찻종보다는 운두가 낮고 아가리가 벌어졌음	우, 국, 표, 민
		차를 담아 마시는 잔	금
		①차를 마시는 그릇 ②차를 마시는 작은 잔 ③잔, 종지, 보시기 따위의 통틀음(청·백자, 분청, 오자, 옥돌 따위)	현대
		차를 마시는 작은 잔이며 찻잔·차종지라고도 부른다	금당
		차를 따라 마실 때 쓰는 그릇	한예, 우리
찻종	茶種	차를 담아 마시는 종지. 다종(茶鐘)	국, 우, 금, 표, 민
		차를 따라 마시는 종지, 잎차용(울의 아래턱이 둔한 모로 된 청·백자, 분청, 오자, 옥돌 따위)	현대
		찻잔에 굽이 있어 뒤집어 놓으면 종 모양이 되는 잔	우리
찻종지	茶--	찻종	우, 표

## 6) 차 정리도구와 관련된 용어

차를 마신 후 정리하는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1>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巾(다건·차수건·차행주)

다건·차수건·차행주는 모두 같은 의미의 용어라 할 수 있다.

이 세 용어의 공통된 의미를 정의하면, '다구 일습을 사용할 때마다 닦고 걸레질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大漢和辭典』에는 '다완을 닦는 차행주'로 정의되어 있다.<sup>144)</sup>

### (2) 茶菓襪(다과보)

12종의 문헌 중 『현대차생활용어』에만 있는 용어로 '다과를 덮는 보자기, 다식보'라고 되어있다.

144) 諸稿輒次(1928). 앞의 책. p.9981.

**(3) 茶床褌(다상보·차상보)**

‘다관이나 다과상을 덮는 덮개 보’라고 정의되어 있다.

**(4) 茶食褌(다식보)**

‘다식그릇을 덮는 보자기, 다과보’라고 정의되어 있다.

**(5) 拭茶布(식다포)**

차 그릇을 닦는 행주를 말한다. 여름에는 삼베(麻布), 겨울에는 무명베가 좋다. 이 용어는 초의스님의 ‘다신전’에는 ‘式盞布’<sup>145)</sup>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차마시기 전후에 잔을 닦는 행주를 말한다.

**(6) 차급개**

현대에 생겨난 용어이며 ‘차찌기기 급개’로 정의할 수 있다.

**(7) 茶床布(차상포)**

12종의 문헌 중 『한국다예』에만 게재된 용어로 ‘다구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덮어두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사전의 의미상 褌(포대기 보)와 布(식물의 섬유로 짠 베, 피륙의 총칭)는 비슷한 뜻을 확인할 수 있으며, 茶床褌와 같은 의미라 생각된다.

---

145) 윤경혁(1999). 『차문화고전』. 서울: 弘益齋. p.284.

<표 21> 차 정리 도구 용어

용 어		정 의	계재문헌
다건	茶巾	물기를 닦는 행주	한대
다과보	茶菓褙	①다과를 덮는 보자기 ②다식보	현대
다상보	茶床褙	다관이나 다과상을 덮는 덮개보	한대
다식보	茶食褙	①다식그릇을 덮는 보자기 ②다과보	현대
식다포	拭茶布	차 그릇을 닦는 행주를 말한다. 여름에는 삼베(麻布), 겨울에는 무명베가 좋다.	금당
차긋개	茶--	차찌꺼기 긋개	현대
차상보	茶床褙	차상을 덮는 보자기	현대
차수건	茶巾	다관과 찻잔 등 다구 일습을 사용할 때마다 닦고 걸레질하는 것	한예
		찻잔 등 다구의 물기를 닦는 마른행주	우리
차행주	차--	다구를 닦는 행주	우
찻상포	茶床布	다구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덮어두는 것	한예

## 7) 차 보관도구와 관련된 용어

차 또는 차 보관하는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2>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菓櫛(다과장)

『표준국어대사전』에만 계재된 용어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로 ‘다과를 넣어 두는 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의 언어를 다룬 『조선말 대사전』에는 ‘다과를 넣어 두는 장<sup>146)</sup>’으로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茶菓櫛이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는 것 같다.

### (2) 茶菓函(다과함)

‘사탕이나 과자 따위를 넣어 두는 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146) 사회과학원언어학 연구소(2002). 앞의 책. p.668.

### (3) 茶籩(다약)

‘차를 포장할 때 쓰는 갈대 잎사귀. 죽순 껍질도 다약이라고 함. 초의스님은 탁포(擻包)라고 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箒’의 속자이다.

### (4) 茶櫪(다장·차장·차장)

‘다장’으로 표기된 문헌 1종, ‘차장’으로 표기된 문헌 5종, ‘차장’으로 표기된 문헌 5종이 있으나 세 용어는 모두 같은 용어라 생각된다.

이 용어들의 공통된 의미는 ‘차도구와 다과(茶菓)를 넣어 보관하는 장(櫪)’으로 정의할 수 있다.

### (5) 茶盒(다합·차합)

‘차를 담은 합그릇’로 정의되어 있으며, 곧 덮개나 뚜껑 딸린 그릇으로 생각할 수 있다.

### (6) 茶壺(다호)

의미가 기재된 8종 중 4종은 ‘차를 담아 두는 항아리 같은 그릇’이라고 되어 있고, 2종은 ‘차호’라고 정의되어 있다. 나머지 2종은 茶罐의 의미인 ‘손잡이를 꼭지의 뒤쪽 반대 방향에 상하로 접촉시킨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를 『大漢和辭典』에서 찾아보면 ‘차를 넣는 단지, 차단지’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明史稿와 考槃餘事に 나오는 용어이다.<sup>147)</sup> ‘壺’자의 자해를 사전에서 보면 ‘병, 음료를 넣는 그릇’<sup>148)</sup>으로 되어 있으며 茶壺는 ‘차를 담아 두는 병, 차병’으로 되어 있다.<sup>149)</sup> 문맥상으로는 ‘차를 담아 두는 병’이란 의미가 차 보관그릇인지 차 우림그릇인지 알 수가 없으나, 고대에는 차호, 다호 모두 다관(茶罐)의 의미로 쓰였다. 문헌고찰 결과 현대는 다호와 차호의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 본

147) 諸稿轍次(1928). 앞의 책. p.9981. [明史稿]恭妃遣內使持金茶壺遺其私家。[考槃餘事、茶具]茶注、茶壺。

148) 양성모(1998). 앞의 책. p.409.

149) 양성모(1998). 위의 책. p.409.

논문에는 사전류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다호가 '차 보관 도구'의 영역으로 분류되었지만, 『한국다예』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는 茶罐의 일종으로 정의되어 있다. 罐, 罐, 壺, 瓶 등이 같은 뜻으로 쓰인다.

#### (7) 茶箱子(차상자)

'차를 간직하는 네모로 길게 짠 상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 (8) 茶桶(차통)

의미가 기재된 문헌의 공통된 의미를 보면 '차를 간직하는 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는 '차통'의 의미를 '차호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차통과 차호는 서로 다른 도구이며 쓰이는 용도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고래에는 제다한 차를 저장해 놓기 위한 차 향아리의 용도로 쓰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의미로는 『庭訓往來、十月』에 등장하고 있다.<sup>150)</sup>

#### (9) 茶缸(차항아리)

'차를 저장하는 조그마한 항아리'라고 정의되어 있다.

#### (10) 茶封紙(차봉지)

'차를 싸서 넣은 종이 주머니'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1회용 티백을 싼 종이나 피라미드백을 의미하는 용어와 같다.

#### (11) 茶筥-(차술골)

현대의 차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차술을 썬 놓는 사기 뭉치'라고 정의되어 있다.

---

150) 諸稿轍次(1928). 앞의 책. p.9984. [庭訓往來、十月]茶桶。

## (12) 茶笕桶(차솔통)

현대의 차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차솔을 넣어 간직하는 둥근 통'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표 22> 차 보관 도구 용어

용어	정 의	계재문헌
다과장	茶菓櫛 [북]다과를 넣어 두는 장	표
다과함	茶菓函 사탕이나 과자 따위를 넣어 두는 함	표
다약	茶筭 차를 포장할 때 쓰는 갈대 잎사귀. 죽순 껍질도 다약이라고 함. 초의스님은 탁포(擲包)라고 했음	금당
다장	茶櫛 차도구와 다과(茶菓)를 간직하는 장(櫛)	금당
다함	茶盒 (조)차를 넣은 그릇	한다
다협	茶篋 (조)대오리로 결어서 만든 4각 상자	한다
다호	茶壺 차를 담아 두는 단지·항아리 같은 그릇	국, 민
	차호	금, 표, 금당
	차호	우
	손잡이가 꼭지의 뒷쪽 반대 방향에 상하로 접촉시킨 것	한예, 우리
차상자	茶箱子 차를 간직하는 네모로 길게 짠 상자	현대
차싸개	焙籠 대꺾질로 엮은 싸개	다도
차장	茶櫛 찻그릇이나 과일 등을 넣어 두는 장	새, 국
	차장	우, 민
	①'차장'의 잘못 ②[북]'차장'의 북한어	표
차통	茶桶 [북]차를 담는 통	표
	차통	현대
	차의 향과 맛을 잃지 않게 보관하는 그릇. 차나눔그릇 혹은 차호(茶壺)라고 함	우리
차함	茶盒 차를 담는 함	우, 표, 민
차항아리	茶缸 (옛)차를 저장하는 조그마한 항아리	현대
차봉지	茶封紙 차를 싸서 넣은 종이 주머니. 뜨거운 물에 담가 우려내어 마시도록 되어 있다	우
차솔골	茶笕- 차솔을 썬 놓는 사기 뭉치	현대
차솔통	茶笕桶 차솔을 넣어 간직하는 둥근통	현대
차장	茶櫛 찻그릇이나 과일 따위를 넣어두는 자그마한 장	우, 금, 민
	차장	금, 표
	포장차 또는 차 세간을 간수하는 장(소비자용 장)	현대

## 8) 기타세간과 관련된 용어

차세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3>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茶具(다구·차구)

의미가 기재된 문헌의 공통적 의미는, '차를 끓여 마시는 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茶具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59년 서한시대 왕포의 『동약』이다. 『동약』은 노비 매매 문서로서 노비가 해야 할 일을 규정한 계약문서이다. 그 계약 문서 내에 "무양에 가서 차를 사고, 차를 끓이는 차도구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武陽賣茶 烹茶盡具)"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차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차가 이미 기원전에도 매매되었고, 차를 끓이는 전문도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짧지만 중요한 문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기가 아닌 다구라는 단어가 쓰였고, 烹茶다음에茶具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차를 마시는데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1)</sup> 육우는 분명하게 다기와 다구를 구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기와 다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현대에서茶具는 '차를 끓여 마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구와 차구는 문헌 고찰결과 '차'와 '다'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용어임을 알 수 있다.

### (2)茶器(다기·차기)

茶器는 다기로도 읽고 차기로도 읽히며,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차를 우리거나 마시는 그릇 둘째, 부처 앞에 맑은 물을 떠 놓는 그릇 셋째, 차제구로 나눌 수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차를 마시는 도구, 다완, 주전자, 다구, 다도구로 정의되어 있다. 茶器는 『封氏見聞記의 飲茶』 조와 「白居易의 睡後茶興憶楊同州詩」, 「翁卷의 贈趙靈秀詩」, 『宗史의 禮志』 등에 나오는 용어이다.<sup>152)</sup>

151) 송해경. "다구도찬에 나오는 호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차문화학회지』. 통권 제1권. p.155.

152)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1. [封氏見聞記、飲茶]手執茶器、口通茶名。[白居易、睡後茶

### (3) 茶擔(다담)

'다구를 포함한 찻짐' 곧 행담(行擔)으로 정의할 수 있다.

### (4) 茶食板(다식판)

의미가 기재된 문헌의 공통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식을 박아내는 틀로 길쭉하고 단단한 널조각이 위아래 짝으로 된 것과, 단단한 조각에 동글납작한 구멍을 파낸 것이 있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식판의 기원은 육우 다경의 '規'에서 출발한 것이라 보이며, 현대 쓰이고 있는 다식판은 다경에 적혀 있는 '본'보다는 상당히 복잡하여, 후대의 것, 곧 송대 무렵의 것이라고 생각된다.<sup>153)</sup>

### (5) 茶諸具(다제구·차제구)

'차'와 '다'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용어라 생각되어진다.

차를 달여 마시는 데 쓰이는 제구로 차관(茶罐)·찰종·찰숟가락 등의 찻세간을 이르는 말이다.

### (6) 茶板(다판·차판)

다판은 『한국茶文化』에서 '여러 가지 다구를 다 올려놓고 찻일을 하는 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차판은 『현대차생활용어』에서 '차를 우리거나 탈 때에 받침으로 쓰는 두툼고 널찍한 널빤지'로 되어 있다.

두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이지만, 최근 들어 '차판'이라는 용어는 다른 뜻으로도 쓰이므로, '다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茶板'은 『大漢和辭典』에는 '사원에서 차를 마시는 모임에 두드리는 판'<sup>154)</sup>

---

興憶楊同州詩]此處置繩牀、傍邊洗茶器。[翁卷、贈趙靈秀詩]一軸黃庭看下壓、詩囊茶器每隨身。[宗史、禮志]是日賜茶器名果。

153) 모로오까 다모스 저. 김명배 역(1991). 『조선의 차와 선』. 서울: 보림사. p.109.

154)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4. [沈與求、石壁寺詩]秀色可餐吾事辦、粥魚茶板莫相誇。

으로 되어 있으며, 「沈與求의 詩」에 나오는 용어이다. 고래의 뜻과 현대의 뜻이 다르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차그릇·찾그릇

차그릇과 찾그릇은 같은 용어로 생각되지만, 문헌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차그릇은 『새우리말 큰사전』과 『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용어로 ‘차를 끓여 마시는 데 쓰이는 기구. 차구(茶具). 차도구’라 정의되어 있으며, 찾그릇은 『한국茶文化』에 나오는 용어로 ‘차를 담아 마시는 찻잔 종류’라고 되어 있다.

#### (8) 茶道具(차도구)

‘차그릇, 찻세간, 찻그릇, 찻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연모’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의미가 쓰이고 있으나, 차도구는 ‘찻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연모’로 정의할 수 있다.

#### (9) 茶生活(차살림)

문헌고찰 결과 ‘음다생활’의 줄인 말로 ‘한집안의 찻일과 차세간을 꾸려가는 살림살이’로 정의할 수 있다.

#### (10) 찻세간

‘차를 달여 마시는데 쓰는 갖가지 기구. 찻주전자, 찻그릇, 다반’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23> 기타세간과 관련된 용어

용어		정의	계재문헌
다구	茶具	차제구(茶諸具)	새, 국, 금, 표, 민
		차세간	우
		①차기구 ②차용구 ③차연장 차를 끓여 마시는 도구	현대 우리
다기	茶器	부처 앞에 맑은 물을 떠 놓는 그릇	새, 국, 민
		①= 차제구(茶諸具) ②[불]부처 앞에 맑은 물을 떠 놓는 그릇	금, 표
		①차그릇 ②[불]부처 앞에 맑은 물을 떠다 놓는 그릇	우
		①차 우리거나 마시는 그릇 ②부처앞에 맑은 물을 떠 놓는 그릇 ③차제구	현대
		불교 의례 때 부처께 올리는 찻잔	한다
다담	茶擔	다구를 포함한 찻짐	한다
다식판	茶食板	다식을 박아내는 틀. 길쭉하고 단단한 널조각이 위아래 짝으로 된 것과, 단단한 조각에 동글납작한 구멍을 파낸 것이 있음. 모양은 원형 외에 사각·육각 등도 있음	새, 우, 국, 표, 민
		다식을 박아내는 틀	금, 현대
		차를 마실 때 쓰는 과자를 만드는 떡판	한다
다제구	茶諸具	차세간	우
		차제구	표
다판	茶板	여러 가지 다구를 다 올려놓고 찻일을 하는 상으로 명주가 씌	한다
차구	茶具	차제구(茶諸具)	새, 국, 금, 표, 민
		다구	우
차그릇	茶--	차를 끓여 마시는 데 쓰이는 기구. 차구(茶具), 차도구	새, 국
차기	茶器	①차제구 ②가루로 된 차를 담은 사기그릇·칠기(漆器)·금속기구 등	새, 국, 금, 표, 민
		①차그릇 ②[불]다기	우
차도구	茶道具	차그릇	새
		차세간	우
		차그릇	국
		차제구(茶諸具)의 복한어	표
		①찻일(茶事)에 쓰이는 여러 가지 연장 ②다기	현대
차살림	茶生活	①한집의 찻일과 차세간을 꾸려가는 일 ②차세간	현대
차제구	茶諸具	차를 달이어 마시는 데 쓰는 제구. 곧 차관(茶罐)·차종·차순가락 등. 다구(茶具). 차기(茶器)	새, 국, 금, 표, 민
		①차살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세간 ②다기	현대
		차세간	우
차판	茶板	차를 우리거나 탈 때에 받침으로 쓰는 두텁고 널찍한 널빤지	현대
차그릇	茶--	차제구	표
차세간	茶--	차를 달이어 마시는데 쓰는 갖가지 기구. 찻주전자, 차그릇, 찻반	우

## 5. 기법 · 양식과 관련되는 용어

차를 우려 마실 때 필요한 행위와 차자리에서 대화와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 1) 언어와 관련되는 용어

차자리에서 대화와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4>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談(다담)

의미가 기재된 문헌에서 공통된 의미를 찾아보면 '차자리의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연어(軟語), 다화(茶話), 청화(淸話)'라고도 한다.

#### (2) 茶飯常談(다반상담)

12종의 문헌 중 『표준국어대사전』에만 기재된 용어로 '차를 마시고 먹으면서 하는 말이라는 뜻으로 늘 하는 정겨운 말을 이른다.

#### (3) 茶詩(다시 · 차시)

茶詩는 다시로도 읽히고 차시로도 읽히며 차를 소재로 하거나 飲茶生活 諸般을 읊은 시로 韓(漢)詩와 자유시로 정의할 수 있다.

#### (4) 茶話(다화 · 차이야기)

다화와 차이야기의 한자어는 모두 '茶話'이다. '차를 마시다가 하는 이야기'란 뜻으로 茶談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용어이다.

『大漢和辭典』에도 '차를 마시다가 하는 이야기'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용어는 「方岳의 시」와 「耶律楚材의 시」에 등장하고 있다.<sup>155)</sup>

155)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5. [方岳、入局詩]茶話略無塵土雜、荷香剩有水風兼。[耶律楚

<표 24> 언어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게재문헌
다담	茶談	다화	우, 표
		①차자리의 담론 ②차 마시며 하는 담화 ③차에 얽힌 이야기	현대
		차자리의 이야기. 연어(軟語), 다화(茶話), 청화(淸話)라고도 함	한다
다반상담	茶飯常談	차를 마시고 먹으면서 하는 말이라는 뜻으로 늘 하는 정겨운 말을 이르는 말	표
다시	茶詩	①차에 관한 시문 ②차일을 들먹이는 시문	현대
다화	茶話	차를 마시며 하는 이야기	새, 국, 우, 금, 표, 민
차시	茶詩	차를 소재로 하거나 차를 마시고 드는 기분을 읊은 시	우
차이야기	茶話	①차자리의 대화 ②가벼운 대화	현대

## 2) 행동과 관련된 용어

차를 우릴 때 필요한 행위와 관련된 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5>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供(다공)

‘불가에서 차공양을 이르는 말로 차를 달여 올리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煎茶(전다)

‘고형차(떡차·연고차)와 잎차를 달인다’는 동사로 사용되며, ‘팽다’와 같은 의미의 용어라 할 수 있다.

材、和搏宵韻代水陸疏文詩]同成雅會淸茶話、共賞枯桐白雪音。

### (3) 點茶(점다)

문헌 고찰결과 點茶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사전류에는 '차를 끓이는 방법의 한 가지로 마른 찻잎을 그릇에 담고 끓는 물을 부어 우림'으로 정의되어 있고, 다서류에는 '고려시대의 병차(餅茶)를 가루지어 달이는 점다법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뜻과 '가루차에 탕수를 붓고 휘저어 차거품을 일으켜서 다유(茶乳)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

강연숙은 “高麗·朝鮮時代の 末茶 茶碗에 관한 研究”에서 ‘點茶란 茶碗에 가루차를 점찍듯이 떨어뜨리고 달일 물을 부어 수저나 차선으로 풀어 마시는 것을 말하며 『물명고(物名考)』에는 끓는 물에 차를 넣어 잠깐 기다려 풀어지게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다법은 동양 3국의 末茶 음용다법으로 주로 쓰여 왔다 라고 정의하였다.<sup>156)</sup>

결론적으로 사전류에서 정의한 ‘마른 찻잎을 그릇에 담고 끓는 물을 부어 우림’이라는 뜻은 맞지 않는 것 같다. 點茶의 의미는 ‘마른 찻잎이 아닌 가루차를 떠서 다완에 놓고 끓인 물을 부어 차선으로 풀어 마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 용어는 『近古史談』 157) 외에 거의 모든 茶古典에 나오는 용어이다.

### (4) 喫茶(차마심)

12종의 문헌 중 『현대차생활용어』에만 실린 용어로 ‘우린 찻물을 마심, 차마시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 (5) 投茶(투다)

‘다관에 필요한 양의 차를 넣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

156) 강연숙(2002). 앞의 책. p.11.

157) 諸槁輟次(1928). 앞의 책. p.9985. [近古史談、豊篇、豊公賜首鎧忠勝]是夜公竊召忠勝、自點茶而侑之。

## (6) 烹茶(팽다)

‘煎茶’와 같은 의미로 ‘차를 맑은 다탕으로 마시기 위해 끓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7) 品茶(품다)

‘차의 맛을 꼼꼼하게 음미하며 마신다.’는 말로 오늘날의 ‘품평’과 같은 용어이다. 「삼국유사」의 「월명사와 도술가」 조에는 경덕왕 19년(760) 4월10일, 왕명으로 승랑인 월명사가 지어 부른 도술가 덕분에 두 해의 변괴가 사라지자, 왕이 가상히 여겨 「사품다일습 수정염주백팔과」(賜品茶一襲 水靜念珠百八顆)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대목에서 품다의 올바른 뜻은 다음과 같다.

品茶(품다) = 品賞(품상) [品賞 (품상)] 은 차(茶)를 시음(試飲)하여 좋고 나쁨을 품평(品評)하는 일로 품명(品茗), 품다(品茶)라고 한다.

결국 차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가리기 위해서는 차를 달여서 맛보아야 하며 「품다」란 ‘차 겨루기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158)</sup>

『大漢和辭典』에는 ‘차의 맛을 품평해서 차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 용어는 『歸田集』에 등장한다.<sup>159)</sup>

## (8) 行茶(행다)

12종의 문헌 중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만 있는 용어로 ‘차를 끓여서 대접하고 마시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원뜻은 ‘○○을 해하다’ 곧 ‘茶禮를 행하다’의 뜻이다.

158) 김명배 (1999). 『다도학 논고』. 서울: 대광문화사. p.401.

159)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5. [歸田集]病後品茶、各與一詩。

<표 25> 행동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재문헌
다공	茶供	차를 끓여 올림	새, 우, 표, 민
		다공양	국
전다	煎茶	차를 달임. 팽다(烹茶)	새, 국, 우, 금, 표, 민
		고형차(떡차·연고차)와 잎차를 달인다는 동사로 사용	다도
점다	點茶	차를 끓이는 방법의 한가지. 마른 차잎을 그릇에 담고 끓는 물을 부어 우림	새, 우, 국
		①마른 차잎을 끓는 물에 담가서 우려는 것 ②[불]선종(禪宗)에서, 불전(佛前)이나 영전(靈前)에 차를 공양하는 일	금, 표, 민
		고려시대의 연고차(研膏茶)를 가루내어 달이는 점다법을 가리키는 말	다도
		차가루가 탕수와 어울려 휘저어 저서 차거품을 일으켜 다유(茶乳)로 만드는 것	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차를 신주에게 올리는 것을 말함	금당
차마심	喫茶	①우린 차물을 마심 ②차 마시는 일	현대
투다	投茶	차를 집어넣음	금당
		다관에 필요한 양의 차를 넣는 것	한다
		차와 물을 찻그릇에 넣는 것	우리
팽다	烹茶	전다(煎茶)	새, 우, 국, 금, 표, 민
		차를 맑은 다탕으로 마시기 위해 끓이는 것	한다, 우리
품다	品茶	여러 가지 차를 맛본다는 말로서 차를 마신다는 말	금당
행다	行茶	차를 끓여서 대접하고 마시는 일 전체	한다, 우리

## 6. 茶문헌과 관련된 용어

‘차와 관련된 서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6>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經(다경)

의미가 기재된 문헌의 공통된 의미는 ‘육우가 지은 차에 대한 최초의 전문서로 차(茶)의 기원·제법(製法)·기구(器具)등이 자세히 기술된 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茶錄(다록)

茶錄은 蔡襄(군모)가 지은 다서로 ‘차의 기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곧 제다법을 완성시킨 책이다.

### 3) 茶譜(다보)

五代の 毛文錫<sup>160)</sup>의 저서 중에 하나로 차의 계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보는 『송문총목(崇文總目), 小說類』,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 藝類)』, 『군재독서지(郡齋讀書誌, 農家類)』, 『통지(通誌, 藝文略食貨類)』, 『문헌통고(文獻通考)』, 『송사(宋史, 藝文誌)』 등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웅번(熊蕃)의 『선화북원공다록(宣和北苑貢茶錄)』에도 촉(蜀)나라 대신인 모문석이 다보(茶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보의 원문은 유실되었는데 아마 남송 말 원나라 초 때쯤에 유실된 것 같다.<sup>161)</sup>는 주장도 있으나, 진조규 주자진(陳祖榘 朱自振)이 편집한 『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에 약 1100여자의 전문이 실려 있다.<sup>162)</sup>

160) 모문석의 자는 평규(平珪)이나, 당나라 고양(高陽, 河北省에 속함) 사람이다. 열네살 때 진사에 등극했을 정도로 수재였다. 훗날 촉(蜀)나라 왕건(王建)을 모시면서 중서사인(中書舍人), 한림학사(翰林學士), 예부상서(禮部尙書), 추밀원사(樞密院事), 문사전대학사(文思殿大學士), 사도(司徒) 등 벼슬을 역임한다.

161) 장유화(2000). 『中國古代茶書精華』. 서울: 남산탐방. p.169.

162) 宋代 樂史 『太平寰宇記, 下列資料, 吳淑事類賦補』

#### 4) 茶賦(다부)

'한재 이목<sup>163)</sup>이 지은 韻文으로 음다생활 예찬서(한재: 1471~1498)'로 정의할 수 있다.

#### 5) 茶山集(다산집)

'조선 인조(仁祖)때 예조참의를 지낸 다산(茶山) 목대흠(睦大欽)의 시문집((詩文集)으로 숙종 11년(1625)에 조카 존선(存善)이 편집 간행한 2권 2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6) 茶書(다서)

'차에 관한 서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 7) 茶疏(다소)

'명나라 다인 허차서(許次紓)가 36항목으로 세분하여 지은 다서'로 정의할 수 있다.

#### 8) 茶神傳(다신전)

'초의 장의순이 만보전서 下列資料에서 초출한 다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尹庚嫻의 『茶文化 古典』에 의하면 원문은 明 張源의 『茶錄』이다.<sup>164)</sup>

---

163) 이목(李穆: 1471-1498)

성종때 연산군의 문인으로 자는 중옹(仲雍). 호는 한재(寒齋)라 했다. 19세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로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했고, 24세에 대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영안도평사(永安道評事)를 지냈다. 무오사화(戊午士禍)때 훈구파인 윤필상의 모함으로 김일손 등과 함께 참형에 처했다. 1506년에 면과복관(免過復官)되고 후에 충현서원에 배향되었다.

164) 尹庚嫻編著(1999). 『杏園茶文化古典』. 서울: 弘益齋. pp.269-298.

### 9) 茶畫(차그림)

'차나무 그림, 차일에 관한 그림'으로 정의할 수 있다.

### 10) 茶學(차학)

차나무에 관한 학문 또는 차 관련 학문이라고 되어 있으나, 넓은 의미인 '차 관련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표 26> 茶문헌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재문헌
다경	茶經	당나라의 육우(陸羽)가 760년 무렵에 간행한 다사(茶事)고전. 차(茶)의 기원·제법(製法)·기구(器具)등이 자세히 기술되었음. 3권	국, 금, 표
		①차에 관한 서책 ②육우의 다경 ③다서	현대
		최초의 차에 대한 전문서	한예
다록	茶錄	차의 기록. 송나라의 채양이 쓴 『다록(茶錄)』이 있음	금당
다보	茶譜	차의 계보. 오대(五代)의 모문석(毛文錫)의 저서 가운데에 『다보』가 있음	금당
다부	茶賦	한재 이목이 지은 차 예찬서(한재: 1471~1498)	현대
다산집	茶山集	조선 인조(仁祖)때 예조 참의를 지낸 다산(茶山) 목대흠(睦大欽)의 시문집(詩文集). 숙종11년(1625)에 조카 존선(存善)이 편집 간행하였음. 2권2책	금
다서	茶書	①차에 관한 서책 ②주요 전래 다서 ③다경	현대
다소	茶疏	명나라 다인 허차서(許次紆)가 지은 다서	금당
다신전	茶神傳	초의 장의순의 만보전서 출전의 다서	현대
차그림	茶畫	①차나무 그림 ②차일에 관한 그림	현대
차학	茶學	①차나무에 관한 학문 ②차 관련 학문	현대

## 7. 행사·관습과 관련된 용어

차에 관한 의식, 차 모임 및 보급 활동, 차 풍속 및 제도와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 1) 茶의식과 관련된 용어

차에 관한 의식과 관련된 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7>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道(다도·차도)

의미가 기재된 문헌 10종의 공통된 의미는 '차를 달이거나 마실 때의 일정한 방식이나 예의범절'을 말한다. 이 의미는 다도의 좁은 의미에 속한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차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의 경지로 숙달된 차생활(常識的 차원)로 법도(法度)에 맞도록 잘 우려낸 차(科學的 차원)를 마시면서 느끼는 현현한 아취(雅趣)가(哲學的 차원) 지극(至極)한 경지에 이르러 묘경(妙境)을 터득하는 것(絕對的 眞理 차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165)</sup>

'차도'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만 기재된 용어로 '차나무를 재배하고 찻잎을 따고 차를 만들고 차를 마시고 찻자리를 정리하는 일체의 행위가 되는 것 즉,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닦는 행위. 특별한 격식이 없이 차를 통해 심신을 수련하여 진리에 이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차도'란 용어는 '찻길'을 의미하는 뜻도 있으므로, 차도란 말보다는 '다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大漢和辭典』에는 茶道 혹은 茶技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 용어는 『封氏見聞記 飲茶』조에 최초로 등장한다.<sup>166)</sup>

165) 석용운(2005). 앞의 책. p.101.

166)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3. [封氏見聞記、飲茶]因鴻漸之論潤色之、於是茶道大行、王公朝士、無不飲者。

## (2) 茶禮(다례·차례)

다례와 차례는 한 의미였으나, 현대로 오면서 점차 그 의미가 바뀌어 가는 것 같다. 먼저 다례의 의미가 게재된 10종의 문헌에서 살펴보면, 사전 6종에는 '차를 대접하는 의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현대 차생활 용어』에는 '설·명절, 삭·망일, 조상(복중)의 생일·제사 또는 명·기념일의 행다례'라고 되어 있으며, 『다도학』에는 '사람(人)·귀신(神)·부처님(佛)에게 차탕(茶湯)을 바치는 예의'라고 되어 있다. 『한국茶文化』에는 '예절을 갖추어 신명·부처·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국다예』에는 「行茶禮」라는 말로써, 「차로써 예를 행한다」는 뜻으로 정의되어 있다.

차례는 9종의 문헌에 실려 있으며, 그 중 사전 6종의 의미는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을 맞아 낮에 지내는 간략한 제사'라고 되어 있다. 『한국茶文化』에는 민가에서 명절이나 속절(俗節) 등의 특별한 날에 돌아가신 분에게 간단히 지내는 제사로 밥을 차리지 않고 간단한 음식으로 서 지내며 차사(茶祀)라고 되어 있으며, 『금당다화』에는 매달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 또는 명절날에 조상에게 드리는 제례(祭禮)로 '낮에는 차례(茶禮)라 하여 차(茶)를 올리고, 밤에는 제사라 하여 술을 올린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는 '예절을 갖추어 차를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문헌 고찰 결과 다례와 차례는 원래는 같은 의미였으나 현대 문헌에는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례의 공통된 의미를 정리해 보면 '예절을 갖추어 신명·부처·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례는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을 맞아 낮에 지내는 간략한 제사'의 의미로 다례의 한 범주에 속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차례'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규범이었던 주자의 『가례』에는 없는 용어로, 茶를 올리는 절차를 내포한 신라 고려 전래의 제례이다. 『가례』에 나타나는 제례 중에서 사당에서 올리는 참례와 천신례는 고사례(告辭禮)와 더불어 차를 올리는 헌다 절차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차례라는 명칭도 차를 올린다는 뜻을 내포한 신라 고려 전래의 제례에서 비롯된 듯하다.

### (3) 茶法(다법)

12종의 문헌 중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만 기재된 용어로 '특별한 격식을 지킴으로써 차차리의 예절을 전승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두 가지 의미<sup>167)</sup>로 정의되어 있다. '당 송 이래의 세금법과 송대 이후의 각다법 등 중국에 행해진 차에 관한 세정제도란 의미'와, '다도를 행하는 방식'이란 의미가 있다. 후자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 기재된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에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4) 茶仙茶神(다선다신)

'차를 혼자서 달여 마실 때의 경지(境地)'를 말하며, 茶神傳의 茶神은 '茶的 신기로움'을 뜻한다고 보인다.

### (5) 茶禪一味(다선일미)

'선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록으로 차와 선이 한 맛이라는 뜻'으로 정의할 수 있다.

### (6) 茶藝(다예)

'차 다루는 품, 행다의 기예성(技藝性)'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다예의 근원은 서진(西晉)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당(唐)대에 들어오면서 크게 성행하였다. 다성(茶聖), 다신(茶神), 다선(茶仙)으로 추앙받고 있는 육우는 차를 잘 끓여 태수에게 초청되어 차를 우리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다예는 송대의 '차백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sup>168)</sup>

---

250) 諸稿轍次(1928). 앞의 책. p.9984.

### (7) 茶儀(다의)

‘차 올리는 의식, 행사 중의 차 올리는 대목’으로 정의되어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다도에 관한 의식. 예법’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近古史談』에 나오는 용어이다.<sup>169)</sup>

### (8) 茶風(다풍)

『현대차생활용어』에만 게재된 용어로 ‘차내는 방식, 차 내는 풍습’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大漢和辭典』에는 ‘차를 너무 마셔서 생기는 병’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海錄碎事に 이 의미로 쓰이고 있다.<sup>170)</sup> ‘차를 너무 마셔서 생기는 병’에 해당하는 용어는 ‘茶積’이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다풍은 ‘차내는 방식·풍습’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9) 茶凡節(차범절)

‘茶道’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차를 내는 예의범절’의 뜻이다.

### (10) 茶祀(차사)

‘추석이나 설 명절, 그 밖의 절기 및 삭망에 지내는 차례로 밥과 국을 올리지 않고 茶를 위주로 지내는 제사’로 정의되어 있다.

### (11) 行茶禮(행다례)

12종의 문헌 중 『현대차생활용어』에만 의미가 있으며, ‘다례를 지내는 일’로 정의되어 있다.

---

168) 김영숙(2006). 『中國의 茶와 藝』. 서울: 불교춘추사. pp.12-13.

169)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1.

170) 諸槁輒次(1928). 위의 책. p.9984. [海錄碎事、飲食、酒]茶風無奈筆。

<표 27> 茶의식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재문헌	
다도	茶道	차(茶)를 손님에게 대접하거나 마실때의 일정한 방식이나 예의범절. 일본에서 발달한 도(道)의 하나로 정신을 수양하고 사람과 사귀는 예법을 닦는데 목적이 있음. 이 도를 닦는 사람은 이것을 '재가(在家)의 선(禪)'이라 함. 차범절. 차예절. 차격식	새, 국
		차를 달이거나 마시는데 있어서 차리는 방식이나 예의범절. 차격식. 차범절. 차예절	우
		차를 달여 손님에게 권하거나 마실때의 예의범절	금, 표
		①차 만드는 법 ②차에 관한 예의	민
		①차를 통한 깨달음과 실행 ②차를 만들거나 만지는 법도 ③차에 관한 범절	현대
		찾ыл 따기에서 차를 우려 마시기까지의 차일(茶事)으로써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덕을 쌓는 행위	다도
		①차는 도 ②차의 도(道: 기예) ③차를 통한 도(차는 수단)	한다
		차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의 경지 숙달된 차생활(常識的 차원)로 법도(法度)에 맞도록 잘 울려낸 차(科學的 차원)를 마시면서 느끼는 현현한 아취(雅趣)가(哲學的 차원) 지극(至極)한 경지에 이르러 묘경(妙境)을 터득하는 것(絶對的眞理 차원)	한예
다례	茶禮	①=차례 ②[고제]중국의 사신을 맞아서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서 차(茶)를 대접하던 의식	새, 국
		차례	우, 금, 민
		①차를 대접하는 의식 ②차례	표
		①설·명절, 삭·망일, 조상(복중)의 생일·제사 ②명·기념일의 행다례	현대
		사람(人)·귀신(神)·부처님(佛)에게 차탕(茶湯)을 바치는 예의	다도
		예절을 갖추어 신명·부처·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는 행동	한다
		일정한 법도와 의식을 갖추어 차를 만들고, 끓이는 기술과 솜씨가 익숙해진 상태. 또한 '행다례'의 준말로 차를 마실때의 보편적인 예법으로 차를 마시거나 대접할 때의 예의범절. 가회다례, 공경다례, 의식다례, 회강다례, 잔치다례 등이 있다 「行茶禮」라는 말로써, 「차로써 예를 행한다」는 뜻	
다법	茶法	특별한 격식을 지킴으로써 차자리의 예절을 전승하는 것	우리
다선다신	茶仙茶神	차를 혼자서 달여 마실때의 경지(境地)	금당

다선일미	茶禪一味	차를 끓여 마심으로써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 선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록. 차와 선이 한 맛이라는 뜻	한다 금당
다예	茶藝	①차 다루는 품 ②행다의 예술성	현대
다의	茶儀	①차 올리는 의식 ②행사 중의 차 올리는 대목	현대
다풍	茶風	①차내는 방식 ②차 내는 풍습	현대
차도	茶道	다도(茶道)	새, 우
		[북]다도의 북한어 차나무를 재배하고 찻잎을 따고 차를 만들고 차를 마시고 찻자리를 정리하는 일체의 행위가 되는 것.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닦는 행위. 특별한 격식이 없이 차를 통해 심신을 수련하여 진리에 이르는 것	표 우리
차례	茶禮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명절날·조상 생일 들을 맞아 낮에 지내는 간략한 제사	우, 금, 표, 민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명절날·조상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 다례(茶禮). 차사(茶祀)	새, 국
		민가에서 명절이나 속절(俗節) 등의 특별한 날에 돌아가신 분에게 간단히 지내는 제사. 밥을 차리지 않고 간단한 음식으로서 지내며 차사(茶祀)라고도 함	한다
		매달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 또는 명절날에 조상에게 드리는 제례(祭禮). 낮에는 차례(茶禮)라 하여 차(茶)를 올리고, 밤에는 제사라 하여 술을 올린다	금당
		예절을 갖추어 차를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	우리
차범절	茶凡節	다도	우리
차사	茶祀	차례(茶禮)	새, 국, 우, 금, 표, 민
		추석이나 설명절, 그밖의 절기 및 삭망에 지내는 차례로 밥과 국을 올리지 않고 차로 지내는 제사	우리
행다례	行茶禮	다례를 지내는 일	현대

## 2) 차모임·보급과 관련된 용어

‘차’를 주제로 한 모임과 차 보급 활동과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8>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菓會(다과회)

의미가 기재된 7종의 공통된 의미를 살펴보면 ‘차와 과자를 차려 놓고 가지는 간단한 모임’이라고 되어 있다.

### (2) 茶談會(다담회)

12종의 문헌 중 『현대 차생활 용어』에만 기재된 용어로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임, 또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다.

### (3) 茶飯(다반)·恒茶飯(항다반)

茶飯의 공통된 의미는 ‘恒茶飯’의 준말 이라고 되어 있다. 恒茶飯의 의미는 ‘예사로, 늘 있어 이상하거나 신통할 것이 없는 일’로 정의되어 있다. 茶飯은 『太平廣記』와 『東京夢華錄』에 실린 용어로 『大漢和辭典』에서 살펴보면 ‘차밥, 술안주’라고 되어 있다.<sup>171)</sup> 이는 예사로 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문헌의 의미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4) 茶飯事(다반사)·恒茶飯事(항다반사)

‘茶飯事’와 ‘恒茶飯事’의 의미는 같은 것이라 여겨지며, 의미가 기재된 문헌의 공통된 의미는 ‘예사로, 늘 있어 이상하거나 신통할 것이 없는 일’로 정의된다. 『大漢和辭典』에는 ‘차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과 같이 흔히 있는 일. 보통의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sup>172)</sup>

---

171) 諸槁輒次(1928). 앞의 책. p.9984.

172) 諸槁輒次(1928). 위의 책. p.9984.

### (5) 茶業(다업)

‘차(茶)를 만들거나 파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 (6) 茶宴(다연·차잔치)

다연과 차잔치는 같은 말이라 생각되며, 단지 다연은 한자어, 차잔치는 순우리말이다. ‘차를 마시며 즐기는 연회. 차를 마시는 모임’이란 뜻으로 ‘茗宴’이라고도 하며, 「鮑君微의 시」에 등장하는 용어이다.<sup>173)</sup> 茗燕, 茶燕 등과 같은 뜻이다.

### (7) 茶話會(다화회)

의미가 기재된 문헌 모두 ‘차를 마셔 가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다. 『大漢和辭典』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를 마셔가면서 하는 이야기로 간단한 회합’<sup>174)</sup>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광무(1897~1906)와 융희(1907~1910)년간에 내각의 대신들과 중추원(中樞院)의 고문관의 발기에 의하여 북송의 정치가인 사마온공(司馬溫公, 1018~86)의 진솔회(眞率會)를 본 딴 다화회가 성행되었다. 또한 용산인쇄국의 다화회, 합동다화회, 운회다화회, 월례다화회, 과성관(巴城館)의 다화회, 강가정자의 다화회 등 많은 다화회가 성행하였다.<sup>175)</sup>

### (8) 茶會(다회·차회)

茶會는 다회로 표기된 문헌 2종, 차회로 표기된 문헌 1종이 있다. 다회는 ‘차회’ 또는 ‘차동호인의 모임’이라 되어 있고, 차회는 ‘차를 마시며 노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다.

박순주는 “한국 傳統茶會의 연구”에서 茶會를 ‘두 사람 이상이 의도적으로 모여 차를 마시는 모임’이란 뜻과 ‘차를 주제로 하여 두 사람 이상이 조직한

173)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0. [鮑君微 東亭茶宴詩]閑朝向曉出 茗宴東亭四望通

174) 諸槁轍次(1928). 위의 책. p.9985.

175) 김명배 (1998). 『茶道學』. 서울: 학문사. p.366.

단체'로 나누어 정의했다.<sup>176)</sup>

'차'와 '모임'이 결합된 '다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조선 정조시대 중인계급의 문인 장혼(張混 1759-1828)의 시 <옥경산방다회용: 유수주의 운을 따서 지은 옥경산방다회>에서이다. 이 시는 화창한 봄 날씨를 즐기기 위해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정경을 그리고 있다. 제목에 나타난 '다회(茶會)'란 용어로써 이 시의 내용이 여러 사람이 모여 차를 마시는 모임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장혼의 이 시를 통하여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차를 마시는 모임을 뜻하는 말로 '다회'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차를 주제로 하여 두 사람 이상이 조직한 단체'란 의미의 다회는 현대 사회에는 '다회'로 칭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다사(茶社)'라 일컫기도 했다. 이 말은 송대 다서에 실린 이후,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다산에 사는 제자 귤원(橘園)과 윤노규(尹奎魯)가 한강 변 마현(馬現)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눈 대화에서 처음 사용하였다.<sup>177)</sup> 다산이 제자들에게 다산 초당의 상태와 제자들이 계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물으며, 다신계(茶神契)를 지칭 '다사(茶社)'라고 하였다. 다신계는 다산 정약용과 18명의 제자가 스승과 제자로서 신의를 잊지 않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sup>178)</sup> 『大漢和辭典』에서는 '다도, 茶宴'이라 표기되어 있어, 다회가 '차잔치'의 의미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79)</sup>

현대에 있어서 '茶會'의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이 의도적으로 모여 차를 마시는 모임'이란 뜻과 '차를 주제로 하여 두 사람 이상이 조직한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176) 박순주(2003). "한국 傳統茶會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177) 박순주(2003). 위의 책. p.5.

178) 박순주(2003). 위의 책. p.6.

179)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1. [錢起、過長孫宅、興朗上人、茶會詩]偶興息心侶、忘歸才子家、玄談兼藻思綠茗代榴花。

### (9) 茶事(차일)

12종의 문헌 중 『현대차생활용어』에만 게재된 용어로 ‘제다, 행다 따위의 차에 관한 일’로 정의되어 있다. 김영경은 그의 논문에서 茶事를 ‘茶에 관계된 禮節法度 등 行茶에 수반된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였다.<sup>180)</sup> 茶事의 의미를 『大漢和辭典』에는 3가지 의미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차에 관한 사무로 정의하였으며 『宋史 食貨志』에 이 뜻으로 쓰인 의미가 나온다.<sup>181)</sup> 둘째, 차를 만드는 일, 제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이 의미로는 『品茶要錄』에 보인다. 셋째, 다도의 의미로 쓰였으며, 이 의미로는 『皮日休의 茶經序』에 보인다.

茶事란 의미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고찰 대상 문헌에서 공통점을 찾아 보면 ‘차에 관계된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10) 茶席(차자리)

‘차를 내고 마시는 좌석, 차의 位相, 차를 드는 분위기’로 정의되어 있다.

『大漢和辭典』에는 ‘다도를 행하는 좌석’으로 정의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茶席의 의미는 ‘차를 내고 마시는 좌석’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

---

180) 김영경(2001). "韓國 茶文化的 特性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6.

181)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2. [宋史、食貨志]先是師閔提學權茶、所行職務、他司皆不得預聞、事權震灼、爲患深密、及黃廉就領茶事、乃請凡緣茶事、有侵損戾法、或措置未當、及有訴訟、依元豐令、聽他關送。[品茶要錄]茶事起於驚蟄前、其采芽如鷹爪、初造日試焙。

[皮日休、茶經序]自周以降、及於園朝茶事、竟陵子陸季疵言之詳矣。

<표 28> 차모임·보급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재문헌
다과회	茶菓會	차와 과자를 차려 놓고 가지는 간단한 모임	새, 국, 우, 금, 표, 민
		술을 빼고 차와 과자만으로 갖는 모임	금당
다담회	茶談會	차 마시며 이야기 하는 모임, 또는 조직	현대
다반	茶飯	'항다반'의 준말	우, 국, 금, 표
		항다반	새, 민
다반사	茶飯事	'항다반사'의 준말	우, 금
		항다반사(恒茶飯事)	새, 국, 표, 민
		恒茶飯事 차와 밥먹는 일처럼 흔한 일	현대
다업	茶業	차(茶)를 만들거나 파는 영업	새, 국
다연	茶宴	차를 마시며 즐기는 연회	새, 국, 표
		차를 마시며 즐기는 모임	우
		차를 마시며 즐기는 연회. 차를 마시는 모임	민
다화회	茶話會	차를 마시며 가면서 이야기하는 모임	새, 우, 국, 표
다회	茶會	차회(茶會)	표
		차 동호인의 조직 모임	현대
차잔치	茶宴	차를 중심으로 하거나 차를 곁들이는 잔치	현대
차회	茶會	차를 마시며 노는 모임=다회(茶會)	표
차일	茶事	제다, 행다 따위의 차에 관한 일	현대
차자리	茶席	①차내고 마시는 좌석 ②차의 位相 ③차를 드는 분위기	현대
항다반	恒茶飯	예사로, 늘 있어 이상하거나 신통할 것이 없는 일	새, 우, 금, 표, 민, 금당
항다반사	恒茶飯事	항다반으로 있는 일	새, 우, 금, 표, 민
		예사로운 일, 일상있는 일. 준말은 다반사(茶飯事)	금당

### 3) 차풍속·제도와 관련된 용어

차에 관한 풍속 및 제도에 관한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9>에 제시한 바와 같다.

#### (1) 茶權(다각)

12종의 문헌 중 『금당다화』에만 기재된 용어로 '정부가 차를 전매품(專賣品)으로 해서 이익을 거둠'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大漢和辭典』에서도 '차의 전매, 정부가 차를 전매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으며, 『舊唐書穆宗紀』와 「王安石의 詩」 등 많은 문헌에 나오는 용어이다.<sup>182)</sup> '權'의 자해는 '전매(專賣), 즉 정부가 물품을 독점하여 제조·판매하는 일이나 그 법(法)'으로 풀이되어 있다.<sup>183)</sup>

#### (2) 茶課(다과·차과)

의미가 기재된 7종의 문헌에 '중국 송·원대(宋元代)에 차의 판매에 매기던 세금'이라고 정의하였다. 『大漢和辭典』에는 '차상에서 수납하는 세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宋史』에 등장하는 용어이다.<sup>184)</sup>

#### (3) 茶軍士(다군사)

'다방에 소속되어 궁중 밖에서 왕족에게 차를 올리거나 준비하는 일을 위해 다구와 짐을 나르는 군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고려에만 있었던 고유한 군제였다.<sup>185)</sup>

---

182) 諸槁轍次(1928). 앞의 책. p.9981. [舊唐書、穆宗紀]長慶元年、加茶權、舊額百文、更加五十文、從王播奏。[王安石、轉運劉君墓誌銘]朝廷弛茶權、以君使江西。

183) 양성모(1998). 『漢韓大辭典』. 서울: 두산동아. p.884.

184) 諸槁轍次(1928). 위의 책. p.9981. [宋史、程之邵傳]主管茶馬、市場至萬匹得茶課四百萬。

185) 김명배(1998). 『茶道學』. 서울: 학문사. p.426.

#### (4) 茶馬貿易(다마무역)

12종의 문헌 중 『한국茶文化』에만 기재된 용어로 '차나무를 재배하고 잘 관리하여 차를 중국의 말과 바꾸어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역'으로 정의되어 있다.<sup>186)</sup> 봉연(封演)의 『봉씨견문기』(封氏聞見記), 『신당서』(新唐書), 명나라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에 따르면 회흘(回紇)이 조공하러 들어갈 때부터 당나라에 말을 주고 차와 바꾸었다고 한다. 그 후 중국과 변방과의 다마교환은 송나라 신종의 희녕 7년(1074년)부터 청나라 성조의 강희 44년(1705)까지 계속되었다.

#### (5) 茶稅(다세)

'조선시대 차에 매긴 세금'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목의 『茶賦』에 나오는 용어이다. 茶榷과 茶課는 중국 고대의 '차세금 제도'이고, 茶稅는 '조선의 차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6) 茶所(다소)

『한국茶文化』에는 '포로 등의 천민집단이 거주하는 특수행정구역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있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는 '나라에 차를 바치던 곳으로 지방제도의 일환'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소(所)라는 것은 현(縣)·군(郡)이 못되는 작은 부락에 두었던 것으로 高麗는 그 지방의 특산물에 따라 금소(金所)·철소(鐵所)·와소(瓦所)·염소(鹽所)·묵소(墨所)·강소(薑所) 등을 두었는데 다소(茶所)도 그렇게 두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장흥도호부에 13개소, 무장현에 2개소, 동북에 1개소 등 16개소가 있었으나, 고려 때는 다른 차의 산지에도 더 두었을 것이 확실하게 여겨진다. 이런 다소들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차를 거두고 생산하는 데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 장흥 같은 곳은 차산지로 유명하여 아직도 그때의 유종이 야생하고 있으며, 광복 후까지 돈차를 만들었다.<sup>187)</sup>

186) 정영선(2002). 앞의 책. p.247.

따라서 茶所는 '나라에 차를 받치던 특수행정구역으로 차의 공판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7) 茶時(다시)

의미가 기재된 문헌 9종의 공통된 의미는 '죄를 판단하는 사헌부의 관원들이 죄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공정한 판결을 위한 생각을 가다듬는 차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茶時는 사헌부의 주된 일 중의 하나로, 실록이외에 『승정원일기』나 『일성록』을 보면 거의 매일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대사간이 공식이거나 참석하지 못하면 감찰(監察) 주도하에 茶時를 시행하겠다는 계를 올리고 행했다.<sup>188)</sup> 또한 야간 순찰을 끝내고 차를 드는 경우의 뜻으로도 쓰였다.

조선 초에는 한때 서울의 관청이 모두 茶時를 행할 정도로 중요시하였으며 사헌부의 茶時풍습은 고종 때까지 있었다. 茶時제도는 고려의 왕이 신하의 사형선고나 귀양 등의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신하들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형주대(重刑奏對)의례와 비슷한 것으로 차가 정신을 맑게 하여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데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sup>189)</sup> 우리나라 고려와 조선의 고유한 풍습이었던 것 같다.

### (8) 茶信契(다신계)

'단순하게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마당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기록할 만한 차생산의 공동체'로 정의되어 있으며, 다산 정약용과 18명의 제자가 스승과 제자로서 신의를 잊지 않기 위해 결성한 음다생활을 결의한 조직이다.<sup>190)</sup>

187) 유건집(2007). 『韓國茶文化史』. 서울: 도서출판 이룬아침. p.275.

188) 유건집(2007). 위의 책. p.35.

189) 정영선(2002). 앞의 책. p.110.

190) 박순주(2003). 앞의 책. p.6.

### (9) 茶院(다원)

『한국茶文化』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차』에서 ‘고려시대 임금이나 관원 혹은 승려를 포함한 귀족이 먼 길을 가다가 도중에서 쉬는 집으로, 요로나 인가가 드문 곳에 두었던 국영 여관’의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현대차생활용어』에는 ‘차를 가르치는 집, 차 모임의 집’으로 되어 있다. 전자는 역사적 의미이고 후자는 현대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경우이다. 茶院은 고려 때 각 지방에 있었으며, 다정원(茶亭院)·다방원(茶房院)·다중원(茶中院)·다견원(茶見院) 등의 이름으로 요소마다 설치했다. 주로 왕가에서 관리, 혹은 스님들이 이용했으며, 숙박시설이 없던 시대였으니 숙박은 물론 음다(飲茶)도 가능한 휴식공간이었다. 茶院의 시작은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때 다연원(茶淵院)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용되는 내용이 같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상당 부분 공통된다. 그리고 조선 때의 객사(客舍), 혹은 객관(客館)에 해당하며 원리(院吏)를 두어서 관리토록 했다.<sup>191)</sup>

### (10) 封茶(봉차)

‘중국의 강남에서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있었던 제도로 결혼하기 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차 씨앗을 보내는 것’이었으나, 나중에 잘못되어 ‘봉채·봉치가 되었다.

### (11) 鬪茶/茗戰(차 겨루기)

‘차의 맛을 비교하여 평하고 겨루는 대회’란 의미와 ‘차따기, 차만들기, 차내기 따위의 겨룸’의 의미가 있다. 투다(鬪茶), 투시(鬪試), 명전(茗戰)이라고 하며<sup>192)</sup> 차 겨루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풍지(馮贄)의 『운선잡식』(雲仙雜識)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191) 유건집(2007). 앞의 책. p.273.

192) 김명배(1999). 『다도학 논고』. 서울: 대광문화사. p.386.

「건안(建安, 지금의 복건성 건구현) 사람들은 투다(鬪茶)를 명전(茗戰)이라고 한다. 교전(交戰) 때는 세 가지의 훌륭한 점을 서로 겨루게 하는데, 하나는 차, 다른 하나는 물, 또 다른 하나는 찻그릇으로 서로 우월성을 밝혀서 우수하면 勝, 지면 負라 한다.」<sup>193)</sup>

차 겨루기는 차의 기속 중에서도 한 나라의 다사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차문화를 질량면으로 채는 척도 중에서 차문화가 대중에게 확산되는 양적 수준은 찻집의 유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으나, 질적 수준은 차 겨루기 풍습의 유무를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차 겨루기는 현대의 '차품평'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되어 진다.<sup>194)</sup> 고전 전반을 검토하면 '차를 정세하게 살펴 마심'의 뜻이 과장되어 기록된 듯하다.

## (12) 茶條例(차조례)

사전 3종에 게재되어 있으며, '1773년에 영국 의회가 제정한 식민지 무역 규제법으로 아메리카 식민지와 차(茶)무역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 준 것으로, 미국 독립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

193) 김명배 (1998). 『茶道學』. 서울: 學文社. p.276.

194) 김명배(1999). 『다도학 논고』. 서울: 대광문화사. p.386.

<표 29> 차풍속·제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재문헌	
다각	茶榷	정부가 차를 전매품(專賣品)으로 해서 이익을 거둠	금당
다과	茶課	중국 송·원대(宋元代)에 차의 판매에 매기던 세금	새, 국, 우, 금, 표, 민
		차에 세금을 매김	금당
다군사	茶軍士	다방에 소속되어 궁중 밖에서 왕족에게 차를 올리거나 준비하는 일을 위해 다구와 짐을 나르는 군인	한다, 우리
다마무역	茶馬貿易	차나무를 재배하고 잘 관리하여 차를 중국의 말과 바꾸어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될수있는 무역	한다
다세	茶稅	조선시대에 차에 매긴 세금	금당
다소	茶所	포로 등의 천민집단이 거주하는 특수행정구역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있었음	한다
		나라에 차를 바치던 곳. 지방제도의 일환	우리
다시	茶時	사헌부의 벼슬아치가 출근하여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일을 논의하던 관례. 또는 그때	새, 국, 우, 금, 표, 민, 금당
		(고)사헌부(司憲府)에서 날마다 한번씩 모여 차를 마시는 시간	한다
		(고)죄를 판단하는 사헌부의 관원들이 죄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한잔의 차를 마시면서 공정한 판결을 위한 생각을 가다듬는 차시간	우리
다신계	茶信契	차로 맺어진계	한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마당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기록할 만한 차생산 공동체	우리
다원	茶院	①차를 가르치는 집 ②차 모임의 집	현대
		(고)임금이나 관원 혹은 승려를 포함한 귀족이 먼길을 가다가 도중에서 쉬는 집으로, 요로나 인가가 드문 곳에 두었던 국영 여관	한다, 우리
봉차	封茶	혼인이 성립되면 먼저 차 한봉지를 보내는 것	금당
		고려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결혼하기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차씨앗을 보내는 것	우리
차겨루기	鬪茶/茗戰	차따기, 차만들기, 차내기 따위의 겨룸	현대,
차과	茶課	중국 송(宋)나라·원(元)나라 때에 실시하던 차(茶)의 판매세	새, 금, 민
		다과	표
차조례	茶條例	1773년에 영국 의회가 제정한 식민지 무역 규제법. 아메리카 식민지와 차(茶)무역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 준 것으로, 미국 독립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음.	국, 금, 표
투차	鬪茶	차의 맛을 비교하여 평하고 겨루는 대회	한다, 우리
		말차를 가지고 서로 경연하는 놀이	금당

## 2. 문헌상의 용어 비교 분석

지금까지 현대 차생활용어를 고찰한 결과, 용어의 뜻이 정확히 쓰이는 경우 보다는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현대에 들어 갑자기 생겨난 용어들이 각 문헌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어, 통일된 용어의 뜻을 정의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각 문헌의 비교 분석은 문헌 12종을 종합하여 내린 분석과 사전류와 다서류를 비교하여 내린 분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찰 대상 문헌 12종을 종합하여 내린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차생활용어를 고찰하기 위해 문헌 12종을 조사한 결과 '茶'자가 들어간 고찰 대상 용어는 총 285개였다.

둘째, 이를 양태별로 분류해 보면 장소 관련 용어 33개, 인물 관련 용어 17개, 茶물품 관련 용어 49개, 차도구 관련 용어 120개, 기법·양식 관련 용어 14개, 茶문헌 관련 용어 10개, 행사·관습 관련 용어 42개 였다.

셋째, 총 7개 영역(장소, 인물, 茶물품, 차도구, 기법·양식, 茶문헌, 행사·관습)을 조사한 결과 동일어는 다음과 같다.

장소와 관련된 용어(표 2) 33개 중 다방·차방·찻방, 다시·차시, 다실·차실, 다점·차점·찻방, 다원·차원·차전·차밭은 동일어이다. 이들 중 다방·차방·찻방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다방(10회), 차방(7회), 찻방(6회)로 다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대에는 차방, 찻방보다는 다방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며, 또한 역사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다방'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차시장'을 의미하는 용어인 다시(茶市)와 차시는 다시(2회), 차시(2회)로 같은 사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실과 차실은 다실(9회), 차실(5회)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대는 다실·차실이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茶의 본음은 '차'이며 관음이 '다'인 점에서 '차'와 '다'가 두루 쓰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다점·차점·차점은 다점(7회), 차점(3회), 차점(2회)로 다점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었다. 다점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고려시대 일반 백성들이 돈이나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덩이차를 사거나 마시는 집'이었으므로 다점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차를 재배하는 밭'이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는 다원, 차원, 차전, 차밭이 있다. 사용빈도를 보면 다원(7회), 차원(5회), 차전(5회), 차밭(1회)로 다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園'이란 식물 위주의 자연적인 공간으로 일반 곡식이 아닌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밭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田'이란 '곡식을 심는 경지'를 의미하므로 다원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인물 관련 용어 총 18개(표 3) 중 동일어는 다모·차모, 다객·차손·차손님·차벗, 다색·차색이다.

이 중 다모와 차모는 다모(7회), 차모(8회)로 차모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다모'라고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차모'라고 불리웠으며 다모·차모를 혼용하여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다객·차손·차손님·차벗은 동일어로 사용빈도를 보면 다객(1회), 차손(1회), 차손님(1회), 차벗(1회)로 모두 같은 사용횟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차손은 차손님의 준말이고 다객은 옛날에는 '차를 파는 사람'의 의미를 가졌으며, 차벗은 현대에 만들어진 용어이므로 차손님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색과 차색은 다색(1회), 차색(1회)로 사용빈도가 같으나, 역사적으로 '다색'이라고 쓰였으므로 다색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茶물품 관련용어는 茶 관련 용어 29개(표 4), 물 관련 용어 6개(표 5), 차음식 관련 용어 14개(표 6)가 있었다. 茶 관련 용어 중 동일어는 다제·차제, 다엽·차잎·차잎이다. 먼저 다제와 차제는 다제(2회), 차제(5회)로 차제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나, 다제·차제 혼용해서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차나무의 잎'이란 뜻을 가진 다엽·차잎·차잎은 다엽(8회), 차잎(2회), 차잎(9회)로 차잎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찻잎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 관련 용어는 차물·차수·차물·차물이 동일어이다. 각각의 사용빈도를 살펴 보면 차물(1회), 차수(6회), 차물(9회), 차물(1회)로 차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차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차음식 관련 용어는 다담·차담이 있는데, 다담(6회), 차담(6회)로 같은 사용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차담이라는 말 보다는 다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차도구 관련 용어(표 7) 120개 중, 차 만드는 도구 용어는 다구·차절구, 다마·차맷돌·차갈매가 동일어이다. 다구(茶臼)와 차절구는 다구(6회), 차절구(1회)로 다구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다마·차맷돌·차갈매는 다마(2회), 차맷돌(3회), 차갈매(1회) 순으로 차맷돌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다마는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용어이며, 차맷돌은 현대에 만들어진 용어이므로 모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차 끓이는 도구 용어는 차술·차술, 차주전자·차주전자, 다로·차화로가 동일어이다. 이 중 차술과 차술은 차술(2회), 차술(1회)로 차술이 많이 사용되었다. 차주전자와 차주전자는 차주전자(3회), 차주전자(5회)로 차주전자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다로와 차화로는 다로(9회), 차화로(1회)로 다로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그 결과 차술, 차주전자, 다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차 우리는 도구 용어는 다관·차관·차우리개, 다선·다술·차술, 다시·차시·차사시·다술, 차술가락·차술갈·차술 등이 동일어이다. 다관·차관·차우리개는 다관(9회), 차관(7회), 차우리개(1회)로, 다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선·다술·차술은 다선(3회), 다술(1회), 차술(3회)로 다선과 차술의 사용빈도가 같았다. 다시·차시·차사시·다술은 다시(8회), 차시(1회), 차사시(6회), 다술(2회)로 다시(茶匙)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차술가락·차술갈·차술은 차술가락(8회), 차술갈(7회), 차술(3회) 순으로 차술가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 결과 다관, 다선, 다시, 차술가락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단 다선과 차술은 사용빈도가 같으나 다선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선은 옛부

터 사용되어 온 역사적 용어이기 때문이다.

차 내는 도구 용어 중 동일어는 다담상·차담상, 다반·차반·차반·차쟁반, 다상·차상·차상, 다탁(茶卓)·차탁, 다탁(茶托)·차탁·차받침·차잔받침, 다포·차포이다. 이 중 다담상과 차담상은 다담상(8회), 차담상(6회) 순으로 다담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반·차반·차반·차쟁반은 다반(7회), 차반(7회), 차반(2회), 차쟁반(1회) 순으로 다반과 차반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차반은 ‘예물로 가져가는 맛있는 음식’이란 의미의 차반(茶飯)과 읽는 소리가 같으므로 다반(茶盤)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상·차상·차상은 다상(1회), 차상(4회), 차상(5회) 순으로 차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차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탁(茶卓)·차탁은 다탁(7회), 차탁(3회) 순으로 다탁(茶卓)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므로 다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탁(茶托)·차탁·차받침·차잔받침은 다탁(7회), 차탁(7회), 차받침(2회), 차잔받침(3회) 순으로 다·차탁(茶托)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다른 뜻을 가진 용어인 다탁(茶卓)과 읽는 소리가 같으므로 차잔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포·차포는 다포(4회), 차포(1회) 순으로 다포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므로 다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차 마시는 도구 용어는 다완·차완, 다종·차종, 차보시기·차보시기, 차종지·차종지·차종지 동일어이다. 먼저 다완·차완은 다완(2회), 차완(5회)로 차완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나, 현대에는 다완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므로 다완과 차완 혼용해서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종·차종은 다종(8회), 차종(4회) 순으로 다종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므로 다종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차보시기·차보시기는 차보시기(1회), 차보시기(1회)로 사용빈도가 같으나, 한글맞춤법 개정안(1988)에 의해 차보시기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차종지·차종지·차종지는 차종지(1회), 차종지(2회), 차종(7회)로 차종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므로 차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 정리 도구 용어는 다건·차수건·차행주·식다포, 다과보·다상보·다식보·차상

포가 동일어이다. 먼저 다건·차수건·차행주·식다포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차수건(2회), 다건(1회), 차행주(1회), 식다포(1회) 순으로 차수건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나, 현대에는 차수건이라는 말보다는 다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과보·다상보·다식보·찾상포는 다과보(1회), 다상보(1회), 다식보(1회), 찾상포(1회)로 사용빈도가 모두 같다. 각각의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차 보관 도구 용어는 다장·차장·찾장, 다합·차합이 동일어이다. 먼저 다장·차장·찾장은 다장(1회), 차장(5회), 찾장(7회)로 찾장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합·차합은 다합(1회), 차합(3회)로 차합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찾장, 차합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타세간 관련 용어는 다구·차구, 다기·차기, 다제구·차제구, 다판·차판, 차그릇·찾그릇 등이 동일어이다. 이 중 다구·차구는 다구(9회), 차구(6회)로 다구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며, 다기·차기는 다기(8회), 차기(6회)로 다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다제구·차제구는 다제구(2회), 차제구(7회)로 차제구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그 결과 다구, 다기, 차제구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판·차판은 다판(1회), 차판(1회)로 사용빈도가 같으나 다판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차그릇·찾그릇은 모두 2회로 사용빈도가 같으나, 한글 맞춤법 개정안(1988)에 의해 찾그릇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법·양식 관련 용어는 총 14개이며, 이 중 동일어는 다화와 차이야기이다. 사용빈도는 다화(7회), 차이야기(1회)로 다화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므로 다화(茶話)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행사·관습 관련 용어(표 10)는 총 42개이다.茶的식과 관련된 동일어는 다도·차도, 다례·차례이다. 먼저 다도·차도는 다도(10회), 차도(4회) 순으로 다도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례·차례는 다례(12회), 차례(10회) 순으로 다례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다도, 다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차모임 및 보급과 관련된 용어는 다반·향다반·다반사·향다반사, 다연·차잔치,

다회·차회 등이 동일어이다. 먼저 다반·향다반·다반사·향다반사는 다반(6회), 다반사(8회), 향다반(6회), 향다반사(6회) 순으로 다반사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연·차잔치는 다연(6회), 찻잔치(1회)로 다연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며, 다회·차회는 다회(3회), 차회(1회) 순으로 다회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다반사, 다연, 다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한글로는 같은 말이나 한자가 달라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용어는 <표 30>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 용어들은 한글로 표기할 때는 한자와 병행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표 30> 한글로는 같은 말이나 한자가 달라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용어

용어	한자	용어풀이
다각	茶角 茶脚 茶榷	불교에서 차를 달여 대중에게 이바지를 맡아 보는 사람 말차를 달일때 찻잔에 거품이 구름같이 뭉게뭉게 피어 오르는 것 정부가 차를 전매품으로 해서 이익을 거둠
다과	茶果 茶菓 茶課	차와 과실을 이르는 말 차와 과자를 이르는 말 중국 송나라·원나라 때에 판매되는 차에 매기는 세금
다관	茶館 茶罐	중국에서 차를 마시거나 점심 따위를 먹으며 쉬는 일종의 사교장 찻주전자
다구	茶臼 茶具	차를 가는 맷돌 차제구(茶諸具)
다담	茶啖 茶談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놓은 다과 따위 다화(茶話)
다반	茶飯 茶盤	'향다반'의 준말 다기를 담는 조그마한 쟁반
다시	茶時 茶匙	사헌부의 벼슬아치가 출근하여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일을 논의하던 관례. 또는 그때 찻숟가락
다연	茶宴 茶煙	차를 마시며 즐기는 연회 차를 달일 때 나는 연기
다정	茶亭 茶精	진찬 때에 쓰는 기구의 하나. 은으로 만든 다관과 다종을 올려놓아 어좌의 오른편, 곧 치사안의 맞은편에 놓음. 다정자(茶亭子) 간단한 다방(茶房) '카페인'의 한자이름
차탁	茶托 茶卓	찻잔을 받쳐 드는 반 차를 마실 때 찻그릇을 벌여 놓은 탁자

다섯째, 문헌 고찰 결과 '차'와 '다'가 병행하여 쓰이는 용어들은 <표 3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1> '차'와 '다'가 같이 쓰이는 용어

'다'音	'차'音	'다'音	'차'音
다관(茶罐)	차관	다실	차실
다기	차기	다원	차원
다담	차담	다점	차점
다도	차도	다답상	차답상
다도구	차도구	다제구	차제구
다례	차례	다종	차종
다모	차모	다탁	차탁
다방	차방	다반(茶盤)	차반
다시(茶市)	차시	다색	차색

여섯째, 원래는 같은 의미였으나 현대에 와서 뜻이 다르게 쓰이고 있는 용어는 茶禮(다례·차례)와 茶壺(다호·차호)이다.

문헌 고찰 결과 다례와 차례는 조금씩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었다. 다례의 정의는 '예절을 갖추어 신명·부처·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는 의식'이며, 차례는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명절날, 조상 생일 등을 맞아 낮에 지내는 간략한 제사'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의미로 보면 차례는 다례의 한 범주에 속하는 용어로 보인다.

다호와 차호는 '차'와 '다'의 차이만 있을 뿐 원래 한 의미를 지닌 용어였다. 그러나 문헌 고찰 결과 다호는 현재 '차 보관 도구'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차호는 '차를 우리는 도구' 즉 현대의 '다관(茶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일곱째, 문헌 고찰 결과 반복되어 쓰이는 용어들은 茶憲, 茶色이다.

茶憲은 장소 관련 용어로도 쓰이고 인물 관련 용어로도 쓰인다. 장소 관련 용어로는 '고려시대에 차를 마시는 집'의 의미로 쓰였으며, 인물 관련 용어로는 '정극인의 호'로 쓰이고 있다. '정극인의 호'는 고유명사이므로 일반적으로

茶憲은 장소 관련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茶色은 인물 관련 용어와 茶 관련 용어 두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인물 관련 용어로는 '궁중에서 차 끓이는 일을 맡아하던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되며, 차 관련 용어로는 '갈색, 차의 종류, 차의 색'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전자는 역사적 의미의 단어이고, 후자 또한 중요한 의미이므로 다색은 두 가지 의미 모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전류의 다서류의 양태별 비교분석이다.

고찰 대상 문헌 12종을 사전류와 다서류로 나누어 양태분류해 보면 장소 관련 용어는 다서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었으며, 인물 관련 용어는 사전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었다. 특히 '차를 끓여내는 사람'이란 뜻의 다모와 비슷한 말들인 다비(茶婢), 다색(茶色), 차색(茶色)이라는 용어는 다서류에는 그 뜻이 없는 용어들이다. 이는 현대에 들어 '차'의 활성화와 함께 차 관련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다서류의 한계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茶 관련 용어, 물 관련 용어, 차음식 관련 용어는 모두 다서류보다 사전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었다. 차음식 관련 용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과(茶菓), 다식(茶食) 등의 용어는 다서류에는 뜻이 없이 용어만 등장하고 있다. 또한, 차담(茶啖), 차례탑(茶禮塔), 차반(茶飯), 차유(茶油) 등은 사전류에는 있으나 다서류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다서류에서 차음식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서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차도구 관련용어는 사전류보다 다서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었다. 이는 근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는 아직까지 적합한 한자어가 없어서 대부분 한글 위주의 뜻만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듯 차도구 관련 용어는 용어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분야중의 하나이다. 근래에 만들어진 차도구 용어에 대해 한자의미를 부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차갈때는 茶礎, 차종지·차종지는 茶鍾子, 차순갈·차순갈·차순가락은 茶匙, 차거르개는 茶網, 차구기는 茶杓, 차그릇·차그릇은 茶器, 차화로는 茶鑪, 차받침은 茶卓, 차술골은 茶筥模, 차나무는 茶樹, 차잎·차잎은 茶葉, 차감은 茶材料, 차값은 茶價 등으로 생각해 보았다.

기법·양식 관련 용어는 사전류에, 茶문헌 관련 용어와 행사·관습 용어는 다서류에 많은 용어가 수록되어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다서류에서의 차생활용어 사용에 있어서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茶용어를 정립함에 있어서는 사전류를 기반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현대에 생겨난 많은 차도구 용어들에 대한 한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었다.

### 3. 현대 차생활 용어의 考定

12종의 문헌과 『大漢和辭典』을 토대로 하여 고찰한 차생활용어 중 연원을 밝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대 차생활용어로 考定시켜 보았다. 考定한 용어수는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 1) 장소 관련 용어

장소 관련 용어 33개 중 30개를 考定하여 보았으며 <표 3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2 > 장소 관련 용어\*

용어	용어	정의
貢寺茶所	공사다소	절에 차를 만들어 바치던 마을
老茶莊	노다장	차를 팔던 본사 또는 오래된 상점
茶貢里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연초면(延草面)에 있는 지명으로 옛날에 차를 진상(進上)하던 곳. 거제 사투리로 '땃공리'라고 함
茶菓店	다과점	차나 과자 따위를 파는 가게
茶館	다관	중국 사람들의 사교장으로 서민들이 모여 수박씨를 까먹고 점심을 드는 곳이며, 특히 상인들 사이에는 상업에 관한 이야기와 정보 교환처로 이용되는 곳
茶道面	다도면	전라남도 나주군의 한 지명으로 차생차가 자라는 차산지를 일컬음
茶嶺	다령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수양리(秀陽里)에 있으며, 찻등 또는 찻골로 불림
茶樓	다루	차를 마시는 다층정자(多層亭子)
茶里	다리	차를 생산 공납하는 마을
茶房	다방·차방	(故)조정의 다례를 거행하고 왕이 행행할 때 수반되는 다례를 봉행하는 곳 (현대)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고 차(茶)나 음료 따위를 판매하는 곳
茶肆	다사	차를 팔거나 마시는 집
茶山庭園	다산정원	조선 말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사정원(私庭園)
茶市	다시·차시	차를 사고 파는 시장
茶室	다실·차실	본채에 딸렸거나 혹은 다옥에 있는 음다공간으로서의 방
茶淵院	다연원	우리나라 최초의 확인된 다옥(茶屋)
茶屋	다옥	신위가 자신의 오두막집을 '다옥'이라 부르면서 연유한 말로서 벗집, 띠역새로 지붕을 이은 10평 내외의 소박한 초당

茶園	다원·차원	차를 재배하는 밭
茶粧	다장	차 제조장
茶店	다점·차점	고려시대 일반 백성들이 돈이나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마른 차를 사거나 차 마시는 집
茶軒	다헌	고려시대에 차를 마시는 독립된 집
茶田	차밭·차전	차나무를 가꾸는 밭
茶-	차집	차집의 북한어
茶골	차골	차생산지로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성남면(城南面) 수양리(秀洋里) 뒷산에 있는 차산지의 이름
茶房	차방	차와 다구를 보관하고 차를 끓이는 곳

\*예전에 쓰였던 의미는 『故』, 현대에 쓰이는 의미는 『현대』,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는 『인』이라 함. 이하 표(표33~표40)는 위의 형식과 같음.

## 2) 인물 관련 용어

인물 관련 용어 17개 중 15개를 考定하여 보았으며 <표 3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3> 인물 관련 용어

용어		정의
茶角	다각	(故)차모임의 초대장, 차첨자 (현대) 불가에서 차를 달여서 여러 사람에게 이바지를 하는 사람 (인)'정극인'의 호
茶客	다객	(故) 를 파는 사람 (현대) 차손님
茶母 (茶婢)	다모·차모·다비	조선시대 관사(官司)에서 차와 술대접 등 잡일을 맡아 하던 관비(官婢)
茶房內侍	다방내시	왕가에서 차를 다루던 내부관직명(內府官職名)
茶山	다산	정약용의 호
茶色	다색·차색	궁중에서 차 끓이는 일을 하던 사람
茶神	다신	①다경을 지은 옥우를 높여 부르는 말 ②차의 신묘함을 이르는 말
茶翁	다옹	'옥우'의 호를 이르는 말
茶人	다인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
茶軒	다헌	'정극인'의 호
茶友	차벗	차를 즐기는 벗, 차로써 사귀는 벗
茶--	차손님	차를 마시려고 차집 따위에 드나드는 손님

### 3) 茶물품 관련 용어

차를 우려 마시기 위해 필요한 차, 물, 차음식 들로 구성되어 있다.

#### (1) 茶 관련 용어

茶 관련 용어는 29개 중 28개를 考定하여 보았으며 <표 34>에 제시한 바와 같다.

#### (2) 물 관련 용어

물 관련 용어는 6개 중 5개를 考定하여 보았으며 <표 35>에 제시한 바와 같다.

#### (3) 차음식 관련 용어

차음식 관련 용어는 14개 모두 考定하여 보았으며 <표 3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4> 茶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茶脚	다각	말차를 달일 때 찻잔에 거품이 구름같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
茶梅	다매	차나무 이름, 산다의 별종
茶木	다목	차나무
茶色	다색	①차의 종류 ②차의 색 ③갈색
茶素	다소	'카페인'의 한자이름
茶煙	다연	차를 끓일 때 나는 연기
茶葉	다엽·차잎· 차잎	차나무의 잎. 차잎
茶乳	다유	가루차를 끓인 물에 넣어 휘젓거나 혹은 찻사발에 점다하여 거품을 일으켜 마시는 탁한 차
茶積	다적	차를 너무 좋아하여 나중에는 마른 차를 그대로 씹어먹게 되는 병
茶精	다정	'카페인'의 한자이름
茶劑	다제·차제	여러 가지 식물성 생약을 혼합하여 말려서 만든 약제
茶湯	다탕	①차를 끓인 물(끓인 차물) ②茶와湯 ③거친 떡차나 잎차를 끓여 걸러 낸 맑은 차물
辨茶	변다	차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분별하는 것

藏茶	장다	차의 저장
摘茶	적다	차를 따는 것
造茶	조다	차를 만드는 것. 현대의 제다와 같음
茶	차	식물의 잎이나 뿌리, 과일 따위를 달이거나 우려거나 하여 마실 것을 통틀어 이르는 차
茶花	차꽃	차나무의 꽃
茶樹	차나무	차나뭇과의 상록 활엽 관목으로 잎은 긴 타원형이며 10~11월에 흰꽃이 피며, 어린 순으로 차를 만드는 나무
茶-	차풀	차풀과에 딸린 한해살이 풀. 흔히 들이나 산지에 나는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하며 줄기와 잎은 말리화 차(茶)의 대용으로 쓰임
茶香	차향·다향	차의 향내
茶-	차감	차를 만들 감
茶-	차값	다방에서 마신 음료(飲料)의 대금으로 내는 돈
採茶	채다	차잎을 따는 일

<표 35> 물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茶褐色	다갈색	검은색이 들어간 갈색
茶水	차물·차수·차물	①차를 달인 물 ②차를 달이는 데에 쓰이는 물
	차물	'차물'의 옛말

<표 36> 차음식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官禮茶食	관례다식	'8월 추석에 타서 먹는 월병(月餅)의 일종'
茶果	다과	'차와 과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
茶菓	다과	'차와 과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茶啖	다담·차담	불가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차리는 다과(茶菓) 따위
茶食	다식	유밀과의 한가지로 녹말·송화·송김초·황밤·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찍어낸 과자
茶食菓	다식과	유밀과의 한가지로 모양은 다식과 같으나 다식판보다 큰판에 찍어낸 것
茶粥	다죽	차물에 끓인 죽
茶禮塔	차례탑	차례 때 높이 괴어올린 제물(祭物)
茶飯	차반	예물로 가져가는 맛있는 음식
茶油	차유	차나무의 씨에서 짜는 기름
茶飲食	차음식	차로 만들어진 먹마실 거리
茶酒	차주	차와 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茶汁	차즙	차나무 잎을 끓여낸 즙

#### 4) 차도구 관련 용어

차도구 관련 용어는 120개 중 101개를 考定하여 보았으며 <표 3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7> 차도구 관련 용어

항목	용어	정의	
차만드는도구용어	茶鈴	다검	차를 볶을 때 쓰는 금속그릇
	茶臼	다구·차절구	차를 찢는 절구
	茶羅	다라	차를 거르는 체
	茶籠	다롱	생차를 넣어두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茶磨	다마·차맷돌·차갈매	차를 가루 낼 때 사용하는 맷돌
	茶焙節	다배	차를 만들 때 쓰는 건조기
	茶飮	차공대	덩이차를 부수는 도구
차끓이는도구용어	茶甌	차시루	차잎을 찌는 시루
	茶爐	다로	차를 달이는데 쓰는 화로
	茶銚	다요	물이나 차를 끓이는 두구리 모양의 자루 달린 작은 냄비
	茶甕	다조	단순한 화덕과는 달리 굴뚝이 있거나 끓이는 일 외의 용도를 겸하도록 되어 있는 이동식 화덕
	茶-	차술·차술·차가마	차물을 끓이는 솥
차우리는도구용어	茶酒煎子	차주전자·차주전자	차를 끓이는데 쓰는 주전자
	茶爐	차화로	숯불을 피워 차술이나 탕관을 올려놓고 차물을 끓이는 도구
	茶罐	다관·차관·차우리개	차를 우리는 그릇
	茶笊	다선·다솔·차솔	가루차를 잘 풀리게 휘젓는 도구
	茶戛	다솔	고려도경에 나오는 말로써 '차솔가락'을 가리키는 말
	茶匙	다시·차시	차솔가락. 즉 차를 떠내는 기구
차내는도구용어	茶沙匙	차사시	차솔가락
	茶則	차칙	차를 달일 때 차를 뜨는 대나무 숟가락
	茶--	차솔가락·차솔갈·차솔	차를 떠내는 숟가락
	茶菓床	다과상	손님과 함께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는 상
	茶啖床	다담상·차담상	불가에서 손님대접으로 음식을 차려내는 상
	茶盤	다반·차반·차반·차쟁반	손님께 차나 다과를 담아 나를 때 쓰는 도구
차내는도구용어	茶床	다상·차상·차상	차를 끓이고 마실 때에 쓰이는 상
	茶食器	다식기	다식을 담는 여러 가지 그릇
	茶亭	다정	①이동식 간이정자 ②차 마시는 집

	茶亭子	다정자	임금의 진찬 때에 쓰는 기구로 다구를 벌려 놓은 탁자
	茶卓	다탁·차탁	찾그릇을 올려놓고 차를 따라 마시는 탁자
	茶布	다포·차포	차를 내는 그릇을 덮거나 그릇 아래 까는 천
	茶托	다탁·차탁·차반침·차잔반침	차잔을 받치는 데 쓰는 반침
	茶菓床	다과상	손님과 함께 다과를 먹고 차를 마시는 상
차마시는 도구용어	茶甌	다구·차구	차잔의 하나로 입과 밑의 넓이가 비슷하고 굽이 높으며 수직에 가까운 것
	茶杯	다배	조선초부터 쓰였으며, 술잔처럼 뚜껑이 없는 작은 차잔
	茶碗	다완·차완	말차를 마시기 위한 차도구로 전이 넓고 밑이 좁고 크기가 큰 그릇
	茶鐘	다종·차종	예전에 차를 따라 마시던 그릇으로 꼭지 달린 뚜껑이 있고, 잔대의 굽이 펴 높은 차잔
	茶---	차보시기·차보시기	종지보다 큰것으로 차를 따라 마시는 보시기
	茶盞	차잔·차잔	차를 따라 마시는 잔
	茶鐘-	차종·차종지·차종	차를 따라 마시는 종지
	茶沙鉢	차사발·차사발	아래는 좁고 위는 넓게 만든 가루 차잔으로 아주 큰 차잔
차정리 도구용어	茶巾	다건·차수건·차행주	다구 일습을 사용할 때 마다 닦고 걸레질 하는 것
	茶菓褌	다과보	다과를 덮는 보자기
	茶床褌	다상보·차상보·차상포	다판이나 다과상을 덮는 덮개보
	茶食褌	다식보	다식그릇을 덮는 보자기
차보관 도구용어	茶菓櫥	다과장	다과를 넣어 두는 장
	茶菓函	다과함	사탕이나 과자 따위를 넣어 두는 함
	茶櫥	다장·차장·차장	차도구와 다과를 넣어 보관하는 장
	茶盒	다합·차합	차를 담은 합그릇
	茶箱子	차상자	차를 간직하는 네모로 길게 짠 상자
	茶桶	차통	차를 간직하는 통
	茶缸	차항아리	차를 저장하는 조그마한 항아리
기타세간	茶具	다구·차구	차를 끓여 마시는 도구
	茶器	다기·차기	①차를 우리거나 마시는 그릇 ②부처앞에 맑은 물을 떠 놓는 그릇 ③차제구
	茶食板	다식판	다식을 박아내는 틀
	茶諸具	다제구·차제구	차를 달여 마시는데 쓰는 제구
	茶板	다판·차판	여러 가지 다구를 다 올려놓고 차일을 하는 상
	茶道具	차도구	차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연모
	茶生活	차살림	한집안의 차일과 차세간을 꾸려가는 살림살이

### 5) 기법·양식 관련 용어

기법·양식 관련 용어는 14개 중 13개를 考定하여 보았으며 <표 38>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8> 기법·양식 관련 용어

항목	용 어		정 의
언어	茶談	다담	차자리의 이야기. 연어(軟語), 다화(茶話), 청화(淸話)라고 함
	茶詩	다시·차시	차를 소재로 하거나 음다생활(飲茶生活) 제반(諸般)을 읊은 시
	茶飯常談	다반 상담	차를 마시고 먹으면서 하는 말이라는 뜻으로 늘 하는 정겨운 말을 이르는 말
	茶話	다화·차이 이야기	차를 마시며 하는 이야기
행동	茶供	다공	불가에서 부처님께 차를 끓여 올리는 일
	煎茶	전다	고형차(떡차·연고차)와 잎차를 달이는 것
	點茶	점다	가루차를 다완에 놓고 끓인 물을 부어 차선으로 풀어 마시는 것
	投茶	투다	다관에 필요한 양의 차를 넣는 것
	烹茶	팽다	차를 맑은 다탕으로 마시기 위해 끓이는 것
	品茶	품다	차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가리기 위해서 차를 맛보는 것
	行茶	행다	차를 끓여서 대접하고 마시는 일 전체

### 6) 茶문헌 관련 용어

茶문헌 관련 용어는 10개 모두를 考定하여 보았으며 <표 39>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9> 茶문헌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茶經	다경	차에 대한 최초의 전문서로 차(茶)의 기원·제법(製法)·기구(器具)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책
茶錄	다록	송나라의 채양이 쓴 책으로 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나와 있음
茶譜	다보	오대(五代) 모문석(毛文錫)의 저서로 차의 계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茶賦	다부	한제 이목이 지은 차 예찬서
茶山集	다산집	조선 인조(仁祖)때 예조 참의를 지낸 다산 목대흠(睦大欽)의 시문집(詩文集)
茶書	다서	차에 관한 서책
茶疎	다소	명나라의 허차서(許次紆)가 지은 다서
茶神傳	다신전	초의 장의순이 만보전서를 초출해서 지은 다서
茶畫	차그림	차나무 그림. 차일에 관한 그림
茶學	차학	차(茶) 관련 학문

## 7) 행사·관습 관련 용어

행사·관습 관련 용어는 42개 중 37개를 考定하여 보았으며 <표 40>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0> 행사·관습 관련 용어

항목	용어		정의
차의식	茶道	다도·차도	차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의 경지로 숙달된 차생활로 법도에 맞도록 잘 올린 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현현한 아취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 묘경을 터득하는 것
	茶禮	다례	예절을 갖추어 신명·부처·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는 의식
	茶法	다법	특별한 격식을 지킴으로써 茶자리의 예절을 전승하는 것
	茶仙 茶神	다선 다신	차를 혼자서 달여 마실때의 경지(境地)
	茶禪 一味	다선일미	차와 선이 한가지라는 뜻
	茶藝	다예	①차 다루는 품 ②행다의 기예성(技藝性)
	茶儀	다의	차 올리는 의식
	茶風	다풍	차내는 방식·풍습
	茶禮	차례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명절날, 조상생일 등을 맞아 낮에 지내는 간략한 제사
	행다례	행다례	다례를 지내는 일
차모임·보급	茶菓會	다과회	차와 과자를 차려 놓고 가지는 간단한 모임
	茶談會	다담회	차를 마시며 이야기 하는 모임 또는 조직
	茶飯事	다반사	예사로 늘 있어 이상하거나 신통할 것이 없는 일
	茶業	다업	차를 만들거나 파는 영업
	茶宴	다연·차잔치	차를 마시며 즐기는 연회
	茶話會	다화회	차를 마시며 가면서 하는 이야기 모임
	茶會	다회·차회	두 사람 이상이 의도적으로 모여 차를 마시는 모임
	茶事	차일	차에 관계된 모든 일
	茶席	차자리	차를 내고 마시는 좌석
	恒茶飯 恒茶飯事	항다반 항다반사	예사로 늘 있어 이상하거나 신통할 것이 없는 일 예사로운 일. 일상 있는 일
차풍속·제도	茶權	다각	정부가 차를 전매품(專賣品)으로 해서 이익을 거둠
	茶課	다과·차과	중국 송·원대(宋元代)에 차의 판매에 매기던 세금
	茶軍士	다군사	다방에 소속되어 궁중 밖에서 왕족에게 차를 올리거나 준비하는 일을 위해 다구와 짐을 나르는 군인
	茶稅	다세	조선시대 차에 매긴 세금
	茶所	다소	나라에 차를 받치던 특수행정구역으로 차의 공판장을 이르는 말
	茶時	다시	죄를 판단하는 사헌부의 관원들이 죄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한잔의 차를 마시면서 공정한 판결을 위한 생각을 가다듬는 차 시간

茶信契	다신계	세계 최초로 기록할 만한 차생산 공동체
茶院	다원	고려시대 임금이나 관원 혹은 승려를 포함한 귀족이 먼길을 가다가 도중에서 쉬는 집
封茶	봉차	고려시대에 있었던 제도로 결혼하기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차씨앗을 보내는 것
茗戰/鬪茶	차겨루기 투차	차따기, 차만들기, 차내기 따위의 겨룸
茶條例	차조례	1773년에 영국 의회가 제정한 식민지 무역 규제법. 아메리카 식민지와의 차(茶)무역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 준 것으로, 미국 독립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음

##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현대차생활용어를 고찰하여 考定시키기 위해 12종의 문헌을 기초로 조사해 보았다.

첫째, 12종의 문헌에서 '茶'자가 들어간 고찰 대상 용어 285개를 선정하여 양태별로 분류하였다. 장소 관련 용어 33개, 인물 관련 용어 17개, 茶물품 관련 용어 49개, 차도구 관련 용어 120개, 기법·양식 관련 용어 14개, 茶문헌 관련 용어 10개, 행사·관습 관련 용어 42개였다. 총 7개 영역 중 가장 많은 용어 수가 있는 영역은 차도구 용어였다.

둘째, '茶'자가 들어간 용어 285개 중 현대차생활용어로 考定시킨 용어는 253개이다.

셋째, '茶'자가 들어간 용어 285개 중 동의어는 121개로 46종이었다.

넷째, 고찰 대상 용어 285개 중 한글로는 같은 말이나 한자가 달라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용어는 다각, 다과, 다관, 다구, 다담, 다반, 다시, 다연, 다정, 차탁 등 10개이며, 이 용어들은 반드시 한자가 병행되어야 하는 용어들이다.

다섯째, 문헌 고찰 결과 '차'와 '다'를 병행하여 쓰는 용어들은 茶罐(다관·차관), 茶器(다기·차기), 茶啖(다담·차담), 茶道(다도·차도), 茶道具(다도구·차도구), 茶母(다모·차모), 茶房(다방·차방), 茶市(다시·차시), 茶室(다실·차실), 茶園(다원·차원), 茶店(다점·차점), 茶啖床(다담상·차담상), 茶諸具(다제구·차제구), 茶鐘(다종·차종), 茶卓(다탁·차탁), 茶托(다탁·차탁), 茶盤(다반·차반), 茶色(다색·차색) 등이다.

여섯째, 원래는 같은 의미였으나 현대에 와서 뜻이 다르게 쓰이고 있는 용어는 茶禮(다례·차례)와 茶壺(다호·차호)이다. 현대에 있어서 차례는 다례의 한 범주에 속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다. 또한 다호는 차 보관도구의 의미로, 차호는 차 우림도구의 의미로 나누어 쓰이고 있어 통일된 용어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한다.

일곱째, 문헌 고찰 결과 반복되어 쓰이는 용어들은 茶憲, 茶色이다.

茶憲은 장소 관련 용어와 인물 관련 용어의 의미가 있으나, 인물 관련 용어는 고유명사이므로 장소 관련 용어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茶色은 인물 관련 용어와 茶 관련 용어 두 의미로 쓰이고 있다. 둘 다 중요한 의미이므로 양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현대의 차생활 용어는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않아서, 바르고 통일된 용어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생겨난 많은 차도구 용어들에 대한 한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는 차생활 용어 중 '茶'자가 들어간 용어만을 선별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는 보다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여, 차생활 전반에 관한 용어를 고찰하기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사전류>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상형 외(1995). 『금성판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 송인성(2006). 『漢韓辭典』. 서울: 태서출판사.
- 신기철·신용철 편저(1988).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주식회사 삼성이데아.
- 양성모(1997). 『漢韓大辭典』. 서울: 두산동아.
- 李家源·宋炳周(1998). 『大漢韓辭典』. 서울: (주)敎學社.
- 이희승 편저(2002). 『민중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임광애 편저(2003). 『한자옥편사전』. 서울: 民衆書館.
- 장삼식(1996). 『漢韓大辭典』. 서울: 교육출판공사.
- 諸稿轍次(1928). 『大漢和事典 제18권』. 일본: 大修館書店.
- 한국식품영양학회(1997). 『식품영양학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한국어사전편찬회(1991). 『국어대사전』. 서울: 삼성문화사.
- 한글학회(1991). 『우리말큰사전』. 서울: (주)어문각.

### <단행본>

- 김영숙(2002). 『中國의 茶와 藝』. 서울: 불교춘추사.
- 家入一雄(1940). 『朝鮮의 茶와 禪』. 동경: 일본다도사.
- 감승희(1994). 『한국차생활총서』. 서울: (주)서울출판.
- 고세연(1994). 『茶의 美學』. 서울: 도서출판 초의.
- 고세연(2006). 『차의 역사』. 서울: 미래문화사.
- 구영본·신미경 공저(2006). 『글로벌 시대의 차문화와 에티켓』. 서울: 형설출판사.
- 금당 최규용(2004). 『금당다화』. 서울: 도서출판 이른아침.

- 金時晁(2002). 『禮節用語辭典』. 서울: 푸른사상.
- 김대철(2006). 『우리 차문화』. 서울: 불교춘추사.
- 김명배 역(1991). 『조선의 차와 선』. 서울: 보림사.
- 김명배(1998). 『茶道學』. 서울: 학문사.
- 김명배(1999). 『茶道學論攷』. 서울: 대광문화사.
- 김봉호(1984). 『生活茶藝』. 서울: 태평양 박물관.
- 김태경(2005). 『차와 예절』. 서울: 홍익출판사.
- 류건집(2007). 『韓國茶文化史』. 서울: 도서출판 이큰아침.
- 박필금(1999). 『생활속의 다도』. 서울: (주) 도서출판 삼과꿈.
- 석용운(1987). 『韓國茶藝』. 서울: 도서출판 보림사.
- 석용운(2005). 『韓國茶藝』. 서울: 도서출판 초의.
- 신수길(2005). 『茶道具』. 서울: 도서출판 술과학.
- 여연(200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차』. 서울: 현암사.
- 윤경혁(1990). 『현대 차 생활 용어』. 서울: 보림사.
- 이귀례(2002). 『韓國의茶文化』. 서울: 열화당.
- 이진수(2006). 『茶의 이해』. 서울: (주)꼬레알리즘.
- 이진수(2006). 『찾자리 미학』. 서울: 지영사.
- 정상구(1991). 『茶文化學』. 부산: 도서출판 內外新書.
- 정상구(1995). 『韓國茶文化學』. 부산: 세종출판사.
- 정영선 편역(2005). 『동다송』. 서울: 도서출판 너럭바위.
- 정영선(2002). 『한국茶文化』. 서울: 도서출판 너럭바위.
- 정영호·이경남 외(2005). 『차문화 치료』. 서울: 양서원.
- 짱유화(2000). 『中國古代 茶書精華』. 경북: 남산탐방.
- 최계원(2006). 『우리 茶의 재조명』. 서울: 도서출판 차와 사람.
- 치우지핑, 김봉건 역(2005). 『다경도설』. 서울: 도서출판 이큰아침.

### <학위논문>

- 강성희(2002). "現代家庭에서 茶生活을 통한 子女教育".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강연숙(2002). "高麗·朝鮮時代의 末茶 茶碗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구자원(2005). "韓國과 中國의 「차 끓이기」用語와 方法의 歷史的 考察".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 김경희(2006). "朝鮮後期 宮中進宴을 통해 본 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김세리(2005). "現代 行茶法의 比較 研究".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 김영경(2001). "韓國 茶文化의 特性에 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김재임(2001). "朝鮮時代 茶畫에 나타난 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김정은(1993). "大學生의 茶生活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 문정숙(2002). "한국 전통 다식의 감미 결착제로서 올리고당 이용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희(1994). "韓國 茶禮 研究". 한국 교육대학교 대학원.
- 박순주(2003). "한국 傳統茶會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 손영숙(2007). "高麗後期 佛家의 飲茶風俗에 관한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육선자(2002). "韓國 飲茶空間의 歷史的 考察".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 이일희(2001). "高麗時代 禪茶詩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이일희(2004). "生態的 觀點에서 본 茶文化空間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長田 幸子(2007). "朝鮮末期 全羅南道地方의 飲茶風俗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전종수(2004). "茶生活이 軍將兵들의 精神戰力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조인희(2007). "1990년대 이후의 문헌을 통해 본 茶음식의 分析的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한승희(2002). "朝鮮時代 小盤과 現代 茶床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허충순(1988). "韓國 傳承 茶禮의 時代的 考察",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금이(2002). "高麗時代 宮闕茶儀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연구지>

- 김문용·이정주(2003). "조선시대 문화 분류를 위한 주제·양태 결합 분류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 박윤수(2004). "다모의 역사적 실체" . 『차문화연구지 13권』 .
- 박홍관(2005). "韓國 茶道具 名稱 試考". 『한국국제차문화학회지』 . pp103-128
- 이주연(2006). "梅月當 金時習의 茶道 研究". 『차문화연구지 14권』 .
- 이향숙(2006). "사전류를 통해 본 茶 관련 용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지.
- 정영선(2003). "고려와 조선의 茶와 湯과 藥의 기호문화". 『차문화연구지 12권』 .
- 정헌식(2001). "찾자리 꽃의 형식". 『차문화 연구지 10권』 .

# ABSTRACT

## Literature Study of Modern Tea Life Term

- Centering around the Term where there is letter 'Tea' after  
1980s -

Lee, Hyang Sook

Major in propriety and Tea-ceremony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study modern tea life term encyclopedically by extracting tea life term presented in the literature after 1980s and classifying and studying the contents. This researcher chose 6 kinds of great dictionary of national language and 6 kinds of tea book as the literatures of study subject. First, this researcher classified and studied tea life term by modes after choosing it by literatures, and tried to study as modern tea life term.

First, by condensing and classifying 161 terms except the terms of overlap, incompleteness, and mutual discrepancy out of 629 terms recorded in 6 kinds of dictionaries after 1980s, this researcher tried to reestablish as the terms for tea life or add the beauty of common use.

Second, contrasting and arranging 193 terms except the terms of overlap, incompleteness, and mutual discrepancy out of 357 terms recorded in 6 kinds of tea books after 1980s on the basis of dictionary terms made moderns refer in the life to drink tea. Third, the contents to classify the terms where there are character, 'tea' by forms from 12 kinds of literatures to be study subject is as follows:

Terms related to place are 33 units, terms related to persons are 17 units, and terms related to tea goods are 49 units. To classify the terms related to tea goods in detail, terms related to tea are 29 units, terms related to goods are 6 units, and terms related to tea food are 14 units. Terms related to tea tool are 120 units. To classify this in detail, terms of tool to make tea are 12 units, terms of tool to boil tea are 9 units, terms of tool to soak tea are 20 units, terms of tool to set tea are 23 units, terms of tool to drink tea are 17 units, terms of tool to arrange tea are 10 units, terms of tool to keep tea are 15 units, and rest household goods are 15 units. Terms related to technique and style are 14 units. Then, this is classified into terms related to language, 6 units and terms related to action, 8 units. Terms related to literature work are 10 units. Terms related to life custom are 42 units. Then, this is classified into terms related to tea ceremony, 13 units, terms related to tea meeting and spread, 15 units, and terms related to tea custom and system, 14 units.

Term which is being used most out of the terms of tea tool is teacup, and it may be defined as 'cup to fill with tea and drink'.

Fourth, objective condensation of terms of study subject is as follows:

Term to be used most in the terms related to place is teahouse.

Then, this term could be defined with 2 kinds, historical meaning and modern meaning. The former may be defined as the meaning, 'place to perform the tea ceremony of Royal Court and to carry our tea ceremony to accompany when kind visits', and the latter may be defined as the meaning, 'place that to sell tea or beverage by decoratting, so that people may share talk or take a rest'. Term to be used most in the term related to persons is tea horn.

The original meaning of tea horn was packing unit of tribute tea in Koryo period and Song period. But, the meaning of tea horn in [Daehanwha Dictionary] is the invitation of tea meeting or teacheobja.

And, in [tea and Zen of Chosun], it refers to the people o play the role of preparing and giving tea as a child who failed to be Buddhist priest, and it is referred to as alias, Seunggak or tea child. In addition, tea horn is referred to as the pen name of Jung, Keuk In.

Tea horn has diverse meanings like this. But, in modern time, it is made into daily affairs with meaning, 'people to provide many people after drawing tea in Buddhist temple.'

Term to be used most out of terms related to tea goods was tea. And, as the result of study of literature, it was classified into tea made with water that young leaf of tea tree was drawn or soaked and drink made by drawing or soaking leaf or root of plant and fruit. In modern time,

meaning of tea is being used with the wide meaning to include substitute tea which is not pure tea made with the leaf of tea tree. and, it is deemed to be desirable to include 'substitute tea' in the category of tea as the method for making tea intimate to mass.

Term to be used most in the term related to technique and style is gossip, and it may be defined as 'story to do, drinking tea'. Term to be used most in their term related to tea literature is tea scriptures. And, it may be defined as 'book that origin, manufacturing method, and tool etc. of tea are described in detail as the first professional book for tea.

Term to be used most in the term related to event and custom was tea ceremony. And, it could be defined 'ceremony to serve divinity, uddha and people with tea observing etiquette'.

As the result to have studied 12 kinds of literatures, 'modern tea life term' is not systematic yet. So, it is urgent subject to establish right and unified term, and also, it is deemed that the improvement of many terms which appeared in modern time is necessary.